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 연구

A Systematic Research on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최일선 • 이정아 • 홍장원 • 최지연

2020.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

최일선, 이정아, 홍장원, 최지연

연구진 |

연구책임자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연구기간 |

2020. 4. 6. ~ 2020. 10. 5.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최일선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4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3절, 제5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3절

내부연구진 |

이정아 제3장
홍장원 제5장 제2절 일부
최지연 제4장 제2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양위주 부경대학교 교수
오치옥 전남대학교 교수
황희정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준영 해양수산부 사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관광산업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략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문화적·기술적 환경 변화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해양관광 인프라 등 하드웨어 확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해양관광지 개발,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레저관광 시설 조성 등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지역 해양관광에 대한 공급과 수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지역의 해양관광 발전 수준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2019년 지역 해양관광 수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2019년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기 개발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의 세부지표와 지수산출 방법 등을 보완

함으로써 지표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우리나라 연안에 위치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평가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지역의 중장기 해양관광정책 방향 설정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지역균형·관광연구실 최일선 전문연구원과 연구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정부, 학계, 연구기관의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2020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 영 태

목차

요 약	i
-----	---

Executive Summary	xiii
-------------------	------

제 1장 연구의 개요	1
-------------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7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7
2.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체계 검토	11

제 2장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선정 및 자료수집 체계	15
----------------------------------	----

제1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의 선정체계	15
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타당성 검토	15
2.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의 선정	27
제2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의 자료수집 체계	28
1. 해양관광 공급 부문	29
2. 해양관광 수요 부문	37
3. 해양관광 정책역량 부문	44

제 3장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분석체계	51
--------------------------	----

제1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분석체계의 개요	51
-----------------------------	----

제2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분석 결과	52
1. 해양관광 공급 부문	52
2. 해양관광 수요 부문	66
3. 해양관광 정책역량 부문	78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88
제 4장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 및 적용체계	93
제1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	93
1. 지수 산출체계의 개요	93
2. 지표별 가중치 산정	94
제2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적용	103
1. 부문별 지수 적용·분석	103
2. 지역별 지수 적용·분석	107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32
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5
제1절 요약 및 결론	135
제2절 연구의 활용·관리방안 제안과 향후과제	138
1. 연구의 활용 및 관리방안	13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42
참고문헌	145
부 록	151

표목차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검토	9
〈표 1-2〉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세부지표 현황	13
〈표 2-1〉 1단계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 검토	17
〈표 2-2〉 OECD의 기초 데이터 품질 결정 기준	19
〈표 2-3〉 OECD의 기초 데이터 품질 결정 기준 부합 평가	20
〈표 2-4〉 2단계 연구진 심층워크숍	21
〈표 2-5〉 전문가 조사 설계	24
〈표 2-6〉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25
〈표 2-7〉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	27
〈표 2-8〉 지정 해수욕장 수 측정방법	29
〈표 2-9〉 해안둘레길 길이 측정방법	30
〈표 2-10〉 자연해안선 비중 측정방법	30
〈표 2-11〉 해양축제 비중 측정방법	31
〈표 2-12〉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 측정방법	31
〈표 2-13〉 어촌체험마을 수 측정방법	32
〈표 2-14〉 관광숙박업 객실 수 측정방법	33
〈표 2-15〉 어촌민박 수 측정방법	33
〈표 2-16〉 대중교통 접근성 측정방법	34
〈표 2-17〉 수상레저사업장 수 측정방법	35
〈표 2-18〉 수중레저사업장 수 측정방법	35
〈표 2-19〉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 측정방법	36
〈표 2-20〉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측정방법	36
〈표 2-21〉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 측정방법	37
〈표 2-22〉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측정방법	38
〈표 2-23〉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측정방법	38
〈표 2-24〉 해수욕장 이용객 수 측정방법	39
〈표 2-25〉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측정방법	39
〈표 2-26〉 해양관광 만족도 측정방법	40
〈표 2-27〉 해양관광 재방문 의향 측정방법	41
〈표 2-28〉 해양관광 타인추천의사 측정방법	41

〈표 2-29〉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측정방법	41
〈표 2-30〉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측정방법	42
〈표 2-31〉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측정방법	43
〈표 2-32〉 해양관광 주요지점 계절성 측정방법	43
〈표 2-33〉 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측정방법	44
〈표 2-34〉 관광 관련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 측정방법	45
〈표 2-35〉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측정방법	45
〈표 2-36〉 해양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 측정방법	46
〈표 2-37〉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 측정방법	47
〈표 2-38〉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측정방법	47
〈표 2-39〉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측정방법	48
〈표 2-40〉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 수 측정방법	48
〈표 2-41〉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 관광 관련 연구 수 측정방법	49
〈표 3-1〉 지정 해수욕장 수	52
〈표 3-2〉 해안둘레길 길이	54
〈표 3-3〉 자연해안선 비중	55
〈표 3-4〉 해양축제 비중	56
〈표 3-5〉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	57
〈표 3-6〉 어촌체험마을 수	58
〈표 3-7〉 관광숙박업 객실 수	59
〈표 3-8〉 어촌민박 수	60
〈표 3-9〉 대중교통 접근성(승용차)	61
〈표 3-10〉 대중교통 접근성(대중교통과 도보)	61
〈표 3-11〉 대중교통 접근성(승용차+대중교통과 도보의 평균)	62
〈표 3-12〉 수상레저사업장 수	63
〈표 3-13〉 수중레저사업장 수	64
〈표 3-14〉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	65
〈표 3-15〉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66
〈표 3-16〉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	67
〈표 3-17〉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68
〈표 3-18〉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69
〈표 3-19〉 해수욕장 이용객 수	70
〈표 3-20〉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71
〈표 3-21〉 해양관광 만족도	72

〈표 3-22〉 해양관광 재방문 의향	73
〈표 3-23〉 해양관광 타인추천의사	74
〈표 3-24〉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75
〈표 3-25〉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76
〈표 3-26〉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77
〈표 3-27〉 해양관광 주요지점 계절성	78
〈표 3-28〉 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79
〈표 3-29〉 관광 관련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	80
〈표 3-30〉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81
〈표 3-31〉 해양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	82
〈표 3-32〉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	83
〈표 3-33〉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84
〈표 3-34〉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85
〈표 3-35〉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 수	86
〈표 3-36〉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 관광 관련 연구 수	87
〈표 3-37〉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분석 종합	89
〈표 4-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가중치 산출 AHP 조사 설계	94
〈표 4-2〉 AHP 조사 응답자 특성	94
〈표 4-3〉 대분류 상대적 중요도	95
〈표 4-4〉 해양관광 공급지수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95
〈표 4-5〉 해양관광 수요지수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95
〈표 4-6〉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96
〈표 4-7〉 해양관광 매력물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96
〈표 4-8〉 해양관광 수용력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96
〈표 4-9〉 해양관광평가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97
〈표 4-10〉 지역경제효과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97
〈표 4-11〉 인력양성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97
〈표 4-12〉 관광행정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98
〈표 4-13〉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가중치 종합	98
〈표 4-14〉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산출	101
〈표 4-15〉 해양관광 경쟁력 가중치 적용	102
〈표 4-16〉 부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08
〈표 4-17〉 부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08
〈표 4-18〉 인천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10

〈표 4-19〉 인천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10
〈표 4-20〉 울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12
〈표 4-21〉 울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13
〈표 4-22〉 경기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14
〈표 4-23〉 경기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15
〈표 4-24〉 강원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17
〈표 4-25〉 강원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17
〈표 4-26〉 충청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19
〈표 4-27〉 충청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19
〈표 4-28〉 전라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21
〈표 4-29〉 전라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22
〈표 4-30〉 전라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23
〈표 4-31〉 전라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24
〈표 4-32〉 경상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25
〈표 4-33〉 경상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26
〈표 4-34〉 경상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28
〈표 4-35〉 경상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28
〈표 4-36〉 제주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130
〈표 4-37〉 제주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30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6
〈그림 1-2〉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표 개발 절차	12
〈그림 2-1〉 단계별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타당성 검토	16
〈그림 4-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방안	100
〈그림 4-2〉 해양관광 매력도와 수용력의 지역별 점수	103
〈그림 4-3〉 해양관광 공급지수의 지역별 점수	104
〈그림 4-4〉 해양관광 평가와 지역경제효과의 지역별 점수	105
〈그림 4-5〉 해양관광 수요지수의 지역별 점수	105
〈그림 4-6〉 인력양성과 관광행정의 지역별 점수	106
〈그림 4-7〉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의 지역별 점수	107
〈그림 4-8〉 부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09
〈그림 4-9〉 인천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11
〈그림 4-10〉 울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14
〈그림 4-11〉 경기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16
〈그림 4-12〉 강원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18
〈그림 4-13〉 충청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20
〈그림 4-14〉 전라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22
〈그림 4-15〉 전라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25
〈그림 4-16〉 경상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27
〈그림 4-17〉 경상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29
〈그림 4-18〉 제주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131
〈그림 4-19〉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분석(1)	132
〈그림 4-20〉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분석(2)	133
〈그림 5-1〉 연구 요약	137
〈그림 5-2〉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활용	139
〈그림 5-3〉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관리	141

약어 목록

※ 알파벳 순

CVI(내용타당도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WEF(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요약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 연구

1. 연구의 목적

- ▶ 관광산업의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규모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정책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수요, 운영, 관리 등 종합적인 분석 부재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 2019년 기준 부산권과 강원권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체의 78%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타 지역은 해양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 해양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요인을 규명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 공급, 수요, 운영, 관리 측면의 종합 해양관광 경쟁력 평가가 필요함

- 이에 2019년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개발함

※ 해양관광 경쟁력이란 ‘해양관광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의 총체적 능력으로 해양관광지의 공급, 수요, 운영, 관리, 정책 등 내·외부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 본 연구는 기 개발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체계화를 통해 연안 지역의 해양관광 발전 역량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연안 11개 광역시·도에 대한 시범 적용을 통해 세부지표별 분석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전국 연안 74개 기초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 본 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활용함
- 연구수행 단계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 검토, 조사 통계 분석 등의 방법과 전문가 조사(AHP 조사),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자문 등의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함

〈표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 연구자(연도): 최일선·홍장원·이정아(2019)	• 문헌조사 • 전문가 조사 • 사례분석 • 전문가 심층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념 정립 • 국내외 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및 활용 사례 분석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연구목적: 국내 해양관광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 개발	인터뷰 등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활용방안 도출
2	- 과제명: 2019 관광 경쟁력 지수 보고서(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연구자(연도): 세계경제포럼(2019) - 연구목적: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발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	- 문헌조사 -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 조사 - 고위경영자 설문조사	- 세계 관광경쟁력지수 종합 분석 - 대륙별 분석 - 국가별 분석
3	- 과제명: 관광 경쟁력 측정 지표 연구(Indicators for Measuring Competitiveness in Tourism) - 연구자(연도): Dupeyras, A. & MacCallum, N. (2013) - 연구목적: 관광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각국의 관광 경쟁력 측정 가이드라인 제공	- 문헌조사 - 전문가 조사	- 핵심 지표 분석 - 보조 지표 분석 - 미래 개발 지표 분석 - 관광경쟁력 지표 측정 시범 제안
4	- 과제명: 2017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 연구자(연도): 문화체육관광부(2018) - 연구목적: 전국 지자체의 지역관광발전 동향 분석 및 관리체계 마련	- 문헌조사 - 전문가 조사 - 지역설명회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지역관광발전지표체계 마련 - 지자체 현황분석 - 지역관광발전지수 산출 - 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도출
5	- 과제명: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 연구자(연도): 문화체육관광부(2019) - 연구목적: 2017년 지역문화	- 지역문화실태조사 - 전문가 조사	-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 지수 분석 - 지역문화지수 분석(대분류, 격차, 광역비교 등) - 문화균형지수 시범분석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외 문화여건 진단 및 상호비교를 통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본 연구	• 과제명: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 연구 • 연구자(연도): 최일선 외 (2020) • 연구목적: 기 개발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연안지역 광역단위(11개 시·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수를 체계화하고자 함	• 전문가 조사 •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 • 전국민 설문조사 • 지자체 설문조사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 점검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분석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분석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정책적 활용방안 도출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특징

-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양관광 지역 경쟁력 지표 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연안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함
 - 해양관광 지역 경쟁력을 실증 데이터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기존 공급자 중심 관광정책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공급, 수요, 운영 및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함
 - 자료수집은 정부에서 발간된 정부승인통계, 공식 보고서, 행정보도 자료 등의 통계자료와 정부문서들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지표들은 자체조사를 실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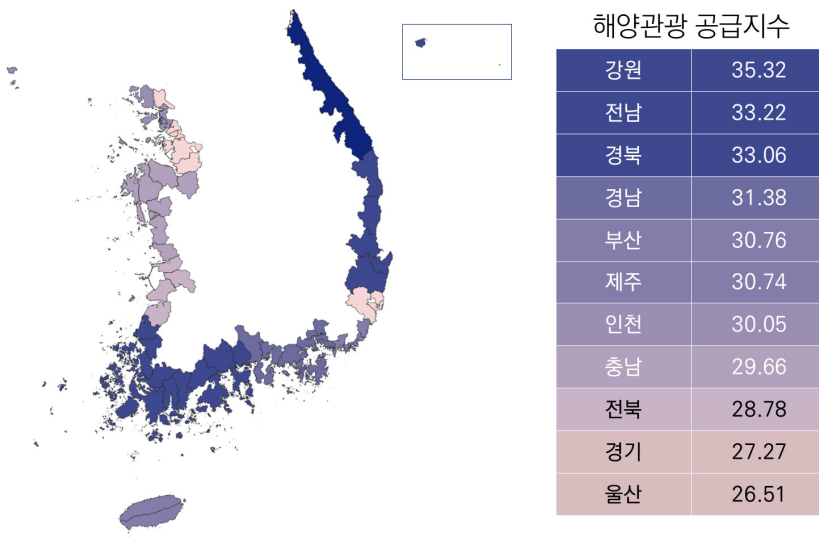
- ▶ 지표의 체계화와 실제 적용을 위해 기 개발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를 검토하고 자료의 구득 및 적용 가능성 등 자료 수집 방향을 제시함
 - 지표 구성의 단순화를 위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1단계), OECD 지표 점검기준 부합도 검토를 위한 연구진 심층워크숍(2단계), 지표의 표면타당성 및 내용타당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3단계)을 거쳐 3개 대분류, 6개 중분류, 14개 소분류, 34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를 도출함
 - 각 세부지표의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지표 측정 시 정부승인통계, 공식 보고서, 행정정보자료 등의 통계자료와 정부문서를 활용하고, 일부 지표는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측정방법, 자료 출처 및 자료 시점 등 자료수집 체계를 제시함
-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에 앞서 도출한 연안 11개 광역시·도의 세부지표별 지פות값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양관광 수요지수,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등 3개 부문에 걸쳐 각 지자체별 보유 자원의 양적·질적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부문별·지역별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부문별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분석 결과]

-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강원(35.32점), 전남(33.22점), 경북(33.06점) 순으로 높고, 울산(26.51점), 경기(27.27점), 전북(28.78점) 등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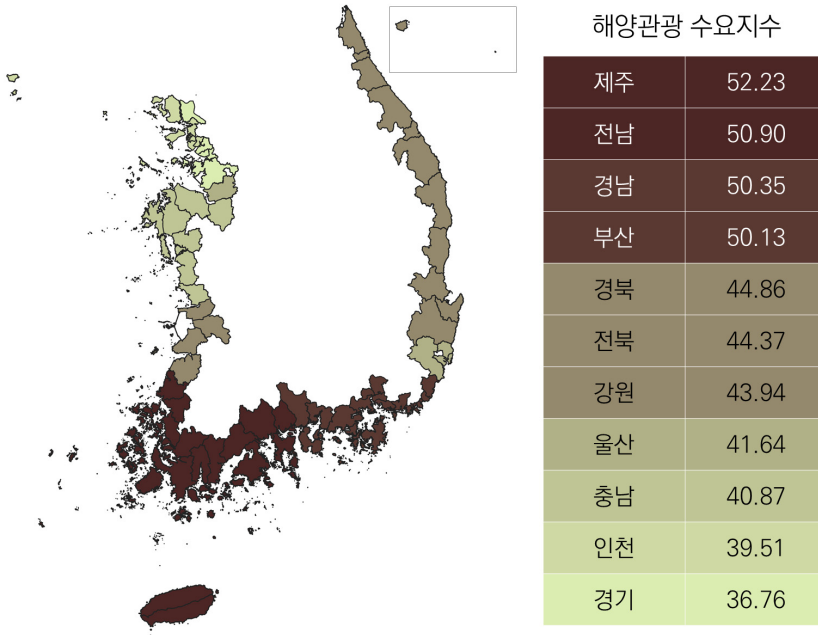
〈그림 1〉 지역 해양관광 공급지수



자료: 저자 작성

-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제주(52.23점), 전남(50.90점), 경남(50.35점), 부산(50.1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36.76점), 인천(39.51점), 충남(40.87점), 울산(41.64점) 등이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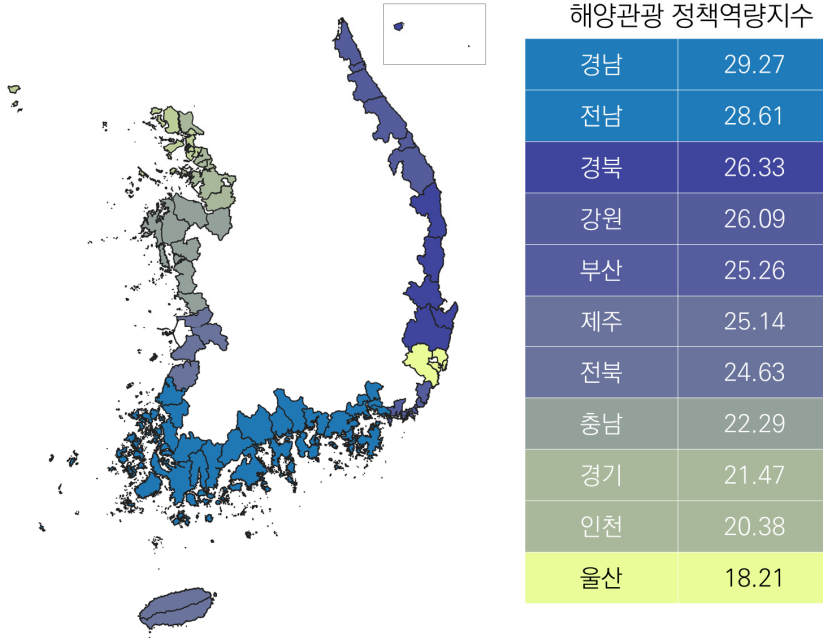
〈그림 2〉 지역 해양관광 수요지수



자료: 저자 작성

-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경남(29.27점), 전남(28.61점), 경북(26.33점), 강원(26.09점) 순으로 높고, 울산(18.21점), 인천(20.38점), 경기(21.47점) 등이 낮게 나타남

〈그림 3〉 지역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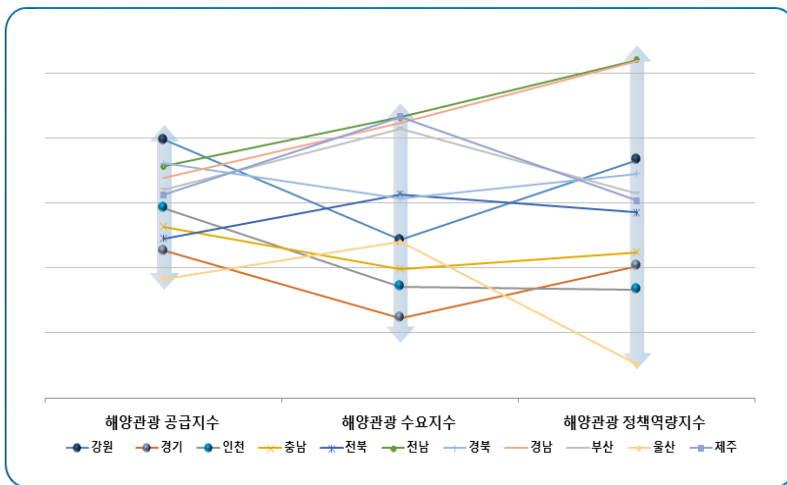
[지역별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분석 결과]

- (부산) 평균 이상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보이며, 공급, 수요, 정책역량이 균형적이고 수요지수가 높음. 인력양성 측면 강화가 필요함
- (인천) 수요, 공급, 정책역량의 경쟁력은 균형적이나, 해양관광 수용력 외 모든 부문이 평균 이하로 특히 해양레저관광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울산) 해양관광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적 관심이 매우 낮음. 다만 해양관광의 지역경제 효과 및 평가가 높아 관련 정책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 해양관광 수용력과 인력양성 경쟁력이 높지만 매력물이 빈약하고 해양관광 예산이 적으며, 관광정책 전담 부서가 부재하므로 매력물 확보 및 관광행정 강화가 필요함
- (강원도) 평균 이상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보이며, 공급, 수요, 정책역량이 균형적이고 매력물의 경쟁력이 매우 높음. 다만 지역경제효과가 낮아 사업체 경쟁력 강화와 해양관광 다계절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충청남도) 수요, 공급, 정책역량의 경쟁력은 균형적이거나, 모든 부문이 평균 이하로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 제고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전라북도) 해양관광평가 등 수요지수는 높으나 매력물, 관광행정 경쟁력이 낮아 해양관광 매력물을 발굴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정책역량 제고가 필요함
- (전라남도) 평균 이상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보이며, 특히 정책역량이 매우 높음. 다만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접근성 개선 등 수용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경상북도) 수요, 공급, 정책역량의 경쟁력이 고르게 높으며, 특히 관광행정과 해양관광 매력물의 경쟁력이 높음
- (경상남도) 평균 이상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보이며, 특히 해양관광 부문 예산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크고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등 인력양성도 활발해 정책역량의 경쟁력이 높음
- (제주도) 해양관광평가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반면 공급, 정책역량의 경쟁력은 평균 수준임. 제주의 독특한 매력물을 개발하고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종합분석 결과 전남과 경남의 해양관광 경쟁력이 높으며, 경기, 울산, 인천, 충남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해양관광 공급지수의 지역별 격차가 적으며, 수요지수와 정책역량 지수 순으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연안 광역시·도 해양관광 매력물과 수용력의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해양관광 수요와 해양관광 정책역량에는 차이가 존재함
 - 전반적으로 전남과 경남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가 높은 편이며, 경기, 울산, 인천, 충남 지역은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4〉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분석



자료: 저자 작성

- ▶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활용방안과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첫째, 지역의 해양관광 여건을 객관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둘째, 지역의 해양관광정책 목표 설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셋째, 지역별 해양관광 정책사업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 의한 지수 관리체계 마련 및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2) 연구의 활용 및 관리방안

- ▶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활용방안과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첫째, 지역의 해양관광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둘째, 지역의 해양관광정책 목표 설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셋째, 지역별 해양관광 정책사업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에 의한 지수 관리체계 마련 및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속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 선정이 필요함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국내 해양관광 정책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발굴과 성과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지역의 중장기 해양 관광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의사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는 등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음

A Systematic Research on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Il-Sun Choi · Jeong-A Lee · Jang-Won Hong · Ji-Yeon Choi

1. Purpose

- ▶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tourism industry is more pivotal than ever before as a way to invigorate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y
- With the growing demand for coastal and marine tourism, large infrastructure policy projects in the field of marine leisure and tourism are steadily on the rise. However,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analysis encompassing supply, demand, operation and management has resulted in exacerbating imbalance between regions.
- ※ As of 2019, visitors to the beaches in the Busan and Gangwon areas accounted for more than 78% of the total, so other regions are not enjoying the economic effect of coastal and marine tourism.

- A comprehensive evaluation on the competitiveness of coastal and marine tourism is essential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y, demand, operation and management in order to identify contributo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to increase tourism competitiveness.
- Hence,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was developed in 2019 as a means to offer subjective and scientific assessment on the level of the industry's invigoration.
 - ※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refers to a region's holistic capacity to achieve and maintain sustainable productivity of coastal and marine tourism, taking on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f coastal and marine tourism sites including factors such as supply, demand, operation, management and policy.
- ▶ This study aims to systemize the already developed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capacity and level of coastal and marine tourism development in coastal areas.
 - To be specific, this study intends to implement pilot projects in 11 coastal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order to investigate analysis systems by specific indicators. Following this, it aims to devise a system for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applicable to 74 coastal municipalities across the nation.

2. Methodology and Feature

1) Methodology

- ▶ This study utilized a comprehensive methodology of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 Depending on the stage of research process, the study simultaneously carried out analysis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analysis, expert survey (AHP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consultation.

Classification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Major contents
Major preceding studies	1	• Study name: Development of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Researcher(year): Choi Il-sun, Hong Jang-won, Lee Jeong-a (2019) • Objective: Develop an index capable of assessing Korea's coastal and marine competitiveness	• Literature review • Expert survey • Case analysis •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developing and utilizing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Develop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Index • Extract suggestions for applying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Index
	2	• Study name: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Researcher (year): World Economic Forum (2019) • Objective: Offer	• Literature review • Analysis on international statistical data • Survey on senior executives	•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World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Analysis by Continent • Analysis by country

Classification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Major contents
		information by analyzing and assessing development as well as hindrance facto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each nation's tourism industry		
	3	• Study name: Indicators for Measuring Competitiveness in Tourism • Researcher(Year): Dupeyras, A. & MacCallum, N. (2013) • Objective: Provide a tool guide for countries to analyse tourism competitiveness and inform policy.	• Literature review • Expert survey	• Analyze the core indicators • Analyze the supplementary indicators • Analyze the future development indicators • Suggest the pilot testing of the indicators
	4	• Study name: 2017 Trend Analysis of the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Index • Researcher (yea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8) • Objective: Analyze the trends of tourism development carried out by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 Literature review • Expert survey • Collect opinions from regional business sessions and local governments	• Establish a system for the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Index • Analyze the pres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 Produce the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Index • Derive measures to utilize and manage the index

Classification		Differentiation from preceding studies		
		Purpose	Method	Major contents
	5	• Study name: 2017 Pilot Project of the Analysis on the Composite Index of Local Culture Survey and the Culture Balance Index • Researcher (yea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 Objective: Provide basic data for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based on the result of 2017 Local Culture Survey through diagnosis and mutual comparison of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of regional culture	• Study the current status of local culture • Expert survey	• Analyze the composite index of local culture surveys • Analyze the Local Culture Index (large classification, differentials, comparison by metropolitan city etc.) • Analyze on the Culture Balance Index as pilot project
	This study	• Study name: A Study on the Systemization of the Region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Researcher (year): Choi Il-sun et al. (2020) • Objective: Apply the already develope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to 11 metropolitan cities (11 cities and provinces) in coastal areas as a pilot project in order to systemize the index	• In-depth interview with experts • Expert survey • Conduct a national survey • Survey on local governments	• Study the system of the Region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Analyze the Region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Region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Derive measures to apply the Region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into policy

Source: Written by authors

2) Feature

- ▶ Based on preceding studies, this study applied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to 11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coastal areas as part of a pilot proje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index system.
- This study bears its significance from the fact that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is assessed based on substantial data, while establishing a subjective measurement.
- Having criticized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upplier-driven tourism policy,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ncluding from those that focus on supply, demand, operation and policy.
- For data collection, government-approved statistics, official reports,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published by the government were used, and some indicators conducted self-investigation.

3. Results

1) Summary

- ▶ This study reviewed the existing system of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to effectively systemize and apply a number of indicators to the field, while

proposing a direction for data collection including potential acquisition and its applicability.

- This study proceeded with three stages of research to simplify the composition of indicators. This process includes reviewing content validity by experts (1st stage), followed by holding in-depth workshops with researchers to review the conformity of OECD indicator inspection standards (2nd stage), and finally collecting the opinions of experts to enhance the content and face validity of the index (3rd stage).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derived a system for the Regional Coast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consisting of 3 large classifications, 6 middle classifications, 14 small classifications and 34 detailed indicators.
-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data collection indicated the need for including measurement methods, data references as well as timing of data collection with the concept of each detailed indicators being defined. Moreover, this study utilized various statistical data including government-approved statistics, official reports, press releases as well as governmental documents related to evaluating indicators, while autonomously investigating a number of indicators.
- The value of detailed indicators of 11 coastal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ignificantly varied by region when calculating the Coastal Region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Ranging from the Coastal Marine Tourism Supply Index,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Demand Index and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Policy Capacity Index, the quantity and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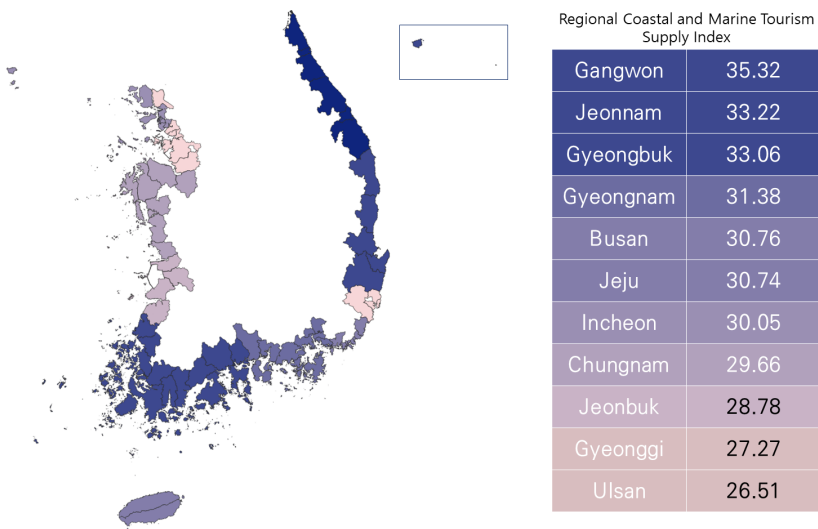
level of resources possessed by each local government substantially varied.

- ▶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by sector and by region are as follow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by sector]

-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Supply Index is the highest in Gangwon (35.32 points) followed by Jeonnam (33.22 points) and Gyeongbuk (33.06 points), while Ulsan (26.51 points) ranked the lowest preceding Gyeonggi (27.27 points) and Jeonbuk (28.78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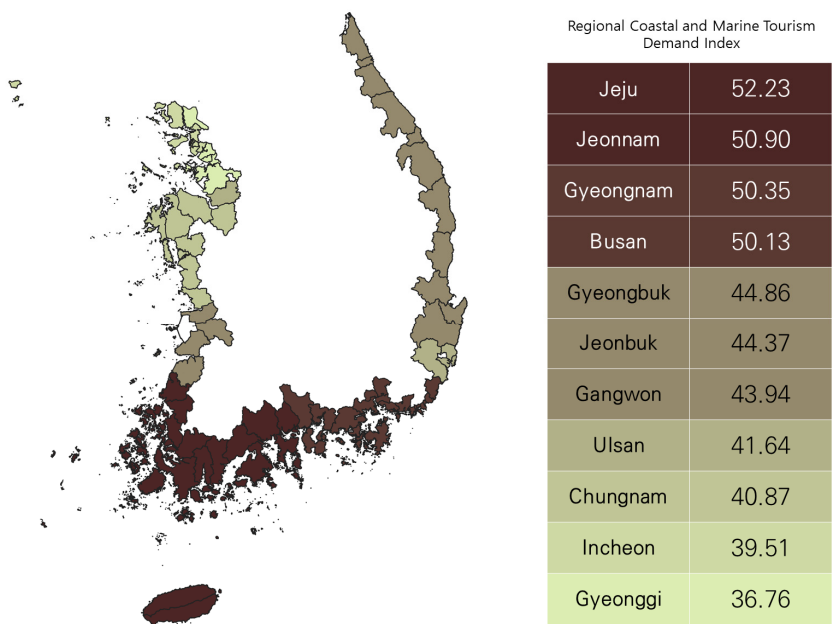
〈Picture 1〉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Supply Index



Data: Written by authors

- The Costal and Marine Tourism Demand Index was the highest in Jeju (52.23 points) followed by Jeonnam (50.90 points), Gyeongnam (50.35 points) and Busan (50.13 points). However, Gyeonggi (36.76 points) ranked the lowest in this particular category after Incheon (39.51 points), Chungnam (40.87 points) and Ulsan (41.64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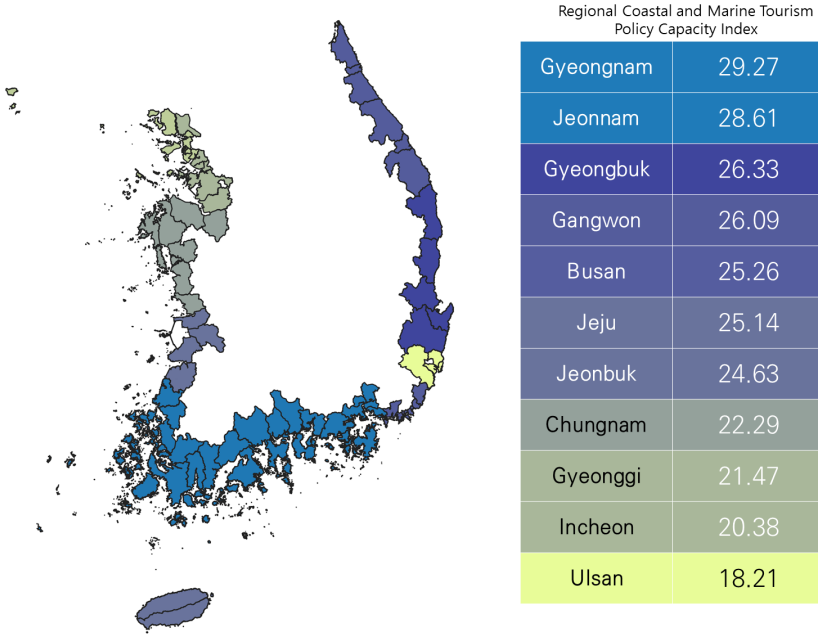
〈Picture 2〉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Demand Index



Data: Written by authors

- Gyeongnam (29.27 points) was positioned the highest in the category of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Policy Capacity Index, followed by Jeonnam (28.61 points), Gyeongbuk (26.33 points) and Gangwon (26.09 points), while Ulsan (18.21 points) was positioned the lowest followed by Incheon (20.38 points) and Gyeonggi (21.47 points).

〈Picture 3〉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Policy Capacity Index



Data: Written by authors

[The result of analysis on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by region]

- (Busan) With higher than average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Busan possesses a balanced policy capacity and a high demand index. However, the region needs to enhance its development of relevant manpower.
- (Incheon) The competitiveness of demand, supply and policy capacity in Incheon can be considered balanced, however, all categories other than receptive capacity of marine tourism was proven to be lower than average. In particular, in regard to the city's competitiveness, there is a need to enhance policy for

supporting the marine leisure and tourism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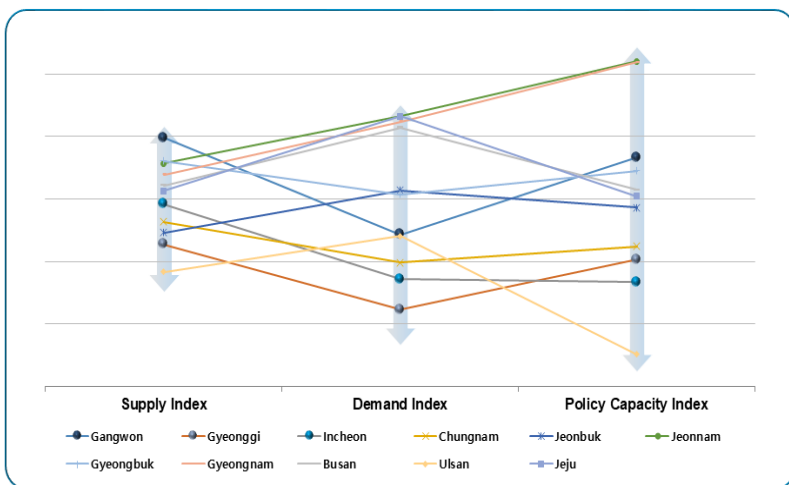
- (Ulsan) The competitiveness of marine tourism in Ulsan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w with substantially substandard policy interest. Since the effect and assessment of marine tourism on the local economy was considered high, however, there needs to be a strengthened support for relevant policy.
- (Gyeonggi-Do) The receptive capacity of marine tourism and the competitiveness of nurturing manpower was estimated to be high. However, this province does not have a department exclusively in charge of tourism policy, while suffering from a shortage of tour attractions as well as a low marine tourism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cure more tour attractions and strengthen its tourism administration.
- (Gangwon-Do) With higher than average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this province's demand, supply and policy capacity of marine tourism has been judged to be balanced, while its tour attractions have significantly high competitiveness. However, the effect of marine tourism on the regional economy is quite low and thus requires measures to enhance relevant companies as well as ways to allow tourists to enjoy the province during all seasons.
- (Chungcheongnam-Do) Despite being deemed to possess a balanced competitiveness in regards to the demand, supply and policy capacity of marine tourism, this province ranked lower than average in all catego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olicy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ased on more interest in marine tourism.

- (Jeollabuk-Do) Although this region's demand index can be considered high such as through the marine tourism assessment, the competitiveness of tour attractions and the tour administration has been assessed as being low.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policy capacity including discovering marine tourism attractions and expanding the budget.
 - (Jeollanam-Do) With higher than average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the policy capacity of this province is particularly high.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further policy to increase the receptive capacity such as preventing marine accidents and improving transportation access.
 - (Gyeongsangbuk-Do) The competitiveness of demand, supply and policy capacity in this province are all relatively high. In particular, the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administration as well as tour attractions can be considered high.
 - (Gyeongsangnam-Do) This province has a higher than average competitiveness in regards to marine tourism. With a relatively higher budget allocated to marine tourism, the region is actively nurturing relevant manpower including local culture and tour guides, representing a strong policy capacity.
 - (Jeju-Do) Despite possessing significantly high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marine tourism, the competitiveness of its policy capacity is average. It is essential to develop unique tour attractions while establishing measures to boost policy interest.
- ▶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of marine tourism in Jeonnam and Gyeongnam can be considered high while provinces including Gyeonggi, Ulsan,

Incheon and Chungnam require further measure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 The regional gap of the Coastal and Marine Tourism Supply Index was found to be low. However, the regional gap was found to be high in the order of the Demand Index followed by the Policy Capacity Index.
- The regional gap of marine tourism attractions and their receptive capacity is relatively small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regions in terms of demand and the policy capacity of marine tourism.
- Overall,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in Jeonnam and Gyeongnam was assessed to be high, while regions including Gyeonggi, Ulsan, Incheon and Chungnam need further measures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Picture 4〉 Analysis on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Data: Written by authors

-
- ▶ Based on an experts' survey, this study derived measures to utilize and manage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as shown below.
 -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can be utilized in a number of ways, firstly, as basic data for objectively analyzing conditions of a region's marine tourism. Secondly, this index can be used as a solid ground for establishing objectives related to a region's marine tourism policy. Finally, it can be used in establishing a feedback system through the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marine tourism policy projects by region.
 - Experts generally agreed on the opini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 index management system to operate and manage the Region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2) Research utilization and management plan

- ▶ Based on an experts' survey, this study derived measures to utilize and manage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as shown below.
-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can be utilized in a number of ways, firstly, as basic data for objectively analyzing conditions of a region's marine tourism. Secondly, this index can be used as a solid ground for establishing objectives related to a region's marine tourism policy. Finally, it can be used in establishing a feedback system through the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marine tourism policy

projects by region.

- Experts generally agreed on the opinio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 index management system to operate and manage the Regional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 It is necessary to select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continuous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can be utilized in establishing the policy direction and objective of Korea's coastal and marine tourism, while serving as basic data to discover a new business as well as to evaluate its outcome.
- ▶ At a regional level, the Regional Coastal and Marine Tourism Competitiveness Index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etting up a mid-to-long term direction of regional policy on marine tourism and determining policy decisions. In doing so, the index can be utilized in preparing sustainable development measures for the regional tourism industry by, for instance, concentrating on areas with competitive advantages while improving on vulnerable areas.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140개 평가 국가 중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다¹⁾. 관광산업은 국가경제의 기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요 전략으로서 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새로운 관광시설과 상품을 개발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관광 행정을 추진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요인을 규명하고 관광 경쟁력

1) WEF(2019). p.13.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 경쟁력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경제포럼의 ‘관광경쟁력지수’, ‘OECD 관광경쟁력 지표’, ‘지역관광발전지수’, ‘지역 관광경쟁력 진단 모형’, ‘지역문화균형지수’ 등 다수의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관광 분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국내 해양관광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앞서 제시하였던 ‘지역관광발전지수’, ‘지역문화균형지수’ 등의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으나 해양관광 분야는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양관광 부문은 관광객의 새로운 경험 추구, 연안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여가시간 확대 등 다양한 내·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관광 경험률은 2015년 80%에서 2018년 86%로 나타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규모 해양관광지 개발, 해양문화시설 확충, 해양레저관광 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해양관광 사업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어 정책추진 당위성과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관광 시장은 접근성과 관련 기반시설 발달을 바탕으로 부산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 예로 2019년 기준 부산에 위치한 해수욕장 이용객이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의 51.6%를 차지하고, 강원권이 26.5%를 차지하며,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의 78% 이상이 이 두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³⁾. 이러한 지역은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지역은 해양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KMI 내부자료(2019).

3)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19).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해양관광 분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양관광실태조사 등의 단발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역시 공급, 수요, 운영, 관리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2019년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 수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가 개발된 바 있다.⁴⁾ 해양관광 경쟁력이란 ‘해양관광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의 총체적 능력으로 해양관광지의 공급, 수요, 운영, 관리, 정책 등 내·외부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정의한다.⁵⁾ 즉, 해양관광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란 해양관광 매력도와 수용력 등 관광목적지로서의 관광 공급력이 크고, 관광객의 활발한 관광활동으로 관광소비가 높아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해양관광발전을 위한 지역의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지역의 해양관광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지역이 보유한 해양관광과 관련된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양관광 수요지수,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지표를 체계화하고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한 도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후 도출된 지표 체계를 연안지역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국내 해양관광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 사업의 발굴과 성과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

4) 최일선·홍장원·이정아(2019).

5) 위의 책, p. 23.

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취약한 분야를 평가하여 지역의 중장기 해양관광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의사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 개발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중심으로 연안지역의 해양관광 발전 역량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안지역 광역단위(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실시하여 세부지표에 대한 측정 자료의 확보방안, 측정 시기, 측정 척도 등 방법과 과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분석 체계를 최종 점검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전국 연안 74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첫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연안지역 11개 광역시·도로 구체적으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이다.

둘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를 2019년으로 설정하고자 하나 특정 지표의 경우 조사 시점의 한계로 인한 다른 연도 자료의 활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향후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지표별 측정시기, 측정방안 등 자료수집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함에 있어 연구의 한계점 및 보완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제2장에서는 기존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분석하고 지표 체계를 점검하여 수정된 지표 체계를 도출하고자 하며, 수정된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자료 수집 방향을 구축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연안지역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수정된 지표 체계를 적용하여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현황을 시범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4장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며,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지속 가능한 지수로서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 및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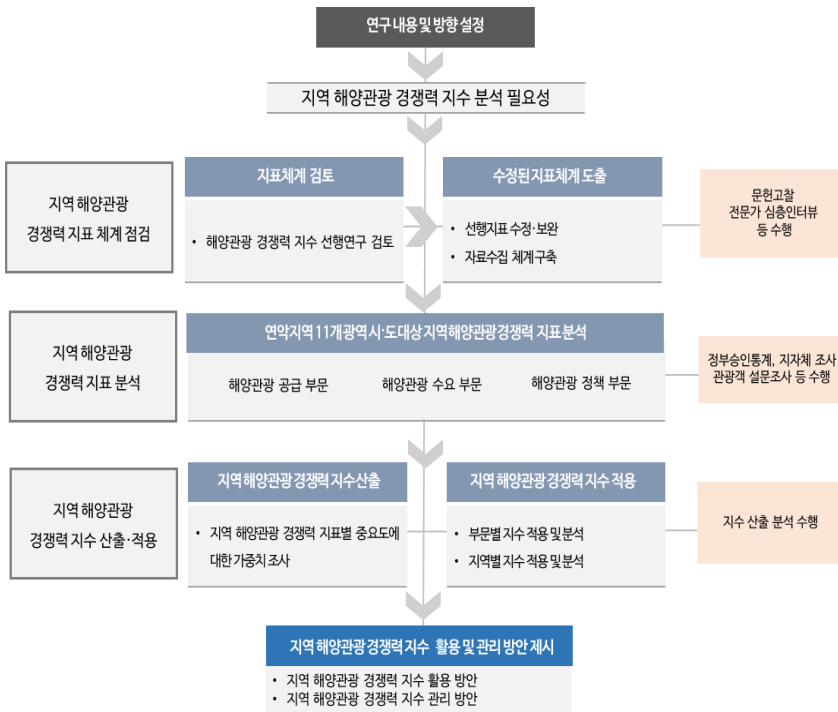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처음으로 진단하고 이를 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 향후 연구의 대상을 전국 연안지역 74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여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속적인 산출을 유도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통합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수행 절차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 검토, 조사 통계 분석 등의 방법과 전문가 조사 등의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지표 체계 점검은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분석은 정부승인통계, 지자체 조사, 전국민 조사 등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병행하여 데이터 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분석은 전문가 조사(AHP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은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일련의 종합적인 연구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기존 관광 관련 지수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국외 관광 관련 지수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실시하는 ‘관광경쟁력지수’와 OECD 관광위원회가 개발한 ‘OECD 관광경쟁력 지표’가 있고, 국내 관광 관련 지역지수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격년으로 실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가 대표적이다. 세계경제포럼의 관광경쟁력지수는 전 세계 14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산업에 대하여 국가별 관광산업 현황, 잠재력,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지수는 2007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다. 관광경쟁력지수는 총 9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는 국제기구의 통계데이터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실시하는 산업계 리더 대상 전문가 설문조사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관광경쟁력지수는 국제 비교를 통하여 국가의 관광경쟁력을 서열화하고, 국가의 분야별(환경조성, 관광정책 및 기반조성, 인프라, 자연 및 문화자원) 세부 순위를 제공하여 국가 관광경쟁력의 현재 위치와 발전 저해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 OECD 관광위원회는 관광경쟁력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경제에 있어 관광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며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기능은 각국의 관광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관광경쟁력 지표는 핵심지표 11개, 보조지표 5개, 미래개발지표 4개로 구성되었으며, 지표 도출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다만 해당 연구는 실질적인 데이터 적용을 통한 지표의 검증 및 적용 가능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범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발전지수는 2014년 표준모델을 개발하였고, 이후 2015년, 2017년 지역관광발전지수의 적용을 통하여 지표 체계와 지표별 데이터 구축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완되었다. 현재까지 2015년, 2017년, 2019년 총 3번의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정부승인통계자료와 지자체 조사자료,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는 그동안 분석되었던 지표 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이에 대한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과에 대한 시각화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하여 지수 활용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201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문화균형지수와 관련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지역문화지수의 한계점으로 문화 및 여가 생활 만족도, 삶의 질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실제 체감도의 반영 부족을 지적하며, 공급(객관지표)과 수요(체감지표)를 결합하여 객관적인 지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를 공급지표로, 문화향수실태조사를 수요지표로 활용하여 이들 지표 간 차이점을 근거로 문화균형지수를 산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공급 중심의 지역문화 여건 진단을 비판하고 수요에 근거한 지역문화 정책 개선 방안 도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검토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 연구자(연도): 최일선·홍장원·이정아(2019) • 연구목적: 국내 해양관광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 개발	• 문헌조사 • 전문가 조사 • 사례분석 •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념 정립 • 국내외 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및 활용 사례 분석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활용방안 도출
	2	• 과제명: 2019 관광 경쟁력 지수 보고서(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연구자(연도): 세계경제포럼(2019) • 연구목적: 세계 각국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발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	• 문헌조사 • 국제기구 통계 데이터 조사 • 고위경영자 설문조사	• 세계 관광경쟁력지수 종합 분석 • 대륙별 분석 • 국가별 분석
	3	• 과제명: 관광 경쟁력 측정 지표 연구(Indicators for Measuring Competitiveness in Tourism) • 연구자(연도): Dupeyras, A. & MacCallum, N. (2013) • 연구목적: 관광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각국의 관광 경쟁력 측정 가이드라인 제공	• 문헌조사 • 전문가 조사	• 핵심 지표 분석 • 보조 지표 분석 • 미래 개발 지표 분석 • 관광경쟁력 지표 측정 시범 제안
	4	• 과제명: 2017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 연구자(연도): 문화체육관광부(2018) • 연구목적: 전국 지자체의 지역관광발전 동향 분석 및 관리체계 마련	• 문헌조사 • 전문가 조사 • 지역설명회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지역관광발전지수체계 마련 • 지자체 현황분석 • 지역관광발전지수 산출 • 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도출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5	- 과제명: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 연구자(연도): 문화체육관광부(2019) - 연구목적: 2017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외 문화여건 진단 및 상호비교를 통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문화실태조사 - 전문가 조사	-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 지역문화지수 분석(대분류, 격차, 광역비교 등) - 문화균형지수 시범분석
	본 연구	- 과제명: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 연구 - 연구자(연도): 최일선 외(2020) - 연구목적: 기 개발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연안지역 광역단위(11개 시·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수를 체계화하고자 함	- 전문가 조사 -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 - 전국민 설문조사 - 지자체 설문조사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 점검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분석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분석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정책적 활용방안 도출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기 개발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토대로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였던 해양관광 분야의 지역 경쟁력을 실증 데이터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관광 분야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판단 등에 대한 한계점 등을 비판하며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공급, 수요, 운영 및 정책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를 점검하고, 전문가 조사, 전문가 심층인터뷰, 전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표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체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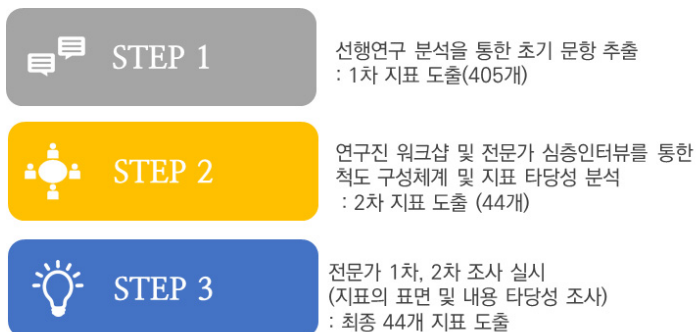
기존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양관광 수요지수,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등 3개의 대분류와 6개의 중분류, 16개 소분류, 44개의 세부지표로 구분된다.⁶⁾ 기존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표 개발 절차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관광경쟁력과 관련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405개의 문항을 추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 심층워크숍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해양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44개의 지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1, 2차 조사를 통하여 지표의 표면타당성⁷⁾ 및 내용타당성⁸⁾을 확보하여 최종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를 마련하였다.

6) 최일선·홍장원·이정아(2019).

7) 지표의 표면타당성(face valid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척도나 지표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척도나 지표 수정을 실시

8) 지표의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이란 척도나 지표가 어떤 개념에 내포된 의미들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전문가 설문문항의 타당성 조사로 확보 가능

〈그림 1-2〉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표 개발 절차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자료: 저자 작성

세부적으로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해양관광 매력물과 해양관광 수용력으로서 연안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경쟁력의 개념으로 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다. 해양관광 공급지수를 측정하는 지표는 총 22개이다.

다음으로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해양관광평가와 지역경제효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양관광평가 부문은 관광목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 만족, 소비액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경제효과는 이를 통하여 지역이 창출하는 소득, 관광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해양관광 수요지수를 측정하는 지표는 총 14개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연안지역의 해양관광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역량에 대한 평가로 인력과 행정수준을 나타낸다. 인력에 대한 부문은 지역주민의 역량과 인력 규모로 구성되고, 관광행정 부문은 관광정책을 나타낸다.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

수를 측정하는 지표는 총 8개이다. 기존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2〉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세부지표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해양 관광 공급 지수	해양관광 매력물	자연자원	해수욕장 수
			해안둘레길(해파랑길, 해안누리길 등) 길이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해양생물, 습지, 해양경관보호구역) 수
		문화자원	지역축제 수
			문화재 수
			어촌체험마을 수
			개방 등대 수
			박물관(전시/관람관) 수
	해양관광 수용력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지 지정 개소 수
			관광단지 지정 개소 수
		숙박시설	관광숙박업 객실 수
			어촌민박 수
		교통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광역 버스, 열차, 항공, 선박 등 운항횟수)
			시티투어버스 운영 유무
		해양레저 스포츠 시설	낚시어선 수
			수상레저사업장 수
			수중레저사업장 수
			마리나 계류 선석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수
해양 관광 수요 지수	해양관광 평가	관광객 수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해양경찰 수
			관광안내소 수
			주요지점 관광객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해수욕장 이용객 수
			낚시어선 이용객 수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의사
	지역경제 효과	관광소비액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관광소득 창출	주요 해양관광시설(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휴양단지, 해양레저체험교실) 매출액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수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매출액
해양 관광 정책 역량 지수	인력양성	관광기간	주요지점 관광객 수 성수기 비율(계절성)
		주민 역량강화	지역주민 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비율
			관광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
		주민인력 규모	바다해설사 수
			지역주민 경제활동 인구수
	관광행정	관광정책 인력/예산	해양관광 관련 공무원 비율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관광정책	해양관광 담당 전문 부서 유무
			해양관광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

자료: 최일선·홍장원·이정아(2019). pp. 69~72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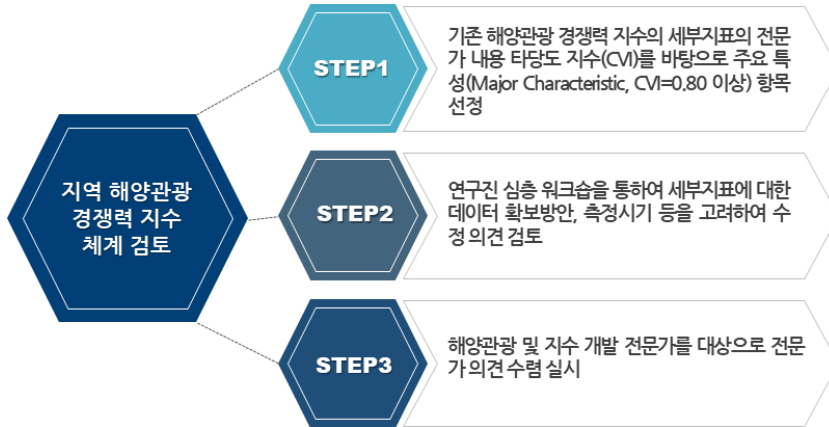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선정 및 자료수집 체계

제1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의 선정체계

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타당성 검토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표를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지표의 적용을 위하여 단계별 검토를 실시하였다. 우선 기존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44개 지표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화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기존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세부지표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CVI, Content Validity Index)를 바탕으로 주요 특성(Major Characteristic, CVI=0.80 이상)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CVI=0.80 이상인 문항은 주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0.50을 초과하면서 0.79 이하인 문항은 비주요 특성(Minor Characteristic)을 갖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⁹⁾

〈그림 2-1〉 단계별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타당성 검토



자료: 저자 작성

2단계에서는 연구진 심층워크숍을 통하여 세부지표에 대한 자료 구득 가능성, 측정 시기, 자료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수정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2단계에 거쳐 수정된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관광, 해양관광 및 지수 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한다.

1) 1단계: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 검토¹⁰⁾

1단계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 검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를 이용하여 지표 구성의 단순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CVI=0.80 이상인 문항은 주요 특성을 갖고 있는 지표로 0.50을 초과하면서 0.79 이하인 문항은 비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로 내용타당도 지수가 0.80 미만

9) Fehring(1987), p. 4.

10) 1단계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 검토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해양관광 전문가 25명으로 연구원 14명, 대학교수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19년 6월 24일~7월 1일로 약 1주일간 실시하였음.

인 지표를 1차적으로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 공급지수에서는 박물관 수, 관광지 지정 개소 수, 관광단지 지정 개소 수 등을 포함하여 8개의 지표가 삭제되었다. 다음으로 해양관광 수요지수에서는 낚시어선 이용객 수 지표가 삭제되었고,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에서는 지역주민 경제활동 인구수와 해양관광 관련 공무원 비율 지표가 삭제되었다.

〈표 2-1〉 1단계 전문가 내용타당도 지수 검토

	세부지표	내용타당도 지수 (CVI)	1차 삭제여부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수욕장 수	0.86	-
	해안둘레길(해파랑길, 해안누리길 등) 길이	0.81	-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해양생물, 습지, 해양경관보호구역) 수	0.85	-
	지역축제 수	0.83	-
	문화재 수	0.80	-
	어촌체험마을 수	0.83	-
	개방 등대 수	0.83	-
	박물관(전시/관람관) 수	0.77	삭제
	관광지 지정 개소 수	0.74	삭제
	관광단지 지정 개소 수	0.63	삭제
	관광숙박업 객실 수	0.87	-
	어촌민박 수	0.83	-
	대중교통 접근성(광역버스, 열차, 항공, 선박 등 운항횟수)	0.89	-
	시티투어버스 운영 유무	0.78	삭제
	낚시어선 수	0.77	삭제
	수상레저사업장 수	0.82	-
	수중레저사업장 수	0.80	-
	마리나 계류 선석 수	0.81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수	0.74	삭제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0.83	-
	해양경찰 수	0.74	삭제
	관광안내소 수	0.76	삭제

세부지표		내용타당도 지수 (CVI)	1차 삭제여부
해양관광 수요지수	주요지점 관광객 수	0.88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0.83	-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0.84	-
	해수욕장 이용객 수	0.92	-
	낚시어선 이용객 수	0.78	삭제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0.83	-
	해양관광 만족도	0.91	-
	재방문 의향	0.90	-
	타인추천의사	0.91	-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0.91	-
	주요 해양관광시설(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휴양단지, 해양레저체험교실) 매출액	0.90	-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수	0.83	-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매출액	0.83	-
	주요지점 관광객 수 성수기 비율(계절성)	0.84	-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지역주민 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비율	0.83	-
	관광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	0.80	-
	바다해설사 수	0.83	-
	지역주민 경제활동 인구수	0.70	삭제
	해양관광 관련 공무원 비율	0.75	삭제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0.84	-
	해양관광 담당 전문 부서 유무	0.86	-
	해양관광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	0.86	-

자료: 저자 작성

2) 2단계: 연구진 심층워크숍

1단계 지표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심층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연구진 심층워크숍에서는 OECD가 제안한 지수 개발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표의 6대 점검기준을 바탕으로 지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OECD는 지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하여 IMF, European Statistical System의 기준을 참고하여 데이터의 적절성, 명확성, 적시성, 접근가능성, 해설가능성, 일관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¹¹⁾

〈표 2-2〉 OECD의 기초 데이터 품질 결정 기준

구분	내용
적절성 (Relevance)	필요한 주제의 범위와 적절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명확성 (Accuracy)	데이터가 나타내고자 하는 특성이나 수량을 정확하게 설명하는지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추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의 정도
적시성 (Timeliness)	데이터의 생성시점과 이용자가 사용할 시점과의 차이로 필요한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의 정도
접근가능성 (Accessibility)	이용자가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잘 찾을 수 있는지의 정도
해석가능성 (Interpretability)	이용자가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해석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반영
일관성 (Coherence)	서로 다른 방식의 데이터들이 안정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반영

자료: OECD(2005), pp. 46-48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각각의 지표를 점검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1) OECD(2005), pp. 46-48.

〈표 2-3〉 OECD의 기초 데이터 품질 결정 기준 부합 평가

구분	지표	적절성	명확성	적시성	접근 가능성	해석 가능성	일관성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수욕장 수	◎	◎	◎	◎	◎	◎
	해안둘레길(해파랑길, 해안누리길 등) 길이	◎	◎	◎	◎	○	◎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해양생물, 습지, 해양경관보호구역) 수	△	×	△	◎	◎	○
	지역축제 수	◎	◎	◎	◎	◎	◎
	문화재 수	◎	◎	◎	◎	○	◎
	어촌체험마을 수	◎	◎	○	○	◎	◎
	개방 등대 수	△	×	○	○	○	○
	관광숙박업 객실 수	◎	◎	◎	◎	◎	◎
	어촌민박 수	◎	○	△	○	○	○
	대중교통 접근성	◎	○	△	△	△	○
	수상레저사업장 수	◎	◎	◎	◎	◎	◎
	수중레저사업장 수	◎	◎	◎	△	◎	◎
	마리나 계류 선석 수	◎	◎	◎	△	◎	◎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	○	◎	◎	○	○
해양관광 수요지수	주요지점 관광객 수	◎	◎	◎	◎	○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	◎	△	△	◎	◎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	◎	◎	△	◎	◎
	해수욕장 이용객 수	◎	◎	◎	△	◎	◎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	◎	◎	◎	○	○
	해양관광 만족도	◎	◎	◎	△	△	○
	재방문 의향	◎	◎	◎	△	△	○
	타인추천의사	◎	◎	◎	△	△	○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	◎	◎	△	△	○
	주요해양관광시설(어촌체험 마을, 어촌관광휴양단지, 해양레저체험교실) 매출액	○	△	◎	×	○	○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수	◎	◎	△	△	△	○

구분	지표	적절성	명확성	적시성	접근 가능성	해석 가능성	일관성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매출액	◎	◎	△	△	△	○
	주요지점 관광객 수 성수기 비율(계절성)	◎	○	○	◎	△	△
	지역주민 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비율	◎	△	△	△	○	○
	관광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	◎	○	○	○	○	○
	바다해설사 수	◎	◎	△	△	◎	○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	◎	◎	△	○	○
	해양관광 담당 전문 부서 유무	○	◎	△	◎	○	○
	해양관광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	○	○	△	△	△	○

주: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지표의 개념 및 내용에는 포함되나 해양관광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지표 명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표의 명칭을 수정하여 표면타당성을 제고하였다. OECD 기초 데이터 품질 결정 기준 부합 평가를 근거로 실시한 2단계 연구진 심층워크숍의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의 검토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4〉 2단계 연구진 심층워크숍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토 의견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수욕장 수	지정 해수욕장 수	-
	해안둘레길(해파랑길, 해안누리길 등) 길이	해안둘레길(해파랑길, 해안누리길 등) 길이	-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 해양생물, 습지, 해양경관보호구역) 수	자연해안선 비중	• 해양보호구역은 주로 서/남해안에 분포하며, 전남을 제외하면 1~3개로 비중과 수로 지표화해도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토 의견
	지역축제 수	해양축제 비중	• 지역 해양축제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수 대비하여 해양축제 수의 비중으로 평가
	문화재 수	해양 관련 문화재 수	-
	어촌체험마을 수	어촌체험마을 수	-
	개방 등대 수	삭제	• 숙박 또는 관람용 지정 개방 등대는 각 지역별 1개 또는 2개 내외로 변별력 낮음
	관광숙박업 객실 수	관광숙박업 객실 수	-
	어촌민박 수	어촌민박 수	-
	대중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
	수상레저사업장 수	수상레저사업장 수	-
	수중레저사업장 수	수중레저사업장 수	-
	마리나 계류 선석 수	마리나 계류 선석 수	-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
해양관광 수요지수	주요지점 관광객 수	해양관광 주요지점 관광객 수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
	해수욕장 이용객 수	해수욕장 이용객 수	-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
	해양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만족도	-
	재방문 의향	해양관광 재방문 의향	-
	타인추천의사	해양관광 타인추천의사	-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
	주요 해양관광시설(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휴양단지, 해양레저체험교실) 매출액	삭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내 사업체로 포함되어 집계되고 있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토 의견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매출액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매출액	• 해양수산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해양수산물관광업 사업체 매출액으로 평가
	연안지역 관광사업체 수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 해양수산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해양수산물관광업 사업체로 평가 •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수는 해양레저스포츠시설 수용력과 중복되고 있어 종사자 수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
	주요지점 관광객 수 성수기 비율(계절성)	해양관광 주요지점 관광객 성수기 비율	-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지역주민 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비율	지역주민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 연간 이수자 수가 지역별로 최대 20명 내외로 검토되어 이수자 수로 변경
	관광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	•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지표의 명칭 수정 필요
	바다해설사 수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 향후 갯벌생태해설사(「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 1. 15.) 등의 포함이 필요하므로 수정 필요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	
	해양관광 담당 전문 부서 유무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
	해양관광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	해양관광 관련 조례 유무	• 해양관광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 해양관광 관련 연구 수	• 연안지역 시·도 해양관광 관련 조례 유무로 변경 • 연안지역 시·도 해양관광 관련 연구 수 추가

자료: 저자 작성

3) 3단계: 전문가 의견수렴

2단계 지표 평가기준 및 연구진 심층워크숍을 통하여 수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내 지역관광 및 해양관광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층인터뷰와 서면자문 등을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전문가 조사 설계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5〉 전문가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국내 지역관광 및 해양관광 전문가 10명 • 국내 관광학과 교수 3명 • 국책연구기관 관광 분야 박사급 연구원 3명 • 지역 시·도 관광 분야 박사급 연구원 4명으로 구성
조사방법	심층인터뷰, 서면자문 등 진행
조사기간	2020년 8월 3일~8월 17일

자료: 저자 작성

3단계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지표의 표면타당성과 내용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해양관광 주요지점 관광객 수’와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매출액’ 등에 대한 부분은 평균으로 산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는데, 이는 ‘해양관광 주요지점 관광객 수’의 경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주요지점 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평균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매출액’의 경우 지자체별 세부 매출액 결과 도출이 민감한 부분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사업체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매출액이 높을 것을 감안하여 평균 매출액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밖에 표면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명칭 수정의견이 반영

되었으며,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정책역량 지수의 지표 세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6〉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토 의견
해양관광 공급지수	지정 해수욕장 수	-	-
	해안둘레길(해파랑길, 해안누리길 등) 길이	-	-
	자연해안선 비중	-	-
	해양축제 비중	-	-
	해양 관련 문화재 수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	• 지표 표면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 건수로 변경
	어촌체험마을 수	-	-
	관광숙박업 객실 수	-	-
	어촌민박 수	-	-
	대중교통 접근성		-
	수상레저사업장 수	-	-
	수중레저사업장 수	-	-
해양관광 수요지수	마리나 계류 선석 수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	• 선석 수 표현보다는 수용 능력 표현이 적합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	-
	해양관광 주요지점 관광객 수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	• 주요지점 관광객 수는 지 자체 공무원의 적극성이 많이 반영되는바, 1개소 당 평균 관광객 수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	-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	-
	해수욕장 이용객 수	-	-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	-
	해양관광 만족도	-	-
	해양관광 재방문 의향	-	-
	해양관광 타인추천의사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검토 의견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	-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매출액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 지자체별 추정된 전체 사업 체 매출액은 민감한 사안으 로 1개 사업체당 평균 매출 액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합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	-
	해양관광 주요지점 관광객 성수기 비율	해양관광 주요지점 계절성	• 해양관광 특성 중 하나인 계 절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지역주민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	-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간	• 단순 프로그램 수를 측정하 기보다는 프로그램 시간으 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	-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해양관광 부문 예산	•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중 예산은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비율과 예산액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적합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해양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	• 대부분 광역단위 지자체 는 해양관광 전담 부서가 존재하므로 전담 공무원 수와 함께 측정하는 것이 적합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해양관광 관련 조례 유무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 수	• 이에 따라 기존 해양관광 관련 공무원 비율을 해양 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 로 변경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 해양관광 관련 연구 수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 관광 관련 연구 수	• 시도연구원의 해양관광 연구 는 대부분 없는 실정으로 관 광 연구 수로 보는 것이 적합

자료: 저자 작성

2.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의 선정

1단계 지표 구성의 단순화 작업을 위하여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2단계 OECD 지표 점검기준 및 연구진 심층워크숍, 마지막으로 3단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된 최종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는 3개 대분류, 6개 중분류, 14개 소분류, 34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7〉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해양 관광 공급 지수	해양관광 매력물	자연자원	지정 해수욕장 수
			해안둘레길(해파랑길, 해안누리길 등) 길이
			자연해안선 비중
		문화자원	해양축제 비중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
			어촌체험마을 수
	해양관광 수용력	숙박 및 교통 시설	관광숙박업 객실 수
			어촌민박 수
			대중교통 접근성
		해양레저 스포츠 시설	수상레저사업장 수
			수중레저사업장 수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
		해양관광 안전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해양 관광 수요 지수	해양관광 평가	관광객 수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해수욕장 이용객 수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재방문 의향
			해양관광 타인추천의사
		관광소비액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해양 관광 정책 역량 지수	지역경제 효과	관광소득 창출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관광기간	해양관광 주요지점 계절성
	인력양성	주민 역량강화	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관광 관련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
		주민인력 규모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관광행정	관광정책 인력/예산	해양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관광정책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 수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 관광 관련 연구 수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의 자료수집 체계

수정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지표의 개념과 측정방법, 자료 출처 및 자료 시점 등 자료수집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지수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가급적 정부에서 발간된 정부승인통계, 공식 보고서, 행정정보자료 등의 통계자료와 정부문서들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지표들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였다.

1. 해양관광 공급 부문

1) 해양관광 매력물

(1) 자연자원

자연자원은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연적인 대상으로 지표는 지정 해수욕장 수, 해안둘레길 길이, 자연해안선 비중 이다. 먼저 지정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해수욕장은 해양관광의 대표적인 관광 매력물로 해양관광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8〉 지정 해수욕장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등록 해수욕장 수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정보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해안둘레길 지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안둘레길인 해파랑길과 해안누리길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관광에서 길이 가지는 중요성이 증가하며 지자체에서는 해안둘레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시설물을 구축하여 해양관광 매력물로 작용하고 있다. 해파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연안 지자체가 선정하고 있으며, 해안누리길은 해양수산부에서 주변 경관이 우수하거나 해양문화와 역사 등 의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의 행정자료로 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의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2-9〉 해안둘레길 길이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가 선정 및 조성하는 해파랑길과 해양수산부가 주변 경관이 우수하고 해양문화와 역사, 해양산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해안누리길 등의 지자체별 전체 길이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파랑길 길이+해안누리길 길이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해파랑길 • 연안포털 해안누리길 현황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해안선은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안의 특색 있는 자연해안선은 관광 매력물로 작용하고 있으나, 매립·도로건설 등으로 인공해안선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연안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해안 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연안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해안선조사 측정 자료를 DB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의 전체 해안선 길이 중 자연해안선 비중을 측정하여 자연자원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2-10〉 자연해안선 비중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연안지역의 전체 해안선 길이 중 자연해안선 비중
측정범위 또는 방법	자연 해안선 길이/전체 해안선 길이*100%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2) 문화자원

문화자원은 유적, 유물, 예술 등 문화관광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관광 매력물로 해양관광 문화자원은 해양축제 비중,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 어촌체험마을 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해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하는 문화관광축제 중 축제의 공간 또는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해양을 소재로 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문화관광축제 중 해양축제의 비중을 측정하였다.

〈표 2-11〉 해양축제 비중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하는 문화관광축제 중 축제의 공간이 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해양을 소재로 하는 것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 축제 수/전체 문화관광축제 수*100%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유·무형의 해양 관련 문화재로 정의하였으며,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통계자료에서 각 연안지역별로 해양 또는 바다를 키워드로 문화재 수를 검색하여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표 2-12〉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유무형의 해양 관련 문화재로 국가 지정, 시도지정, 등록 문화재 등을 포함함(해양 관련: 소재가 해양이거나 공간이 해양)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 관련 문화재
자료출처	문화재청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어촌체험마을은 어가인구 감소 및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어촌의 새로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여가 공간 마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부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마을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어촌체험마을 수에 대한 측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2-13〉 어촌체험마을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어촌관광 특성화 마을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명칭임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수
자료출처	한국어촌어항공단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관광 수용력

(1) 숙박 및 교통시설

해양관광 수용력 중 숙박 및 교통시설은 관광객이 연안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해당지역 내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 체계로 관광숙박업 객실 수, 어촌민박 수, 대중교통 접근성이다. 먼저 관광숙박업 객실 수 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중 연안지역에 위치한 관광숙박업의 객실 수로 개념화하였다. 측정 범위는 한국호텔업협회에서 제공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이다. 구체적인 지표의 측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4〉 관광숙박업 객실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중 해양인접/연안지역 지자체 내 관광숙박업의 객실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호텔업 등의 호텔업과 휴양콘도업
자료출처	한국호텔업협회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어촌민박 수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운영되는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연안지역에 위치한 민박을 어촌민박 수로 개념화하였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양관광에서 펜션을 포함하고 있는 어촌민박은 관광수용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는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지표의 한계로는 최신 자료가 실시간 업데이트 되고 있어 자료시점이 수집 시점과 동일하다. 현재는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표 2-15〉 어촌민박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사업 내 연안지역에 있는 어촌민박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농어촌민박사업 내 연안지역 민박업체
자료출처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자료시점	2020년 8월 기준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은 연안지역 내 위치한 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까지 도달하기 위한 평균 소요시간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교통접근성지표

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교통접근성지표는 대중교통 시설까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와 대중교통 및 도보로 가는 평균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지표 평균의 합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다만 본 지표를 활용할 경우, 현재 확보 가능한 최신 데이터가 2017년 자료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표 2-16〉 대중교통 접근성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연안지역 내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 접근성으로 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까지 도달하기 위한 평균 소요시간을 나타냄
측정범위 또는 방법	승용차 평균 + 대중교통·도보 평균의 평균으로 측정
자료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접근성지표
자료시점	2017년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해양관광에서 중요한 매력물 중 하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서핑, 수중레저, 요트·보트 등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이 구축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지표는 수상레저사업장 수, 수중레저사업장 수,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으로 구성된다. 먼저 수상레저사업장은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0조 제3항 관련))로 관광객이 서핑,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딩기, 카누·카약 등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해수면에 위치한 수상레저사업장으로 해양경찰청에 등록되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다.

〈표 2-17〉 수상레저사업장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연안지역 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수상레저사업장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
자료출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수중레저는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는 것’이다. 수중레저사업장은 수중레저장비 대여업, 교육업, 운송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로 연안지역 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및 등록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8〉 수중레저사업장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연안지역 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수중레저사업장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 수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수중레저업 등록대장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마리나항만은 요트를 포함한 레저선박의 계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연안지역 해양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은 국내 운영 중인 37개소 마리나항만 내 마리나 계류 선석 수로 개념화하였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은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되고 있다.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은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통하여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표 2-19〉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하여 설치한 마리나항만 내 마리나 계류 선석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연안지역 마리나항만 내 계류 선석 수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3) 해양관광 안전

관광에서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해양관광은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격변하는 해양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여 관광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해양관광 안전은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로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는 해양관광 관련 인명피해 건수로 측정할 수 있다.

〈표 2-20〉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는 해양관광 관련 인명피해(사망/구조) 건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연안지역 내 해양관광 관련 인명피해(사망/구조) 건수
자료출처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관광 수요 부문

1) 해양관광 평가

(1) 관광객 수

관광객 수는 해양관광의 양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체계이다. 관광객 수 지표 체계는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해수욕장 이용객 수, 해양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로 구성된다. 이는 해양관광, 해양레저, 해양문화 분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먼저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는 연안지역 주요 지점 입장객 통계를 통한 평균 관광객으로 측정한다. 데이터는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서 수집 가능하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1〉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연안지역 주요 지점 입장객 통계를 통한 평균 관광객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연안지역 주요 지점 입장객 수/지점 수
자료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연안지역 지자체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이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카누, 카약, 요트 등의 체험교육과 정규 학교교육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연안지역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또는 내부 자료로 수집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표 2-22〉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연안지역 지자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수산부 지원 지자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는 해양문화관광 분야에서 양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지표는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로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나 내부 자료로 수집가능하다.

〈표 2-23〉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현재까지 해양관광의 양적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이다. 한편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해수욕장 이용객 수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수욕장 이용이 연중 허용됨에 따라 향후 지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지

표는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로 수집가능하다.

〈표 2-24〉 해수욕장 이용객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수산부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 수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해양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는 해양문화 분야에서 양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지표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연안지역의 해양 관련 박물관 또는 전시관 참여자 수로 알 수 있다. 다만 자료의 접근가능성과 일관성, 연안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별시설법에 따라 운영되는 박물관을 제외하고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정보 수집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2-25〉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연안지역 해양 박물관 및 전시관 참여자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내 해양 관련 문화 및 전시시설 이용객
자료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2) 관광만족도

관광만족도는 해양관광의 질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관광만족도의 지표 체계는 해양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재방

문 의향, 해양관광 타인추천의사로 구성하였다. 해양관광 만족도는 해양관광 경험 집단을 대상으로 숙박, 식음료, 쇼핑, 체험 프로그램, 편의시설, 혼잡도 등의 만족도를 측정한 후 종합만족도로 산정하였다. 해당 지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자체조사¹²⁾로 수집 가능하며, 향후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산출의 지속성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2-26〉 해양관광 만족도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관광객의 연안지역 해양관광지 숙박, 식음료, 쇼핑, 체험프로그램, 편의시설, 혼잡도, 치안 등의 만족도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관광 경험집단의 개별 만족도 속성에 대한 평균 값(5점 척도)
자료출처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 재방문 의향은 관광객의 기대가 충족되어 만족하게 되면 재방문 의사로 이어지는 결과변수로 검증되고 있다. 이 지표 역시 관광객 만족도와 함께 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해양관광 만족도와 함께 KMI 자체조사로 수집가능하다.

12) KMI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2019년 기준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 자료임

〈KMI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2019)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69세 이하 성인 남녀
표본수	2,255명(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Quota Sampling))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조사기간	2020년 6월 23일(화) ~ 2020년 7월 14일(화)
조사범위	2019년 기준

〈표 2-27〉 해양관광 재방문 의향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관광객 재방문 의향 정도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관광 경험집단의 재방문 의향(5점 척도)
자료출처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타인추천의사는 해양관광 경험집단이 해당 방문지를 타인에게 추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역시 해양관광의 질적 성과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지표의 수집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8〉 해양관광 타인추천의사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관광객 타인추천의사 정도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관광 경험집단의 타인추천의사(5점 척도)
자료출처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3) 관광 소비액

해양관광을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 중 하나는 관광 소비액이다. 관광 소비액은 해양관광객이 1인당 1회 여행 시 지불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며, 2019년 기준으로는 KMI 자체조사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표 2-29〉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위한 지불한 금액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관광객 1인당 평균1회 여행 시 지불한 금액
자료출처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2) 지역경제효과

(1) 관광소득창출

해양관광을 통한 연안지역의 경제적 효과의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는 해양관광을 통하여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해양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소득창출은 해양관광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체계로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과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지표로 측정 가능하다. 먼저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은 해양 인접/연안지역 기초지자체 내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기준 운영 중인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으로 해당 지표의 한계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18년이 가장 최근 자료이다.

〈표 2-30〉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인접/연안지역 기초지자체 내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기준 운영 중인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기준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자료출처	2018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자료시점	2018년

자료: 저자 작성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는 해양수산업 통계조사를 통하여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측정범위는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로 한정하며 구체적인 자료수집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31〉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인접/연안지역 기초지자체 내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기준 운영 중인 해양레저관광 종사자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기준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종사자
자료출처	2018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자료시점	2018년

자료: 저자 작성

(2) 관광기간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계절성이다. 해양관광은 해양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후와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양관광의 계절성으로 인한 성수기·비수기의 불규칙한 경제적 효과와 바가지요금, 교통체증, 지역주민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사계절 해양관광 육성, 휴가 분산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관광기간 지표는 해양관광 주요지점 계절성으로 측정하며, 이는 주요지점 입장객 통계를 통하여 관광객 수의 성수기 비율로 개념화하였다.

〈표 2-32〉 해양관광 주요지점 계절성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관광 주요지점 입장객 통계를 통한 관광객 수의 성수기 비율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관광 주요지점 여름철(6월~9월) 성수기 입장객 수/해양관광 주요지점 전체 입장객 수*100%
자료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3. 해양관광 정책역량 부문

1) 인력양성

(1) 주민역량 강화

해양관광의 질적 제고와 지역 주도의 관광 운영을 위해서는 주체인 지역주민과 지역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주민역량강화 지표 체계는 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와 관광 관련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는 지역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마을주민 및 관계자의 해양관광 관련 실무능력 향상 교육 참여자 수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어촌체험마을 실무교육 참여자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방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33〉 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지역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마을주민 및 관계자 해양관광 교육 참여자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실시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실무교육 참여자
자료출처	한국어촌어항공단 내부 자료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관광 관련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연안지역 공무원의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간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다. 이에 따라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간을 측정하여 관광과 관련한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2-34〉 관광 관련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지자체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간
측정범위 또는 방법	연안지역의 공무원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간
자료출처	지방공무원교육원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2) 주민인력규모

주민인력규모는 국가가 지정한 바다해설사 및 갯벌생태해설사 등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로 측정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바다해설사가 양성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2019년 제정되면서 2020년 이후 갯벌생태해설사가 양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9년을 기준으로는 바다해설사 수로 측정범위를 한정하고 향후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를 추가하고자 한다.

〈표 2-35〉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국가가 지정한 바다해설사 및 갯벌생태해설사 등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측정범위 또는 방법	연안지역의 해양 관련 해설사
자료출처	어촌어항공단 내부 자료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2) 관광행정

(1)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은 지자체 해양관광정책의 기본 바탕인 인력 규모와 재정적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체계로 해양관광 담당 전담 부서 공무원 수,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로 구성된다. 먼저 해양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는 해양관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의 규모를 측정하여 지자체의 정책 전문인력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해당 지표의 한계점으로 자료수집 시점에 맞추어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표 2-36〉 해양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당 지자체의 해양관광 공무원의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연안지역 지자체의 해양관광 공무원
자료출처	각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시점	2020년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해양관광 부문 예산은 지자체가 해양관광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재정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 예산 중 해양관광 분야를 추출하여 측정할 수 있다. KMI는 자체적으로 매년 지자체 해양수산 예산 및 인력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표 2-37〉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당 지자체의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당 지자체의 해양관광 부문 예산
자료출처	KMI 내부 자료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지자체의 전체 예산의 범위는 상이하며, 정책역량 중 가장 중요한 지표 체계 중 하나인 해양관광 부문 예산에 있어 예산액과 함께 전체 예산액에서 해양관광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을 측정하여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력과 의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표 2-38〉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당 지자체의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측정범위 또는 방법	해양관광 부문 예산/전체 예산*100%
자료출처	KMI 내부 자료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2) 관광정책

관광정책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 체계이다. 이는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해양관광 자치법규 수, 연안지역 시·도연구원에서 수행한 관광 관련 연구 수로 구성된다. 먼저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는 해양관광과 관련한 지자체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해양관광 전담 부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표의 한계점으로 자료수집 시점에 맞추어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향후 지자체 자체조사 등을 통하여 현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9〉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해양관광 전문부서 유무
측정범위 또는 방법	지자체 해양관광 전문부서
자료출처	각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시점	2020년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 자치법규는 지방의회를 통하여 제정되며 해양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이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40〉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자료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연안지역 시·도연구원 관광 관련 연구 수는 해당년도 지자체의 관광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의지와 연결된다. 이에 따라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의 해당년도 관광 관련 연구를 수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2-41〉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 관광 관련 연구 수 측정방법

구분	내용
지표의 개념	시·도 관광 관련 연구 수
측정범위 또는 방법	시·도연구원의 해당년도 관광 관련 연구
자료출처	지역 시·도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시점	2019년

자료: 저자 작성

제 3 장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분석체계

제1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분석체계의 개요

본 장에서는 앞서 3단계에 걸쳐 도출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를 국내 연안에 위치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1개 연안 광역시·도 현황에 대한 각 분야별 지표를 시범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안지역의 해양관광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비교를 통해 각 연안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관광자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해양관광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지역 스스로 해당 지역의 해양관광 부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 분석 범위는 첫째, 공간적으로 국내 연안에 위치한 11개 광역시·도이며, 세부적으로는 부산광역시, 인

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이다. 둘째, 기본적으로 각 지표의 기준년도는 2019년으로 설정하지만, 특정 지표는 조사 시점의 한계로 구득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한다.

제2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분석 결과

1. 해양관광 공급 부문

1) 해양관광 매력물

(1) 자연자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9년 기준 전국 지정 해수욕장 수는 총 272개이며, 11개 연안지역 광역시·도별로 평균 24.7개가 분포하고 있다.¹³⁾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에 93개 지정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어 가장 많은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54개, 충청남도가 33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에는 지정 해수욕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울산광역시에 2개, 부산광역시에는 7개 해수욕장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지정 해수욕장 수

단위: 개

순위	광역지자체	지표값
1	강원도	93
2	전라남도	54
3	충청남도	33

13) 해양수산부, 2019년 해수욕장 운영 정보,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5&boardKey=9&articleKey=26350>(검색일: 2020. 8. 24.)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פות값
4	경상북도	27
5	경상남도	26
6	인천광역시	11
7	제주도	11
8	전라북도	8
9	부산광역시	7
10	울산광역시	2
11	경기도	0
합계		272
평균		24.7

자료: 해양수산부, 2019년 해수욕장 운영 정보,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5&boardKey=9&articleKey=26350>

(검색일: 2020. 8. 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해안둘레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해파랑길과 해양수산부 소관의 해안누리길의 합으로 추산했다.¹⁴⁾ 전국 해안둘레길은 총 1,238.3km에 이르며, 전국 연안 광역지자체 평균 112.6km의 해안둘레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강원도가 355.3km로 가장 긴 해안둘레길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322.8km, 전라남도가 127.8km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남도는 해안둘레길 자원이 부재하며, 경기도(20.7km)와 전라북도(25.7km) 등도 상대적으로 짧은 해안둘레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4) 문화체육관광부, 해파랑길,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sportstour/sportstour01.jsp; 연안포털, 해안누리길 현황, <http://coast.mof.go.kr/coastScene/coastWay.do>(검색일: 2020. 8. 24.)

〈표 3-2〉 해안둘레길 길이

단위: km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점값
1	강원도	355.3
2	경상북도	322.8
3	전라남도	127.8
4	울산광역시	124.2
5	부산광역시	96.2
6	제주도	94.3
7	인천광역시	36.5
8	경상남도	34.8
9	전라북도	25.7
10	경기도	20.7
11	충청남도	0
합계		1,238.3
평균		112.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해파랑길.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sportstour/sportstour01.jsp; 연안포털, 해안누리길 현황, <http://coast.mof.go.kr/coastScene/coastWay.do>(검색일: 2020. 8. 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전체 해안선 중 자연해안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연안지역 광역시·도 평균 58.2% 수준이다. 11개 연안 광역자치체 중 강원도가 71.3%로 자연해안선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라남도가 70.9%, 인천광역시가 6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광역시(31.2%)와 경기도(38.8%)는 자연해안선에 비해 인공해안선의 비중이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았다. 또한 부산광역시(54.8%)와 경상남도(56.8%)도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해 상위 연안 광역자치체에 비해 인공해안선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자연해안선 비중

단위: %

순위	광역지자체	지점값
1	강원도	71.3
2	전라남도	70.9
3	인천광역시	65.3
4	제주도	65.1
5	전라북도	62.6
6	충청남도	61.9
7	경상북도	61.8
8	경상남도	56.8
9	부산광역시	54.8
10	경기도	38.8
11	울산광역시	31.2
평균		58.2

자료: 저자 작성

(2) 문화자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하는 지역축제 중 해양을 주요 공간으로 하거나 주요 소재로 다루는 축제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7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가 57.1%, 충청남도가 48.3% 순으로 해양축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기도의 전체 지역축제 중 해양축제의 비중은 15.8%로 전국 연안 11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라북도(21.4%)와 울산광역시(23.1%)도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https://www.mcst.go.kr/kor/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검색일: 2020. 8. 24.)

〈표 3-4〉 해양축제 비중

단위: %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פות값
1	경상북도	75.0
2	부산광역시	57.1
3	충청남도	48.3
4	제주도	47.5
5	경상남도	44.4
6	강원도	42.3
7	전라남도	36.7
8	인천광역시	33.3
9	울산광역시	23.1
10	전라북도	21.4
11	경기도	15.8
평균		40.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https://www.mcst.go.kr/kor/s_culture/festival/festivalList.jsp(검색일: 2020. 8. 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유·무형의 해양 관련 문화재 수는 총 174건으로, 연안지역 광역자치체별로 평균 15.8개의 해양 관련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연안 광역시·도별로는 전라남도에 46개의 해양 관련 문화재가 분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제주도와 부산광역시에 각 24개, 경상남도에 21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5개), 충청남도(6개), 울산광역시(7개) 등의 지역에는 비교적 적은 수의 해양 관련 지정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1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 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RegionPsView.do?pageNo=1_1_3_1(검색일: 2020. 8. 24.)

〈표 3-5〉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

단위: 건

순위	광역지자체	지표값
1	전라남도	46
2	제주도	24
3	부산광역시	24
4	경상남도	21
5	인천광역시	14
6	전라북도	10
7	경상북도	9
8	강원도	8
9	울산광역시	7
10	충청남도	6
11	경기도	5
합계		174
평균		15.8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 검색,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RegionPsView.do?pageNo=1_1_3_1(검색일:
 2020. 8. 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연안지역에 지정된 어촌체험마을은 2019년 기준 총 103개이며, 연안 광역시·도별로는 평균 9.4개가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⁷⁾ 전라남도에는 24개의 어촌체험마을이 위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촌체험마을이 운영 중이며, 다음으로 경상남도 23개, 충청남도 12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광역시(2개)와 부산광역시(3개), 인천광역시(4개) 등은 비교적 적은 수의 어촌체험마을이 지정·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7) 한국어촌여항공단 내부 자료(어촌체험(휴양)마을 수)

〈표 3-6〉 어촌체험마을 수

단위: 개

순위	광역시·자치	지표값
1	전라남도	24
2	경상남도	23
3	충청남도	12
4	강원도	10
5	경상북도	7
6	제주도	6
7	전라북도	6
8	경기도	6
9	인천광역시	4
10	부산광역시	3
11	울산광역시	2
합계		103
평균		9.4

자료: 한국어촌여행재단 내부 자료(어촌체험(휴양)마을 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해양관광 수용력

(1) 숙박 및 교통시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전국 관광숙박업체 중 연안 11개 광역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체 객실 수는 2019년 기준 총 8만 4,747실로 광역시·도별로는 평균 7,704.3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가장 많은 관광숙박업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로 2만 3,871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지역 전체 객실 중 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강원도가 1만 729실, 부산광역시가 1만 96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의 관광숙박업 객실 수는 1,418실로 연안지역 전체 객실 중 1.7%에 불과하며, 연안 광

18) 한국호텔업협회, 관광통계(관광숙박업 등록현황 요약표), http://www.hotelskorea.or.kr/datacenter/index_1.php?code=2(검색일: 2020. 8. 24.)

역지사체 평균 객실 수의 18.4%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광역시(2,507실), 충청남도(2,716실), 경기도(4,015실), 경상북도(5,995실), 경상남도(6,367실), 전라남도(7,047실) 등 7개 연안 광역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숙박업 객실 수가 지역별 평균 객실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관광숙박업 객실 수

단위: 실

순위	광역지자체	지פות값
1	제주도	23,871
2	강원도	10,729
3	부산광역시	10,096
4	인천광역시	9,986
5	전라남도	7,047
6	경상남도	6,367
7	경상북도	5,995
8	경기도	4,015
9	충청남도	2,716
10	울산광역시	2,507
11	전라북도	1,418
합계		84,747
평균		7,704.3

자료: 한국호텔업협회, 관광통계(관광숙박업 등록현황 요약표),

http://www.hotelskorea.or.kr/datacenter/index_1.php?code=2(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업체 중 연안 광역시·도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수는 2020년 8월 기준 총 7,820개로 11개 연안 광역지자체마다 평균 710.9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제주도에 4,263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전체 업체 중 절반 이상인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강원도에

19)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국민박리스트, <http://한국민박협회.com/shop/>(검색일: 2020. 8. 24.)

1,051개, 충청남도에 535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한편 부산광역시에
는 전체 어촌민박 업체 중 0.3%인 22개 어촌민박 업체가 운영 중으
로 전국 연안 광역지자체 중 어촌민박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아울러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9개 광역지자체의 어촌민박
수는 지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어촌민박 수

단위: 개

순위	광역지자체	지뫓값
1	제주도	4,263
2	강원도	1,051
3	충청남도	535
4	경상남도	515
5	인천광역시	464
6	전라남도	387
7	경상북도	350
8	전라북도	111
9	경기도	85
10	울산광역시	37
11	부산광역시	22
합계		7,820
평균		710.9

자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전국민박리스트, <http://한국민박협회.com/shop/>(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연안 광역지자체 내에 위치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주요 대중교통 시설까지 승용차를 이용할 때와 대중교통 및 도보로
이동할 때 각각의 평균 소요 시간을 측정한 결과,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울산광역시가 19.99분으로 가장 접근성이 높았으며, 대중교통
과 도보로 이동할 경우 제주도가 28.69분으로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표 3-9〉 대중교통 접근성(승용차)

단위: 분

순위	광역지자체	지פות값
1	울산광역시	19.99
2	제주도	21.24
3	부산광역시	28.01
4	전라북도	30.78
5	경상남도	32.21
6	전라남도	32.69
7	경상북도	34.04
8	강원도	34.19
9	인천광역시	35.12
10	경기도	38.80
11	충청남도	41.21
평균		31.7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교통접근성지표,

<https://www.ktdb.go.kr/www/selectTransportTreeView.do?key=32&idx=25898>(검색일: 2020. 8. 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10〉 대중교통 접근성(대중교통과 도보)

단위: 분

순위	광역지자체	지פות값
1	제주도	28.69
2	부산광역시	29.40
3	강원도	30.37
4	충청남도	32.03
5	울산광역시	34.13
6	인천광역시	49.01
7	경기도	55.88
8	경상남도	58.70
9	전라북도	65.72
10	경상북도	67.04

20)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교통접근성지표, <https://www.ktdb.go.kr/www/selectTransportTreeView.do?key=32&idx=25898>(검색일: 2020. 8. 24.)

순위	광역지자체	지푼값
11	전라남도	71.62
평균		47.5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교통접근성지표,
<https://www.ktdb.go.kr/www/selectTrnsportTreeView.do?key=32&idx=25898>(검색일:
 2020. 8. 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승용차와 대중교통 및 도보로 이동할 때 소요시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출한 종합 대중교통 접근성은 평균 39.6분으로 나타났다. 11개 연안 광역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25.0분으로 가장 접근성이 우수했으며, 다음으로 울산광역시가 27.1분, 부산광역시가 28.7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남도는 52.2분이 소요되어 접근성이 가장 낮았으며, 경상북도(50.5분), 전라북도(48.3분), 경기도(47.3분), 경상남도(45.5분), 인천광역시(42.1분) 등은 평균 소요시간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대중교통 접근성(승용차+대중교통과 도보의 평균) 단위: 분

순위	광역지자체	지푼값
1	제주도	25.0
2	울산광역시	27.1
3	부산광역시	28.7
4	강원도	32.3
5	충청남도	36.6
6	인천광역시	42.1
7	경상남도	45.5
8	경기도	47.3
9	전라북도	48.3
10	경상북도	50.5
11	전라남도	52.2
평균		39.6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교통접근성지표,
<https://www.ktdb.go.kr/www/selectTrnsportTreeView.do?key=32&idx=25898>(검색일:
 2020. 8. 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전국 연안 광역시·도의 수상레저사업장 수는 총 529개로 지역별로는 평균 48.1개가 분포한다.²¹⁾ 11개 광역지자체 중 경상남도에 168개 수상레저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에 141개, 제주도 65개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8개),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각 13개 업체가 운영 중으로 나타나 비교적 적은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수상레저사업장 수

단위: 개

순위	광역지자체	지표값
1	경상남도	168
2	강원도	141
3	제주도	65
4	부산광역시	50
5	전라남도	23
6	충청남도	22
7	경상북도	13
8	전라북도	13
9	경기도	13
10	울산광역시	13
11	인천광역시	8
합계		529
평균		48.1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29395/fileData.do>(검색일: 2020. 8. 24.)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1개 연안 광역지자체에 총 417개의 수중레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지역별로는 평균 37.9개가 분포하고 있다.²²⁾ 연안 광역지자체 중

21) 공공데이터포털,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029395/fileData.do>(검색일: 2020. 8. 24.)

강원도에 137개 수중레저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주도
 도에 111개, 경상북도에 52개 순으로 분포한다. 한편 전라북도(3개),
 울산광역시(6개), 충청남도(8개), 전라남도(12개), 인천광역시(15개),
 경기도(16개), 부산광역시(19개) 등의 지역은 지역별 평균보다 적은
 수의 업체가 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표 3-13〉 수중레저사업장 수

단위: 개

순위	광역시자체	지뫓값
1	강원도	137
2	제주도	111
3	경상북도	52
4	경상남도	38
5	부산광역시	19
6	경기도	16
7	인천광역시	15
8	전라남도	12
9	충청남도	8
10	울산광역시	6
11	전라북도	3
합계		417
평균		37.9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수중레저사업장 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은 총 37개로 총 계류 수용
 능력은 2,313척이며, 광역시·도별 평균 210.3척을 수용할 수 있다.²²⁾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중 부산광역시는 545척을 계류할 수 있어 수
 용 능력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394척, 인천광역시 300척
 순으로 마리나선박 계류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광

22)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수중레저사업장 수)

23) 해양수산부(2020), p.9.

역시에는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선석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라북도(37척), 충청남도(66척), 제주도(69척), 경상북도(139척) 등도 평균 계류 수용 능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

단위: 척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פות값
1	부산광역시	545
2	경기도	394
3	인천광역시	300
4	전라남도	290
5	경상남도	258
6	강원도	215
7	경상북도	139
8	제주도	69
9	충청남도	66
10	전라북도	37
11	울산광역시	0
합계		2,313
평균		210.3

자료: 해양수산부(2020), p.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해양관광 안전

해양경찰청이 추산한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기준 총 247건이 발생했으며, 연안 광역자치체 평균 2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와 제주도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은 해양관광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강원도가 37건, 경상남도가 32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6건을 기록해 전국 연안 광역자치체 중 해양관광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발

24)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연안안전정보-연안사고통계, <https://imsm.kcg.go.kr/CMS/main/csiAcndt/CsiAcndtSttusRB.do>(검색일: 2020. 8. 24.)

생했으며,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각 8건, 인천광역시 10건, 부산광역시 12건, 경상북도 18건, 충청남도 20건 등 7개 지역은 평균보다 적게 발생했다.

〈표 3-15〉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단위: 건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숫값
1	전라남도	48
2	제주도	48
3	강원도	37
4	경상남도	32
5	충청남도	20
6	경상북도	18
7	부산광역시	12
8	인천광역시	10
9	경기도	8
10	전라북도	8
11	울산광역시	6
합계		247
평균		22.5

자료: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연안안전정보-연안사고통계,

<https://imsm.kcg.go.kr/CSMS/main/csiAcdnt/CsiAcdntSttusRB.do>(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해양관광 수요 부문

1) 해양관광평가

(1) 관광객 수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는 2019년 기준 30만 9,875.7명으로, 11개 연안 광역자치체 중 부산광역시가 125만 3,889.1명으로 가장 많은 평균 관광객 수를 기

록했다.²⁵⁾ 다음으로 제주도가 44만 3,674.6명, 전라북도가 34만 4,389.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광역시의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는 10만 3,425명으로 전국 평균의 33.4% 수준으로 나타나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등 상위 3개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 지역의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16〉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

단위: 명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숫값
1	부산광역시	1,253,889.1
2	제주도	443,674.6
3	전라북도	344,389.3
4	경상북도	283,028
5	강원도	213,037.1
6	충청남도	186,291.5
7	경상남도	180,681.4
8	전라남도	146,166.9
9	울산광역시	130,889.4
10	경기도	123,160
11	인천광역시	103,425
평균		309,875.7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지역별 주요관광지점입장객 통계,

<https://know.tour.go.kr/stat/visitStatDis/area.do>(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연안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는 2019년 기준 총 16만 5,728명이며, 지역별로 평균 1만 5,066.2명이 카누, 카약,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⁶⁾

25)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지역별 주요관광지점입장객 통계, <https://know.tour.go.kr/stat/visitStatDis/area.do>(검색일: 2020. 8. 24.)

강원도가 5만 5,465명으로 가장 많은 참여자를 기록했으며, 전라남도가 3만 5,531명, 경상남도가 1만 8,95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상북도(2,080명)와 제주도(3,878명)를 비롯하여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기도 등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참여자 수를 기록했다.

〈표 3-17〉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단위: 명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פות값
1	강원도	55,465
2	전라남도	35,531
3	경상남도	18,955
4	경기도	14,976
5	충청남도	11,626
6	부산광역시	9,122
7	울산광역시	7,488
8	전라북도	6,607
9	제주도	3,878
10	경상북도	2,080
11	인천광역시	0
합계		165,728
평균		15,066.2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9년 기준 전국 연안지역에 지정된 어촌체험마을 103개소를 찾은 방문객은 총 150만 1,403명으로 나타났으며, 연안 광역시·도별 평균 13만 6,491.2명이 방문했다.²⁷⁾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가 가장

26)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27) 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5503&searchSelect=title&searchValue=%25EC%2596%25B4%25EC%25B4%258C%25EC%25B2%25B4%25ED%2597%2598&boardKey=2&menuKey=427¤tPageNo=1>(검색일: 2020. 8. 24.)

많은 연안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33만 3,100명이 방문했으며, 다음으로 강원도(26만 7,406명), 경상남도(23만 5,5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가 적은 지자체는 울산광역시(6,788명), 부산광역시(1만 8,458명), 경상북도(3만 6,79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18〉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단위: 명

순위	광역지자체	지숫값
1	경기도	333,100
2	강원도	267,406
3	경상남도	235,513
4	전라북도	181,627
5	충청남도	143,842
6	제주도	121,201
7	전라남도	82,890
8	인천광역시	73,785
9	경상북도	36,793
10	부산광역시	18,458
11	울산광역시	6,788
합계		1,501,403
평균		136,491.2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5503&searchSelect=title&searchValue=%25EC%2596%25B4%25EC%25B4%258C%25EC%25B2%25B4%25ED%2597%2598&boardKey=2&menuKey=427¤tPageNo=1>(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9년 전국 272개 지정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총 7,159만 명으로 광역지자체 평균 650만 8,181.8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연안 광역지자체 중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이용한 사람이 3,695만 명으로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의 절반을 넘는 51.6%

28)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해수욕장 이용객 수)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강원도가 1,899만 명, 충청남도가 937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정 해수욕장이 없는 경기도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라북도(26만 명), 인천광역시(41만 명), 경상남도(60만 명)를 비롯하여 울산광역시(89만 명), 경상북도(102만 명), 전라남도(120만 명), 제주도(190만 명) 등 상위 3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 모두 평균보다 적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해수욕장 이용객 수

단위: 명

순위	광역시자체	지פות값
1	부산광역시	36,950,000
2	강원도	18,990,000
3	충청남도	9,370,000
4	제주도	1,900,000
5	전라남도	1,200,000
6	경상북도	1,020,000
7	울산광역시	890,000
8	경상남도	600,000
9	인천광역시	410,000
10	전라북도	260,000
11	경기도	0
합계		71,590,000
평균		6,508,181.8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해양 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 이용객 수는 935만 1,753명으로 연안 광역지자체 평균 85만 159.4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⁹⁾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중 해양 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262만

2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표(주요관광지점 입장객), <https://www.tour.go.kr/>(검색일: 2020. 8. 24.)

7,798명이 방문했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 237만 8,191명, 제주도 110만 2,30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울산광역시의 해양 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 이용객은 총 1만 4,263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0.2%를 차지해 가장 적은 이용객 수를 기록했다. 또한 경기도(7만 402명), 강원도(24만 5,784명), 전라북도(28만 1,117명), 경상남도(42만 6,671명), 인천광역시(44만 3,544명), 부산광역시(69만 6,865명) 등도 평균에 비해 적은 수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단위: 명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숫값
1	경상북도	2,627,798
2	전라남도	2,378,191
3	제주도	1,102,305
4	충청남도	1,064,813
5	부산광역시	696,865
6	인천광역시	443,544
7	경상남도	426,671
8	전라북도	281,117
9	강원도	245,784
10	경기도	70,402
11	울산광역시	14,263
합계		9,351,753
평균		850,159.4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표(주요관광지점 입장객), <https://www.tour.go.kr/>(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관광만족도

해양관광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해양관광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3.53점이다.³⁰⁾ 11개 연안 광역자치체 중 해양관광 만

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3.65점이며, 다음으로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각 3.60점, 전라남도가 3.59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지역의 해양관광 만족도는 3.23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으며, 충청남도(3.45점), 인천광역시(3.50점), 전라북도와 강원도(3.52점) 등도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표 3-21〉 해양관광 만족도

단위: 점/ 5점 만점 기준

순위	광역시자체	지פות값
1	제주도	3.65
2	경상북도	3.60
3	울산광역시	3.60
4	전라남도	3.59
5	경상남도	3.58
6	부산광역시	3.57
7	강원도	3.52
8	전라북도	3.52
9	인천광역시	3.50
10	충청남도	3.45
11	경기도	3.23
평균		3.53

자료: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해양관광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양관광지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점 만점 기준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다.³¹⁾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중 해양관광객의 재방문 의향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3.94점이며, 다음으로 경상남도(3.92점), 경상북도(3.87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지역의 해양관광 만족도는 3.55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충청남도

30)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31)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3.65점), 인천광역시(3.71점), 전라북도(3.74점)와 부산광역시(3.78점) 등도 평균보다 낮은 재방문 의향을 보였다.

〈표 3-22〉 해양관광 재방문 의향

단위: 점/ 5점 만점 기준

순위	광역지자체	지פות값
1	제주도	3.94
2	경상남도	3.92
3	경상북도	3.87
4	전라남도	3.84
5	강원도	3.83
6	울산광역시	3.81
7	부산광역시	3.78
8	전라북도	3.74
9	인천광역시	3.71
10	충청남도	3.65
11	경기도	3.55
평균		3.79

자료: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해양관광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문했던 해양관광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점 만점 기준 평균 3.69점으로 나타났다.³²⁾ 연안 광역지자체 중 해양관광객의 타인추천의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3.90점이며, 다음으로 경상남도(3.88점), 전라북도(3.80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 지역에 대한 해양관광객의 타인추천의사는 3.34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인천광역시(3.52점), 충청남도(3.55점) 등도 평균보다 낮았다.

32)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표 3-23〉 해양관광 타인추천의사

단위: 점/ 5점 만점 기준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표값
1	제주도	3.90
2	경상남도	3.88
3	전라북도	3.80
4	경상북도	3.76
5	부산광역시	3.73
6	강원도	3.72
7	울산광역시	3.71
8	전라남도	3.69
9	충청남도	3.55
10	인천광역시	3.52
11	경기도	3.34
평균		3.69

자료: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3) 관광소비액

해양관광객 1인이 1회 여행에서 지불하는 금액인 관광소비액은 평균 44.09만 원으로 조사되었다.³³⁾ 연안 광역자치체 중 관광소비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60.51만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49.55만 원, 경상남도가 47.6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관광 관광소비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로 33.69만 원이었으며, 울산광역시(37.36만 원)와 경상북도(41.52만 원), 전라남도(41.73만 원), 충청남도(42.07만 원), 부산광역시(42.28만 원), 인천광역시(43.51만 원) 등도 평균보다 적었다.

33)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표 3-24〉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단위: 만 원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פות값
1	제주도	60.51
2	전라북도	49.55
3	경상남도	47.69
4	강원도	45.12
5	인천광역시	43.51
6	부산광역시	42.28
7	충청남도	42.07
8	전라남도	41.73
9	경상북도	41.52
10	울산광역시	37.36
11	경기도	33.69
평균		44.09

자료: 2019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KMI 자체조사)

2) 지역경제효과

(1) 관광소득창출

2018년 기준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은 전국 11개 연안 광역자치체 평균 3억 1,753만원이다.³⁴⁾ 연안 광역자치체 중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8억 7,652만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가 7억 4,235만 원, 제주도가 5억 3,834만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8,047만 원 수준이었으며, 이는 매출액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 지역의 9.2%에 불과하다. 또한 전라북도(8,218만 원), 경상북도(1억 258만 원), 경기도(1억 2,065만 원), 울산광역시(1억 9,177만 원), 충청남도(2억 4,587만 원) 등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검색일: 2020. 8. 24.)

〈표 3-25〉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단위: 백만 원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פות값
1	전라남도	876.52
2	부산광역시	742.35
3	제주도	538.34
4	경상남도	360.66
5	충청남도	245.87
6	울산광역시	191.77
7	강원도	151.39
8	경기도	120.65
9	경상북도	102.58
10	전라북도	82.18
11	인천광역시	80.47
평균		317.53

자료: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8년 기준 전국 11개 연안 광역자치체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는 총 7,922명이며, 지역별로는 평균 720명이다.³⁵⁾ 연안 광역자치체 중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604명이 해양레저관광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에 1,378명, 전라남도에 1,372명 순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총 8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155명), 제주도(211명), 인천광역시(285명), 경상북도(565명), 강원도(575명), 충청남도(689명) 등도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가 평균보다 적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35)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검색일: 2020. 8. 24.)

〈표 3-26〉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단위: 명

순위	광역시자체	지פות값
1	경기도	1,604
2	부산광역시	1,378
3	전라남도	1,372
4	경상남도	1,008
5	충청남도	689
6	강원도	575
7	경상북도	565
8	인천광역시	285
9	제주도	211
10	전라북도	155
11	울산광역시	80
합계		7,922
평균		720.18

자료: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관광기간

계절성이 강한 해양관광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간 해양관광 주요지점의 전체 입장객 수 대비 성수기 기간 중 해양관광 주요지점 입장객 수의 비율을 도출한 결과 연안 광역지자체 평균 34.5%의 계절성을 보였다.³⁶⁾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중 해양관광 주요지점의 계절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37.7%였으며, 다음으로 강원도가 37.6%, 충청남도 36.9%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해양관광 주요지점의 계절성이 낮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31.8%였으며, 전라남도(32.6%), 전라북도(32.7%), 경상북도(33.2%), 울산광역시(33.3%), 부산광역시(33.4%), 제주도(33.6%) 등의 지역도 평균보다 낮은 계절성을 보였다.

3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표(주요관광지점 입장객), <https://www.tour.go.kr/>(검색일: 2020. 8. 24.)

〈표 3-27〉 해양관광 주요지점 계절성

단위: %

순위	광역시자체	지פות값
1	경기도	37.7
2	강원도	37.6
3	충청남도	36.9
4	인천광역시	36.3
5	제주도	33.6
6	부산광역시	33.4
7	울산광역시	33.3
8	경상북도	33.2
9	전라북도	32.7
10	전라남도	32.6
11	경상남도	31.8
평균		34.5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통계표(주요관광지점 입장객), <https://www.tour.go.kr/>(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해양관광 정책역량 부문

1) 인력양성

(1) 주민역량강화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는 연안 광역지자체 전체 54명이며, 지역별 평균 4.9명으로 나타났다.³⁷⁾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중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11명이 참여했으며,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8명,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6명이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이 부재했으며, 부산광역시(1명), 인천광

37) 한국어촌어항공단 내부 자료(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수)

역시(3명), 경기도(4명) 등도 평균보다 적은 수의 지역주민이 해양관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8〉 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단위: 명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숫값
1	전라남도	11
2	경상남도	8
3	강원도	6
4	충청남도	6
5	제주도	5
6	경상북도	5
7	전라북도	5
8	경기도	4
9	인천광역시	3
10	부산광역시	1
11	울산광역시	0
합계		54
평균		4.9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내부 자료(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총 709시간으로 연안 광역자치체 평균 64.5시간으로 나타났다.³⁸⁾ 연안 광역자치체 중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115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112시간, 경상남도 106시간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

38) 11개 연안 지자체 지방공무원교육원,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www.busan.go.kr/hrd/index;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https://hrd.incheon.go.kr>;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https://edu.ueti.or.kr/>,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http://www.jeju.go.kr/jejuedu/index.htm>; 경기도 인재개발원, edu.gg.go.kr; 강원도 인재개발원, edu.provin.gangwon.kr;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http://www.chungnam.go.kr/civileducationMain.do>;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https://hrd.jeonbuk.go.kr>;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http://loti.jeonnam.go.kr/>;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http://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gboti/index.html;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www.gyeongnam.go.kr/hrd(검색일: 2020. 8. 24.)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가장 적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8시간이었으며, 충청남도(14시간), 인천광역시(21시간), 제주도(53시간), 경기도(61시간) 등도 평균보다 적은 공무원 해양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관광 관련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 단위: 시간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פות값
1	강원도	115
2	전라북도	112
3	경상남도	106
4	전라남도	78
5	부산광역시	71
6	경상북도	70
7	경기도	61
8	제주도	53
9	인천광역시	21
10	충청남도	14
11	울산광역시	8
합계		709
평균		64.5

자료: 11개 연안 지자체 지방공무원교육원,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www.busan.go.kr/hrd/index;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https://hrd.incheon.go.kr>;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https://edu.ueti.or.kr/>,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http://www.jeju.go.kr/jejuedu/index.htm>; 경기도 인재개발원, edu.gg.go.kr; 강원도 인재개발원, edu.provin.gangwon.kr;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http://www.chungnam.go.kr/civileducationMain.do>;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https://hrd.jeonbuk.go.kr>;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http://loti.jeonnam.go.kr/>;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http://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gboti/index.html;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www.gyeongnam.go.kr/hrd(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주민인력규모

2019년 기준 11개 연안 광역지자체의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는 238명으로 지역별 평균 21.6명이 분포하고 있다.³⁹⁾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54명이 양성되어 활동 중이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47명, 경기도에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가 가장 적게 분포하는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2명이 활동 중이며, 충청남도(14명), 제주도·경상북도·전라북도(15명), 강원도(16명), 부산광역시(17명), 인천광역시(18명) 등의 지역도 평균보다 적은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가 분포하고 있다.

〈표 3-30〉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단위: 명

순위	광역시자체	지פות값
1	경상남도	54
2	전라남도	47
3	경기도	25
4	인천광역시	18
5	부산광역시	17
6	강원도	16
7	전라북도	15
8	경상북도	15
9	제주도	15
10	충청남도	14
11	울산광역시	2
합계		238
평균		21.6

자료: 한국어촌여항공단 내부 자료(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관광행정

(1)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2020년 기준 11개 연안 광역지자체의 해양관광 전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총 52명으로 지역별 평균 4.7명이 해양관광 업

39) 한국어촌여항공단 내부 자료(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무를 수행하고 있다.⁴⁰⁾ 해양관광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15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 13명, 강원도와 제주도 각 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해양관광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전무했으며,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각 3명), 충청남도와 전라남도(각 4명) 등도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해양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

단위: 명

순위	광역시자체	지פות값
1	부산광역시	15
2	경상북도	13
3	강원도	5
4	제주도	5
5	전라남도	4
6	충청남도	4
7	경상남도	3
8	전라북도	3
9	경기도	0
10	인천광역시	0
11	울산광역시	0
합계		52
평균		4.7

자료: 11개 연안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 경기도청, www.gg.go.kr; 강원도청, www.provin.gangwon.k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전라북도청, www.jeonbuk.go.kr; 전라남도청, www.jeonnam.go.kr; 경상북도청, www.gb.go.kr; 경상남도청, www.gyeongnam.go.kr(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0) 11개 연안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 경기도청, www.gg.go.kr; 강원도청, www.provin.gangwon.k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전라북도청, www.jeonbuk.go.kr; 전라남도청, www.jeonnam.go.kr; 경상북도청, www.gb.go.kr; 경상남도청, www.gyeongnam.go.kr(검색일: 2020. 8. 24.)

2019년 기준 11개 연안 광역지자체의 해양관광 부문 예산은 총 1,442억 3,268만 원이며 지역별 평균 131억 1,206만 원 규모이다.⁴¹⁾ 해양관광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365억 3,961.8만 원이며, 다음으로 부산광역시(253억 5,081.7만 원), 경상북도(223억 2,677.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광역시의 해양관광 부문 예산은 5억 5,677.7만 원으로 해양관광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경상남도의 1.5%에 불과하다. 또한 인천광역시(14억 8,405만 원), 경기도(15억 3,149.7만 원), 충청남도(42억 5,005만 원), 강원도(61억 523.1만 원), 전라북도(91억 589.5만 원) 등의 해양관광 부문 예산도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

단위: 천 원

순위	광역지자체	지פות값
1	경상남도	36,539,618
2	부산광역시	25,350,817
3	경상북도	22,326,779
4	제주도	20,538,791
5	전라남도	16,443,177
6	전라북도	9,105,895
7	강원도	6,105,231
8	충청남도	4,250,050
9	경기도	1,531,497
10	인천광역시	1,484,050
11	울산광역시	556,777
합계		144,232,682
평균		13,112,062

자료: KM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9년 기준 전체 지자체 예산 중 해양관광 부문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평균 0.17%로 나타났다.⁴²⁾ 전체 예

41) KMI 내부 자료

산에서 해양관광 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0.44%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주도(0.39%), 경상북도(0.26%) 순이었다. 한편 전체 예산 중 해양관광 부문 예산의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로 각 0.01%였다. 이와 더불어 울산광역시(0.02%), 충청남도(0.07%), 강원도(0.12%), 전라북도(0.15%) 등도 전체 예산 중 해양관광 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단위: %

순위	광역시자치체	지פות값
1	경상남도	0.44
2	제주도	0.39
3	경상북도	0.26
4	전라남도	0.22
5	부산광역시	0.22
6	전라북도	0.15
7	강원도	0.12
8	충청남도	0.07
9	울산광역시	0.02
10	인천광역시	0.01
11	경기도	0.01
평균		0.17

자료: KMI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관광정책

연안 광역지자체별 해양관광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유무는 총 11개 광역지자체 중 8개 지자체에 해양관광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3개 지자체에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⁴³⁾ 지역별로 강

42) KMI 내부 자료

43) 11개 연안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

원도는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해양레저과이며, 충청남도는 해양정책과 해양레저관광팀, 전라북도는 해양항만과 해양레저관광팀, 전라남도는 섬해양정책과 해양레저팀, 경상북도는 환동해본부 해양레저관광과, 경상남도는 해양수산과 해양레저팀, 부산광역시와 관광마이스산업국 해양레저관광과, 제주도는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에는 해양관광 관련 업무 전담 부서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연번	광역자치체	지פות값	비고
1	강원도	1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해양레저과
2	경기도	0	-
3	인천광역시	0	-
4	충청남도	1	해양정책과 해양레저관광팀
5	전라북도	1	해양항만과 해양레저관광팀
6	전라남도	1	섬해양정책과 해양레저팀
7	경상북도	1	환동해본부 해양레저관광과
8	경상남도	1	해양수산과 해양레저팀
9	부산광역시	1	관광마이스산업국 해양레저관광과
10	울산광역시	0	-
11	제주도	1	해양산업과 크루즈해양레저팀
합계		8	

주: 전담 부서 유(1), 무(0)

자료: 11개 연안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 경기도청, www.gg.go.kr; 강원도청, www.provin.gangwon.k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전라북도청, www.jeonbuk.go.kr; 전라남도청, www.jeonnam.go.kr; 경상북도청, www.gb.go.kr; 경상남도청, www.gyeongnam.go.kr(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w.incheon.go.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ju.go.kr; 경기도청, www.gg.go.kr; 강원도청, www.provin.gangwon.kr;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전라북도청, www.jeonbuk.go.kr; 전라남도청, www.jeonnam.go.kr; 경상북도청, www.gb.go.kr; 경상남도청, www.gyeongnam.go.kr(검색일: 2020. 8. 24.)

연안 광역지자체에서 제정한 해양관광과 관련된 조례,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는 총 109건으로 지역별 평균 9.9건의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있다.⁴⁴⁾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를 가장 많이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전라남도로 26건의 자치법규를 마련했으며, 다음으로 강원도(17건), 경상북도(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가 가장 적은 광역지자체는 제주도로 2건이었으며, 울산광역시(3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각 4건), 충청남도(6건), 전라북도(8건) 등의 지역은 평균보다 적은 자치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 수

단위: 건

순위	광역지자체	지숫값
1	전라남도	26
2	강원도	17
3	경상북도	15
4	경상남도	14
5	부산광역시	10
6	전라북도	8
7	충청남도	6
8	인천광역시	4
9	경기도	4
10	울산광역시	3
11	제주도	2
합계		109
평균		9.9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검색, www.elis.go.kr(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연안 광역지자체의 시·도연구원에서 2019년 중 수행한 관광 관련 연구는 총 47건으로 지역별로는 평균 4.3건의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관광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수행한 지역은 강원도로 총

4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검색, www.elis.go.kr(검색일: 2020. 8. 24.)

9건을 수행했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8건), 인천광역시(6건) 순이었다. 한편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각 2건의 관광 관련 연구를 수행해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연구 수행 실적을 보였으며, 경기도·부산광역시·경상북도(각 3건), 충청남도(4건) 등의 지역도 평균보다 적은 수의 관광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 관광 관련 연구 수

단위: 건

순위	광역지자체	지표값
1	강원도	9
2	전라남도	8
3	인천광역시	6
4	제주도	5
5	충청남도	4
6	경상북도	3
7	부산광역시	3
8	경기도	3
9	경상남도	2
10	전라북도	2
11	울산광역시	2
합계		47
평균		4.3

자료: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시·도연구원, 부산연구원, www.bdi.re.kr; 인천연구원, www.ii.re.kr; 울산연구원, www.uri.re.kr; 제주연구원, www.jri.re.kr; 경기연구원, www.gri.re.kr; 강원연구원, www.rig.re.kr; 충남연구원, www.cni.re.kr; 전북연구원, www.jthink.kr; 광주전남연구원, www.gjeri.kr; 대구경북연구원, www.dgi.re.kr; 경남연구원, www.gndi.re.kr(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5)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시·도연구원, 부산연구원, www.bdi.re.kr; 인천연구원, www.ii.re.kr; 울산연구원, www.uri.re.kr; 제주연구원, www.jri.re.kr; 경기연구원, www.gri.re.kr; 강원연구원, www.rig.re.kr; 충남연구원, www.cni.re.kr; 전북연구원, www.jthink.kr; 광주전남연구원, www.gjeri.kr; 대구경북연구원, www.dgi.re.kr; 경남연구원, www.gndi.re.kr(검색일: 2020. 8. 24.)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연안에 위치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해양 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연안 광역지자체 현황에 대한 각 분야별 지פות값을 살펴보면, 자연자원 분포와 관련하여 강원도와 전라남도 지역이 지정 해수욕장과 해안둘레길 자원을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보유함에 따라 상위권을 차지하며, 경기도와 울산광역시에는 하위권을 차지한다. 문화자원은 전라남도가 해양 관련 문화재와 어촌체험마을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해양축제 비중이 낮고 어촌체험마을이 적은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숙박 및 교통시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관광숙박업 객실과 어촌민박 자원을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과 울산광역시는 숙박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전라남·북도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전라남도과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지역의 숙박 및 교통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시설과 관련하여 강원도 지역은 수상레저사업장과 수중레저사업장 등 기반 시설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전라북도 지역은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이 매우 적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초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해양관광 관련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과 제주도에 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관광객 수 지표와 관련하여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와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많은 부산광역시가 상위를 차지하며, 수상레저와 수중레저사업장이 많고 서울 등 수도권과 접근성이 높은 강원도도 상위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만족도 측면에서 제주도가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의사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경기도·충청남도·인천광역시는 세 항목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해 해양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은 전라남도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으며 최하위인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약 10배에 이를 정도이다.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는 사업체 평균 매출액이 작고 종사자 수도 적은 영세한 규모의 해양레저관광 사업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주민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연안지역 해양관광이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으므로 어촌체험마을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장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어촌체험마을이 적게 분포하는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주민역량강화 성과가 타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한편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해양관광 전담 부서 및 인력이 없고 해양관광 관련 예산액과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관련 예산 비중이 최하위를 차지해 이들 지역의 해양관광 관련 조직, 인력,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

〈표 3-37〉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분석 종합

소분류	내용	상위 광역지자체
자연자원	지정 해수욕장, 해안둘레길, 자연해안선 등 자연자원을 보유한 지역	강원, 전남
문화자원	해양축제, 해양 관련 문화재, 어촌체험마을 등 해양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	전남, 경북

소분류	내용	상위 광역지자체
숙박 및 교통 시설	관광숙박업과 어촌민박이 운영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	제주, 강원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수상·수중레저사업장,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을 보유한 지역	강원, 부산
해양관광 안전	해양관광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많은 지역	전남, 제주
관광객 수	해양관광 주요지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어촌 체험마을, 해수욕장, 해양 관련 문화시설 방문이 활발한 지역	부산, 강원
관광만족도	해양관광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의사가 높은 지역	제주, 경북
관광소비액	해양관광활동 관련 소비액이 높은 지역	제주, 전북
관광소득창출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많은 지역	전남, 부산
관광기간	해양관광 주요지점의 성수기 기간 중 관광객 집중도가 높은 지역	경기, 강원
주민역량강화	주민 대상 해양관광 또는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지역	전남, 강원
주민인력 규모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인력이 풍부한 지역	경남, 전남
관광정책인력/예산	해양관광 전담 공무원 규모, 예산 등 정책추진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	부산, 경남
관광정책	해양관광 전담 부서와 관련 자치법규, 지역의 관광 관련 연구 실적 등 관광정책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역	전남, 강원

자료: 저자 작성

11개 연안 광역시·도의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에 대해 종합해 보면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양관광 수요지수,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등 3개 부문에 걸쳐 각 지자체별 보유 자원의 양적·질적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해양관광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마다 부문별로 강점과 약점이 상이하며, 특정 지자체는 해양관광 관련 기초 시설조차 매우 부족해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저변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

부 지자체는 해양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인력, 재원 등이 확보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또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4 장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 및 적용체계

제1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

1. 지수 산출체계의 개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지표의 가중치는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바탕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AHP 조사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표현하고, 전문가의 일관성을 확인하여 쌍대비교를 통한 지표의 중요도를 용이하게 산출함으로써 지수 개발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 중 하나이다.⁴⁶⁾ 핵심 선행연구인 ‘지역 문화지수’, ‘지역관광발전지수’ 등의 연구에서도 AHP 분석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지수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AHP 전문가 조사

46) 김혜숙(2009), p. 37.

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관광 및 해양 관광 관련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의 세부적인 설계는 아래와 같다.

〈표 4-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가중치 산출 AHP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지역관광 및 해양관광 관련 전문가 42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시기	2020년 9월 11일~9월 22일

자료: 저자 작성

AHP 조사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관광정책 분야 전문가가 전체의 3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광마케팅, 관광개발, 관광경제 순이었다. 관광분야 연구경력은 11~20년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근무기관은 연구기관이 50.0%, 대학이 42.9%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AHP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구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문 분야	관광 정책	15	35.7%	관광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하	14	33.3%
	관광 마케팅	9	21.4%		6~10년	4	9.5%
	문화 관광	2	4.8%		11~20년	17	40.5%
	레저스포츠 산업	2	4.8%		20년 초과	7	16.7%
	관광 경제	5	11.9%	근무 기관	연구기관	21	50.0%
	관광 개발	7	16.7%		대학	18	42.9%
	기타	2	4.8%		정부 기관	3	7.1%

자료: 저자 작성

2. 지표별 가중치 산정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가중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분류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는 해양관광 수요지수가 0.451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양관광 공급지수(0.306),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0.2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대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해양관광 공급지수	0.306	2
해양관광 수요지수	0.451	1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0.243	3

주: CI=0.0179, CR=0.0309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중분류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공급지수 중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함하는 해양관광 매력물(0.641)이 해양관광 수용력(0.359)보다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4〉 해양관광 공급지수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해양관광 매력물	0.641	1
해양관광 수용력	0.359	2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 수요지수에서는 관광객 수, 관광만족도, 소비액 등을 포함하는 해양관광평가가 0.580으로 나타났고, 관광소득창출과 관광기간인 지역경제효과는 0.420으로 나타나 해양관광평가가 지역경제효과에 비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해양관광 수요지수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해양관광평가	0.580	1
지역경제효과	0.420	2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관광정책에 해당하는 관광행정이 0.539로 주민역량강화와 주민인력규모를 포함하는 인력양성(0.461)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중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인력양성	0.461	2
관광행정	0.539	1

자료: 저자 작성

소분류를 기준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해양관광 매력물에서는 자연자원(0.640)이 문화자원(0.360)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해양관광 매력물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자연자원	0.640	1
문화자원	0.360	2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 수용력에서는 해양관광안전 부문이 0.355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양레저스포츠시설(0.351), 숙박 및 교통시설(0.294)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8〉 해양관광 수용력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숙박 및 교통시설	0.294	3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351	2
해양관광안전	0.355	1

주: CI=0.0002, CR=0.0003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평가에서는 관광 만족도가 0.477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광 소비액(0.329), 관광객 수(0.195)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해양관광평가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관광객 수	0.195	3
관광 만족도	0.477	1
관광 소비액	0.329	2

주: CI=0.000004, CR=0.000007

자료: 저자 작성

지역경제효과 부문에서는 관광소득창출 요인이 0.750으로 나타나, 해양관광의 계절성을 나타내는 관광기간(0.250)보다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지역경제효과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관광소득창출	0.750	1
관광기간	0.250	2

자료: 저자 작성

인력양성에서는 주민역량강화가 0.812로 주민인력규모(0.188)보다 매우 높은 값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중요도가 매우 높게 분석되었다.

〈표 4-11〉 인력양성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주민역량강화	0.812	1
주민인력규모	0.188	2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관광행정 부문에서는 관광정책인력 및 예산 요인이

0.692로 나타나 관광정책(0.380)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관광행정 소분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관광정책인력 및 예산	0.692	1
관광정책	0.380	2

자료: 저자 작성

종합하면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을 평가하는 최종 지수의 가중치는 해양관광 수요지수(45.0점), 해양관광 공급지수(30.6점), 해양관광 정책역량(24.3점) 순으로 배점되었으며, 가중치로부터 도출된 소분류 기준의 각 배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3〉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가중치 종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
해양 관광 공급 지수 (30.6)	해양 관광 매력물 (19.6)	자연 자원	지정 해수욕장 수	12.5
			해안둘레길(해파랑길, 해안누리길 등) 길이	
			자연해안선 비중	
	문화 자원		해양축제 비중	7.1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	
			어촌체험마을 수	
	해양 관광 수용력 (11.0)	숙박 및 교통 시설	관광숙박업 객실 수	3.2
			어촌민박 수	
			대중교통 접근성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	수상레저사업장 수	3.9
			수중레저사업장 수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	3.9
		해양관광 안전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 건수	
해양 관광 수요 지수	해양 관광 평가 (26.1)	관광객 수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	5.1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배점
(45.0)			해수욕장 이용객 수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만족도	12.4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의사	
		관광 소비액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8.6
	지역 경제 효과 (18.9)	관광 소득 창출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14.2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관광기간	해양관광 주요지점 계절성	4.7
해양 관광 정책 역량 지수 (24.3)	인력 양성 (11.2)	주민 역량강화	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9.1
			관광 관련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	
		주민인력 규모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2.1
	관광 행정 (13.1)	관광정책 인력/예산	해양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	9.1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관광 정책	해양관광 전담 부서 유무	4.0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 수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 관광 관련 연구 수	

자료: 저자 작성

도출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단위로 구성된 지표를 상호비교 가능한 값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Z점수 산출을 통한 표준 점수화, 기준선에 근거한 표준화, 구간 설정을 통한 표준화, 상대적 순위값 적용방안 등이 존재한다.⁴⁷⁾

47) 위의 책, p. 36.

기준선에 근거한 표준화 방안은 기준선 설정 자체의 어려움, 구간 설정을 통한 표준화 방안은 최솟값과 최댓값 범위의 차이가 극단치일 경우 사용하기가 어려워 현재로서는 Z점수 산출을 통한 표준점수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데이터의 지역 간 표준화를 위하여 Z점수를 산출하고, Z점수의 음수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점수(T)⁴⁸⁾를 산출하였다. 도출된 표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그림 4-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방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

자료: 한국관광공사(검색일: 2020. 8. 24.)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산출방안(〈그림 4-1〉)을 바탕으로 연안 광역시·도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도출된 표준화 점수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값은 각각 아래 표와 같다.

〈표4-14〉의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산출을 살펴보면 Z 점수와 T 점수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T 점수 100점이 지역의 평균 점수임을 의미한다. 〈표4-15〉는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T 점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다. 각 부문별, 지역별 값은 다음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적용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48) 표준점수(T)=Z점수×20+100

〈표 4-14〉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산출

구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Z	T	Z	T	Z	T	Z	T	Z	T	Z	T	Z	T	Z	T	Z	T	Z	T	Z	T
자연자원	-0.35	93.00	-0.19	96.22	-0.95	80.91	-1.06	78.73	1.84	136.75	-0.12	97.68	-0.33	93.48	0.73	114.57	0.71	114.10	-0.24	95.21	-0.03	99.33
문화자원	0.27	105.32	-0.42	91.51	-0.90	81.96	-0.92	81.57	-0.15	97.04	0.00	100.04	-0.68	86.47	1.39	127.85	0.38	107.65	0.82	116.40	0.21	104.21
숙박 및 교통시설	-0.42	91.53	0.14	102.72	-0.88	82.44	-0.11	97.80	0.01	100.23	-0.41	91.75	-0.21	95.78	0.29	105.88	0.17	103.49	0.07	101.40	1.35	126.98
해안레저 스포츠시설	0.54	110.72	-0.23	95.40	-0.86	82.77	-0.01	99.87	1.29	125.87	-0.66	86.76	-0.81	83.80	-0.18	96.36	-0.25	95.06	0.81	116.23	0.36	107.17
해양관광 인건	0.65	113.00	0.77	115.49	1.02	120.46	0.90	117.97	-0.90	81.91	0.15	103.05	0.90	117.97	-1.59	88.23	0.28	105.54	-0.69	88.13	-1.59	88.23
관광객 수	0.77	115.39	-0.62	87.62	-0.72	86.50	-0.03	99.30	0.75	115.00	-0.01	99.89	-0.23	95.37	0.30	105.97	-0.05	98.92	-0.04	99.13	-0.10	97.91
관광만족도	0.17	103.41	-0.65	86.93	0.32	106.33	-2.25	55.01	0.18	103.58	-0.88	82.31	0.04	100.85	0.31	106.27	0.88	111.69	0.95	118.93	1.23	124.69
관광소비액	-0.26	94.81	-0.08	98.31	-0.97	80.69	-1.49	70.17	0.15	102.95	-0.29	94.21	0.78	115.64	-0.34	98.23	-0.37	92.63	0.52	110.31	2.35	147.05
관광소득총출	1.36	127.25	-0.82	83.54	-0.81	83.73	0.46	109.27	-0.43	91.41	-0.16	96.87	-0.94	81.21	1.60	131.92	-0.53	89.49	0.34	106.83	-0.08	99.48
관광기간	0.48	108.51	-0.85	83.07	0.54	110.70	-1.49	70.20	-1.43	71.43	-1.09	78.16	0.82	116.39	0.86	117.25	0.57	111.30	1.19	123.80	0.41	108.17
주요해양문화 주요인력 규모	-0.56	88.89	-0.88	82.35	-1.54	68.10	-0.19	95.11	0.84	116.82	-0.48	90.36	0.64	112.76	1.18	123.53	0.09	101.75	1.05	121.03	-0.14	97.30
주요인력 규모	-0.30	93.94	-0.24	95.25	-1.28	74.35	0.22	104.39	-0.37	92.64	-0.50	90.03	-0.43	91.33	1.66	133.13	-0.43	91.33	2.11	142.27	-0.43	91.33
관광정책 인력/예산	1.13	122.57	-1.00	80.08	-1.02	79.60	-1.01	79.77	-0.30	93.92	-0.52	88.64	-0.29	94.25	0.16	103.13	1.00	120.03	1.14	122.85	0.71	114.16
관광정책	0.03	100.52	-0.55	89.01	-1.14	77.24	-0.96	80.85	1.16	123.11	-0.02	99.64	-0.20	96.00	1.42	128.47	0.25	105.01	0.07	101.39	-0.06	98.77

자료: 자사 작성

〈표 4-15〉 해양관광 경쟁력 기종지 적용

구분	가종지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연자원	12.5%	11.67	12.07	10.15	9.88	17.16	12.26	11.73	14.38	14.32	11.95	12.46
문화자원	7.1%	7.43	6.46	5.78	5.76	6.85	7.06	6.10	9.02	7.60	8.22	7.36
숙박 및 교통시설	3.2%	2.96	3.33	2.67	3.17	3.24	2.97	3.10	3.43	3.35	3.28	4.11
해양레저 스포츠시설	3.9%	4.28	3.69	3.20	3.86	4.86	3.35	3.24	3.72	3.67	4.49	4.14
해양관광 안전	3.9%	4.41	4.51	4.70	4.60	3.20	4.02	4.60	2.66	4.12	3.44	2.66
관광객 수	5.1%	5.86	4.45	4.34	5.05	5.84	5.07	4.84	5.38	5.03	5.04	4.97
관광만족도	12.4%	12.87	10.82	13.24	6.85	12.89	10.25	12.55	13.23	13.90	14.80	15.52
관광소비예	8.6%	8.14	8.45	6.93	6.03	8.84	8.09	9.93	8.01	7.96	9.48	12.63
관광소득총출	14.2%	18.07	11.86	11.89	15.52	12.98	13.76	11.53	18.73	12.71	15.17	13.99
관광기간	4.7%	5.18	3.93	5.24	3.32	3.38	3.70	5.51	5.55	5.27	5.86	5.12
주민영양화	9.1%	8.10	7.50	6.29	8.75	10.64	8.23	10.27	11.25	9.27	11.02	8.86
주민인력 규모	2.1%	1.99	2.01	1.57	2.21	1.96	1.90	1.93	2.82	1.93	3.01	1.93
관광정책 인력/예산	9.1%	11.12	7.27	7.22	7.24	8.52	8.13	8.55	9.36	10.89	11.15	10.36
관광정책	4.0%	4.06	3.59	3.12	3.26	4.97	4.02	3.87	5.19	4.24	4.09	3.99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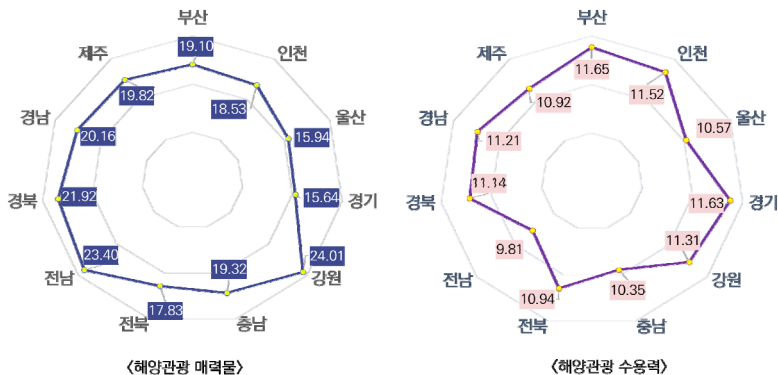
제2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적용

1. 부문별 지수 적용·분석

1)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해양관광 매력물과 해양관광 수용력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관광 매력물 부문에서는 강원이 2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23.4점, 경북 21.92점, 경남 20.16점 순으로 나타난 반면, 울산과 경기도는 각각 15.94점, 15.6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해양관광의 숙박, 교통, 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을 포함하는 해양관광 수용력이 높은 지역은 부산 11.65점, 경기 11.63점, 인천 11.52점 등 대도시가 중심이 되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반면 전남 9.81점, 충남 10.35점, 울산 10.57점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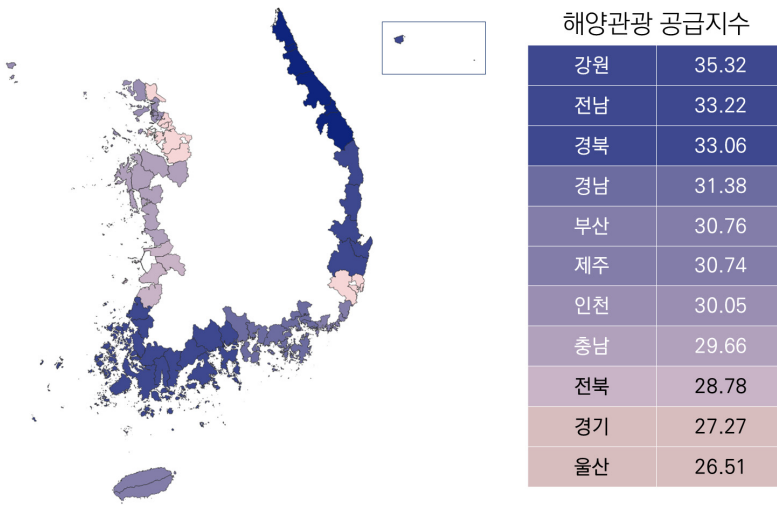
〈그림 4-2〉 해양관광 매력물과 수용력의 지역별 점수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 공급지수의 11개 연안 광역시·도의 평균값은 30.61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이 35.32점, 전남 33.22점, 경북 33.06점으로 높았고, 울산 26.51점, 경기 27.27점, 전북 28.7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4-3〉 해양관광 공급지수의 지역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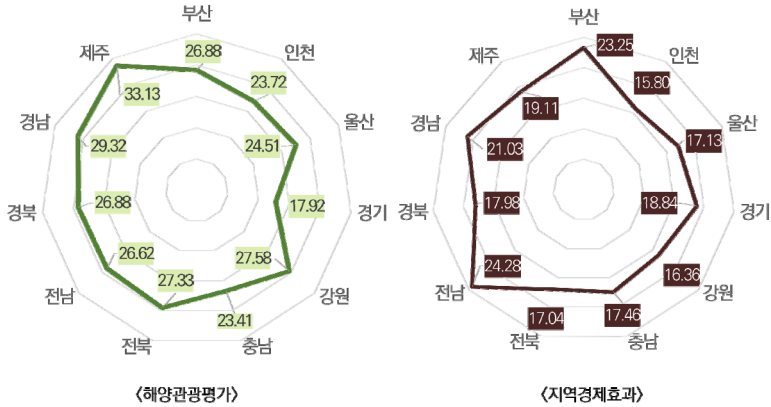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해양관광 수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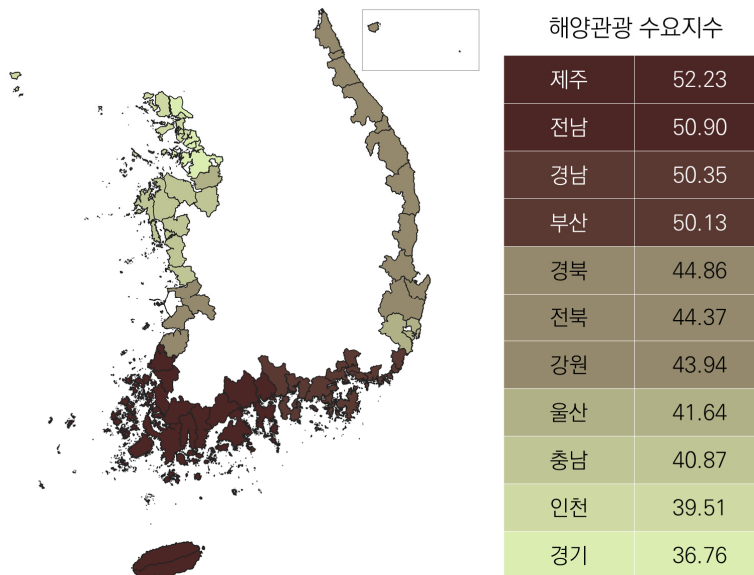
해양관광 수요지수를 해양관광 평가와 지역경제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해양관광 평가는 제주가 33.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남 29.32점, 강원 27.58점, 전북 27.33점 순이었다. 이에 비해 경기가 17.92점으로 가장 낮았고, 인천 23.72점, 울산 24.51점이었다. 지역 경제효과는 전남이 24.2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23.25점), 경남(21.03점) 순이었다. 반면 인천(15.8점), 전북(17.04점), 울산(17.13점)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해양관광 평가와 지역경제효과의 지역별 점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5〉 해양관광 수요지수의 지역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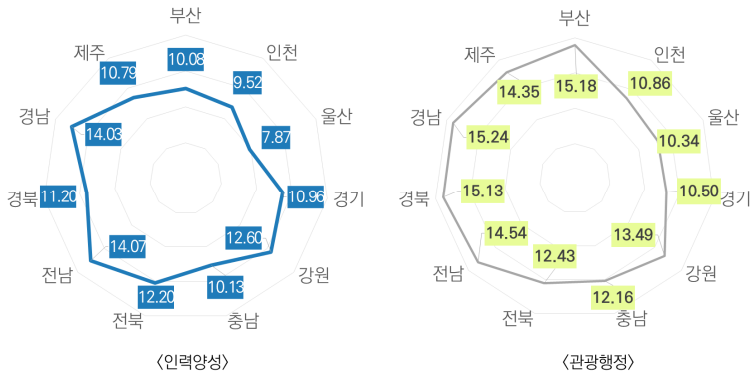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 수요지수의 11개 연안 시·도 평균값은 45.05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점수분포를 보면, 제주가 52.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 50.90점, 경남 50.35점, 부산 50.13점 순이었다. 이에 비해 경기도가 36.76점으로 가장 낮았고, 인천, 충남,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3)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를 인력양성과 관광행정부문으로 구분해서 보면, 인력양성은 전남 14.07점, 경남 14.03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울산(7.87점)과 인천(9.52점)이 낮은 편이다. 관광행정 부문은 경남 15.24점, 부산 15.18점, 경북 15.13점 순이었고, 울산, 경기, 인천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다.

〈그림 4-6〉 인력양성과 관광행정의 지역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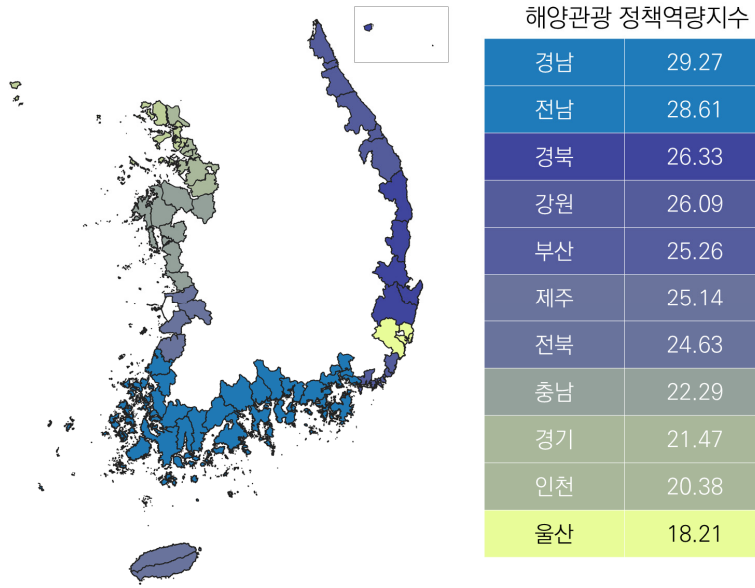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의 11개 연안 광역시·도 평균값은 24.34점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점수분포를 보면, 경남이 29.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28.61점, 경북 26.33점, 강원 26.09점 순이었다. 반면에 울산이 18.21점으로 가장 낮았고, 인천 20.38점, 경기 21.47점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의 지역별 점수



자료: 저자 작성

2. 지역별 지수 적용·분석

(1) 부산광역시

부산의 해양관광 경쟁력 분석 결과 가장 경쟁력이 높은 부문은 관광소득창출로 T표준화 점수 127.2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객 수도 115.39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주민역량 강화 부문의 경쟁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숙박 및 교통시설, 자연자원 등의 순이다.

〈표 4-16〉 부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0.35	93.00
문화자원	0.27	105.32
숙박 및 교통시설	-0.42	91.53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54	110.72
해양관광 안전	0.65	113.00
관광객 수	0.77	115.39
관광만족도	0.17	103.41
관광소비액	-0.26	94.81
관광소득창출	1.36	127.25
관광기간	0.48	109.51
주민역량강화	-0.56	88.89
주민인력규모	-0.30	93.94
관광정책 인력/예산	1.13	122.57
관광정책	0.03	100.52

자료: 저자 작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부산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106.15 점으로 산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30.76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50.13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5.26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4-17〉 부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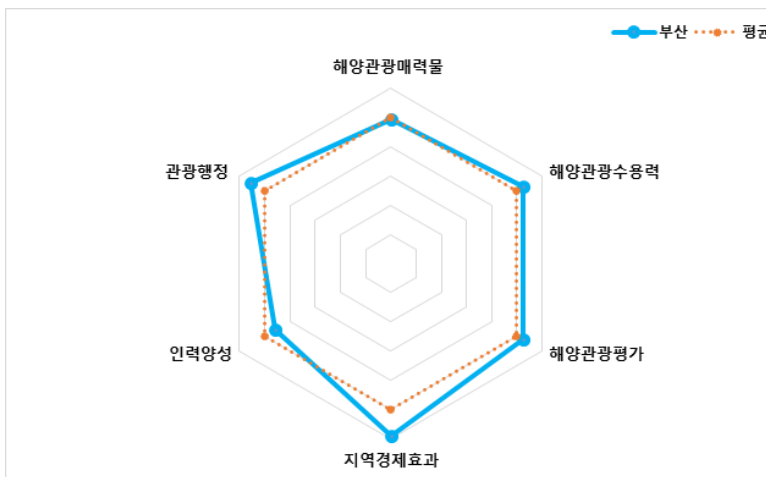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30.76
해양관광 수요지수	50.13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5.26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06.15

자료: 저자 작성

부산은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 수요, 정책역량이 균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중에서도

지역 경제효과와 해양관광 평가를 포함하는 해양관광 수요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연안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송도 등 국내 대표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문객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림 4-8〉 부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다만 인력양성 측면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인데 세부적으로는 어촌체험마을이 적게 분포하여 해양관광 교육 프로그램 이수 지역주민이 타 지역 대비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천광역시

인천 해양관광 경쟁력은 해양관광 안전(115.49점)과 숙박 및 교통 시설(102.72점)에 대한 경쟁력이 타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부문이 80.08점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가장 낮았으며, 주민역량강화(82.35점), 관광기간(83.07점) 등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인천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0.19	96.22
문화자원	-0.42	91.51
숙박 및 교통시설	0.14	102.72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23	95.40
해양관광 안전	0.77	115.49
관광객 수	-0.62	87.62
관광만족도	-0.65	86.93
관광소비액	-0.08	98.31
관광소득창출	-0.82	83.54
관광기간	-0.85	83.07
주민역량강화	-0.88	82.35
주민인력규모	-0.24	95.25
관광정책 인력/예산	-1.00	80.08
관광정책	-0.55	89.01

자료: 저자 작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인천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89.94점으로 산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30.05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39.51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0.38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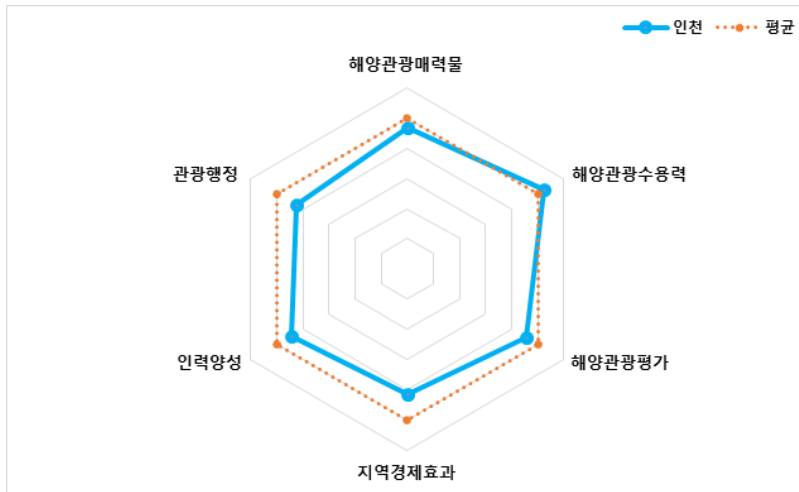
〈표 4-19〉 인천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30.05
해양관광 수요지수	39.51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0.38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89.94

자료: 저자 작성

인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해양관광 수용력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요, 공급, 정책 역량의 경쟁력은 균형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9〉 인천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인천은 숙박 및 교통시설, 해양레저스포츠시설, 해양관광 안전 등을 나타내는 해양관광 수용력이 가장 높았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통한 지역경제효과는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양관광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경쟁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을 배후시장으로 해양관광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한 인천의 장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산업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3) 울산광역시

울산 해양관광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해양관광 안전이 120.46점으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관광기간이 110.70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해양관광이 사계절 육성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광만족도가 106.33점으로 나타나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민역량강화 부문이 69.10점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민인력규모, 관광정책,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등의 점수가 70점대로 나타나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0〉 울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0.95	80.91
문화자원	-0.90	81.96
숙박 및 교통시설	-0.88	82.44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86	82.77
해양관광 안전	1.02	120.46
관광객 수	-0.72	85.50
관광만족도	0.32	106.33
관광소비액	-0.97	80.69
관광소득창출	-0.81	83.73
관광기간	0.54	110.70
주민역량강화	-1.54	69.10
주민인력규모	-1.28	74.35
관광정책 인력/예산	-1.02	79.60
관광정책	-1.14	77.24

자료: 저자 작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울산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86.36점이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26.51점, 해양관광 수요

지수는 41.64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18.21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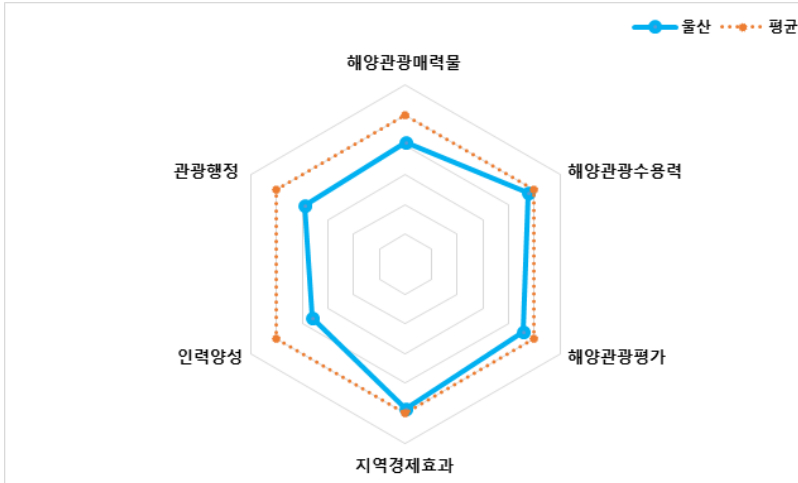
〈표 4-21〉 울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26.51
해양관광 수요지수	41.64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18.2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86.36

자료: 저자 작성

종합하여 살펴보면 울산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중심이 된 산업도시·공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를 포함하는 해양관광 부문 예산, 전담 부서, 자치법규, 관련 연구 등 모든 요인이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울산은 해양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효과와 해양관광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기준 울산은 울주군 해양관광 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간절곶, 진해해수욕장 등 대표 해양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관광 명소화를 계획 중에 있어 울주군을 중심으로 울산의 해양관광 정책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4-10〉 울산광역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4) 경기도

경기 해양관광 경쟁력 중 평균 이상인 부문은 해양관광 안전 (117.97점)과 관광소득창출(109.27점), 주민인력규모(104.39점)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는 관광만족도가 55.01점으로 나타나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관광소비액(70.17점), 관광기간(70.20점), 자연자원 (78.73) 등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2〉 경기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1.06	78.73
문화자원	-0.92	81.57
숙박 및 교통시설	-0.11	97.80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01	99.87
해양관광 안전	0.90	117.97
관광객 수	-0.03	99.30
관광만족도	-2.25	55.01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관광소비액	-1.49	70.17
관광소득창출	0.46	109.27
관광기간	-1.49	70.20
주민역량강화	-0.19	96.11
주민인력규모	0.22	104.39
관광정책 인력/예산	-1.01	79.77
관광정책	-0.96	80.85

자료: 저자 작성

경기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85.50점으로 산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27.27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36.76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1.47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4-23〉 경기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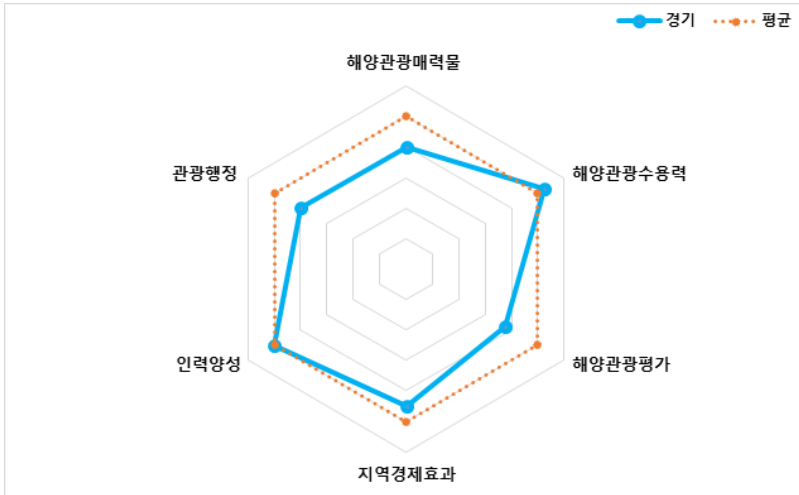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27.27
해양관광 수요지수	36.76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1.47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85.50

자료: 저자 작성

경기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해양관광 수용력과 인력양성 부문이 높은 편이다. 수도권 해양관광 시장인 경기는 숙박 및 교통시설,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경쟁력이 높은 편이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등 해양관광 매력물에 대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특히 해양관광 대표 자연 자원인 제부도,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이 아니다. 이에 해수욕장 환경을 정비하여 지정 해수욕장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기 해양관광 정책역량에서 해양관광 부문에 대한 예산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전담 부서가 부재한 것으로 분석되어 수도권 해양관광 시장에 상응하는 정책 역량강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1〉 경기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5) 강원도

강원 해양관광은 자연자원(136.75점)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시설(125.87점), 관광정책(123.11점), 관광객 수(115점) 등 대부분 지표의 경쟁력이 타 연안 시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기간에 대한 경쟁력이 71.4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관광객 편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관광 안전부문이 타 부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주민인력규모,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부문이 100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이하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4〉 강원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1.84	136.75
문화자원	-0.15	97.04
숙박 및 교통시설	0.01	100.23
해양레저스포츠시설	1.29	125.87
해양관광 안전	-0.90	81.91
관광객 수	0.75	115.00
관광만족도	0.18	103.58
관광소비액	0.15	102.95
관광소득창출	-0.43	91.41
관광기간	-1.43	71.43
주민역량강화	0.84	116.82
주민인력규모	-0.37	92.64
관광정책 인력/예산	-0.30	93.92
관광정책	1.16	123.11

자료: 저자 작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강원도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105.35점으로 산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35.32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43.94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6.09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4-25〉 강원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35.32
해양관광 수요지수	43.94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6.09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0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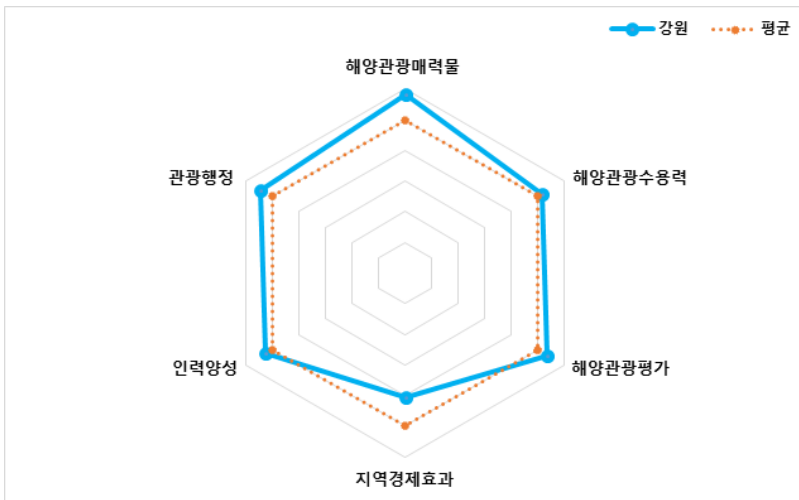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강원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며, 수요, 공급, 정책역량이 균형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국 해수욕장의 35%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함하는 해양관광 매력물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광객 수, 만족도 등 해양관광 평가도 높은데 반해 지역경제효과 측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레저관광 사업체의 경쟁력이 부족하며, 특히 강원 해양관광은 하계 휴가철 관광목적지로 높은 선호도를 형성하고 있어 계절성 측면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아 계절적 편중성이 크다. 이는 강원 해양관광 사계절 육성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2〉 강원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6) 충청남도

충남 해양관광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표준화 점수가 평균 이상인 부문은 해양관광 안전(103.05점)과 문화자원(100.04점)인 것으로 나타나 타 부문에 비하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관광기간이 78.16점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관광만족도(82.31점), 해양레저스포츠시설(86.76점),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89.64점)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6〉 충청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0.12	97.68
문화자원	0.00	100.04
숙박 및 교통시설	-0.41	91.75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66	86.76
해양관광 안전	0.15	103.05
관광객 수	-0.01	99.89
관광만족도	-0.88	82.31
관광소비액	-0.29	94.21
관광소득창출	-0.16	96.87
관광기간	-1.09	78.16
주민역량강화	-0.48	90.36
주민인력규모	-0.50	90.03
관광정책 인력/예산	-0.52	89.64
관광정책	-0.02	99.64

자료: 저자 작성

충남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92.82점으로 산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29.66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40.87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2.29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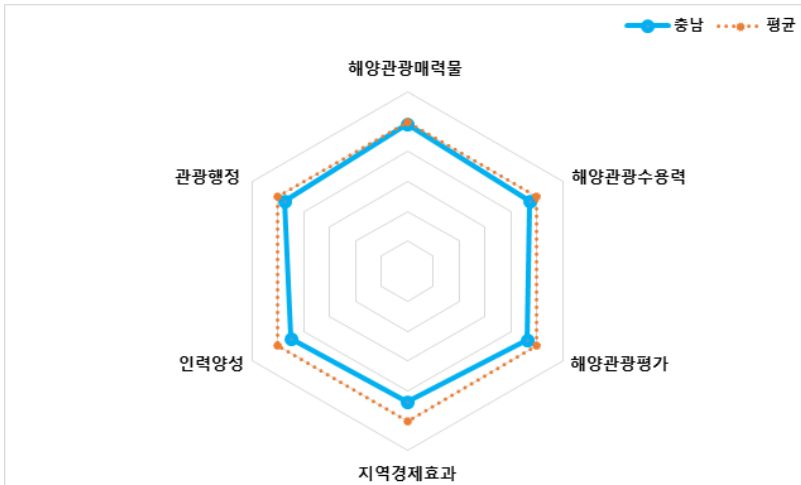
〈표 4-27〉 충청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29.66
해양관광 수요지수	40.87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2.29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92.82

자료: 저자 작성

충남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전체적으로 해양관광 공급, 수요, 정책역량 지수는 균형적이나 각각의 부문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서해안 최대 규모인 대천 해수욕장을 포함한 33개의 지정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령머드축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문화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등 해양관광의 잠재적 경쟁력이 매우 높다. 그러나 타 지역에 대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숙박 및 교통시설 등의 수용력이 높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양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양관광 정책역량 부문에서도 인력양성과 관광행정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은 도 내 보령, 태안 등 해양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과 아산, 당진, 홍성 등 연안지역에 위치하나 상대적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하여 불균형 심화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3〉 충청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7) 전라북도

전북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해양관광 안전이 117.97점으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관광기간(116.39점), 관광소비액(115.64점), 주민역량강화(112.76점) 순이다. 전북의 해양관광 경쟁력이 가장 낮은 분야는 관광소득창출(81.21점)로 나타났으며, 해양레저스포츠시설(83.80점), 문화자원(86.47점)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8〉 전라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0.33	93.48
문화자원	-0.68	86.47
숙박 및 교통시설	-0.21	95.78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81	83.80
해양관광 안전	0.90	117.97
관광객 수	-0.23	95.37
관광만족도	0.04	100.85
관광소비액	0.78	115.64
관광소득창출	-0.94	81.21
관광기간	0.82	116.39
주민역량강화	0.64	112.76
주민인력규모	-0.43	91.33
관광정책 인력/예산	-0.29	94.25
관광정책	-0.20	96.00

자료: 저자 작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전북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97.78점이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28.78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44.37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4.63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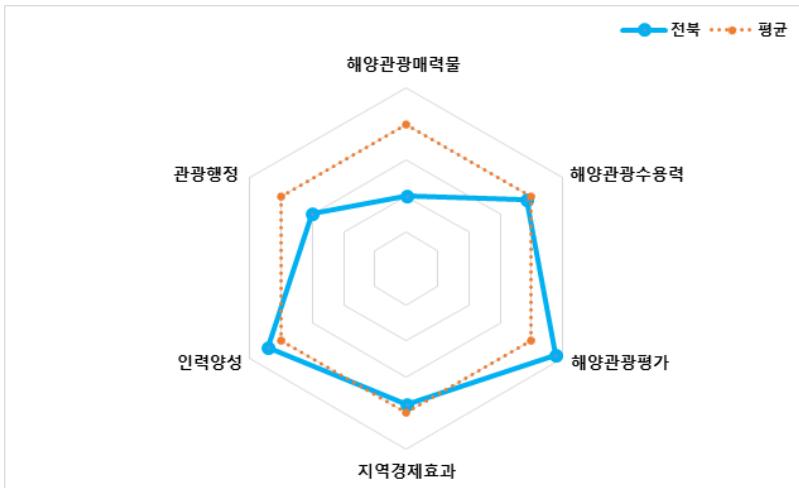
〈표 4-29〉 전라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28.78
해양관광 수요지수	44.37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4.63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97.78

자료: 저자 작성

전북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해양관광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과 관광행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양관광객 수, 만족도, 소비 등을 포함하는 해양관광 평가 부문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해안둘레길, 해양축제 등의 해양관광 매력물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양관광 예산 확대 등을 통하여 정책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14〉 전라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2018년 해수부는 전북 군산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 시설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어촌뉴딜 300 사업, 새만금 개발 등과 연계하여 서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8) 전라남도

전남의 해양관광 경쟁력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주민인력규모가 133.13점으로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양관광으로 인한 관광소득창출 역시 131.92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다. 한편 전남 해양관광 경쟁력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부문은 해양관광 안전으로 68.23점으로 전남 내 타 부문 및 지자체 대비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30〉 전라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0.73	114.57
문화자원	1.39	127.85
숙박 및 교통시설	0.29	105.88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18	96.35
해양관광 안전	-1.59	68.23
관광객 수	0.30	105.97
관광만족도	0.31	106.27
관광소비액	-0.34	93.23
관광소득창출	1.60	131.92
관광기간	0.86	117.25
주민역량강화	1.18	123.53
주민인력규모	1.66	133.13
관광정책 인력/예산	0.16	103.13
관광정책	1.42	128.47

자료: 저자 작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전남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112.73 점으로 산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33.22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50.90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8.61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4-31〉 전라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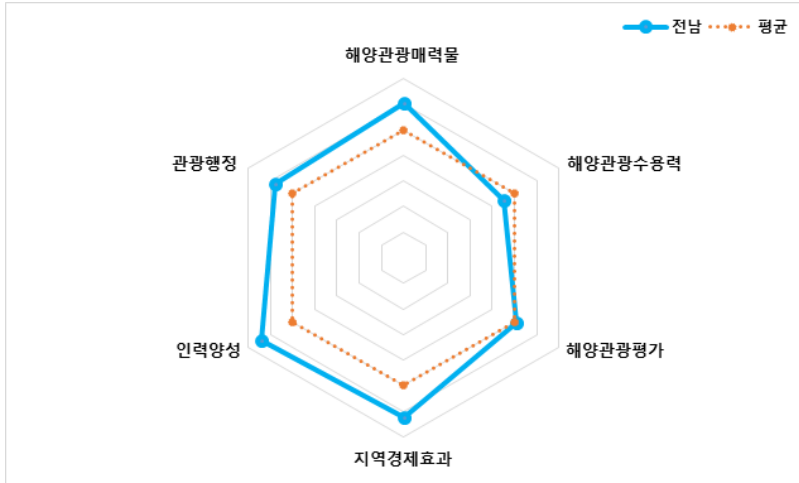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33.22
해양관광 수요지수	50.90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8.61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12.73

자료: 저자 작성

전남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양관광 정책역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남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정책적으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16개의 연안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타 연안 시·도 대비 월등히 높아 많은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해양관광 공급지수 중 해양관광 수용력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관광안전 부문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광안전 부문은 제주도와 함께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은 해양관광 안전성 제고와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해양관광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15〉 전라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9) 경상북도

경북 해양관광 경쟁력은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120.03점) 부문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지표의 표준화 점수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해양관광 경쟁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관광소득창출이 89.49점으로 나타나 타 부문 대비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주민인력규모(91.33점), 관광소비액(92.63점), 해양레저스포츠시설(95.06점) 등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2〉 경상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0.71	114.10
문화자원	0.38	107.65
숙박 및 교통시설	0.17	103.49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25	95.06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해양관광 안전	0.28	105.54
관광객 수	-0.05	98.92
관광만족도	0.58	111.69
관광소비액	-0.37	92.63
관광소득창출	-0.53	89.49
관광기간	0.57	111.30
주민역량강화	0.09	101.75
주민인력규모	-0.43	91.33
관광정책 인력/예산	1.00	120.03
관광정책	0.25	105.01

자료: 저자 작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경북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104.25 점으로 산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33.06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44.86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6.33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4-33〉 경상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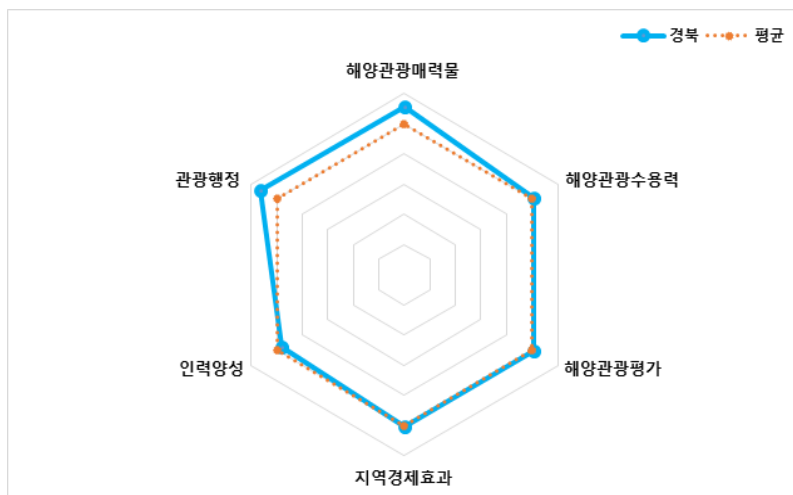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33.06
해양관광 수요지수	44.86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6.33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04.25

자료: 저자 작성

경북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부문에서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간 경북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공원 조성, 해양문화공간 조성, 친수시설 확충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동해안 5개 지역이 해양관광 공동마케팅을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 중 관광행정 부문이 높은 편이며, 해양관광 매력물의 경쟁력도 높다.

〈그림 4-16〉 경상북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10) 경상남도

경남 해양관광 경쟁력은 대부분의 지표를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민인력규모가 142.27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광기간(123.80점),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122.85점), 주민역량강화(121.03점) 순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해양관광 안전 부문이 88.13점으로 타 부문 대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연자원(95.21점), 관광객 수(99.13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4〉 경상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0.24	95.21
문화자원	0.82	116.40
숙박 및 교통시설	0.07	101.40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81	116.23
해양관광 안전	-0.59	88.13
관광객 수	-0.04	99.13
관광만족도	0.95	118.93
관광소비액	0.52	110.31
관광소득창출	0.34	106.83
관광기간	1.19	123.80
주민역량강화	1.05	121.03
주민인력규모	2.11	142.27
관광정책 인력/예산	1.14	122.85
관광정책	0.07	101.39

자료: 저자 작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경남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111점으로 산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31.38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50.35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9.27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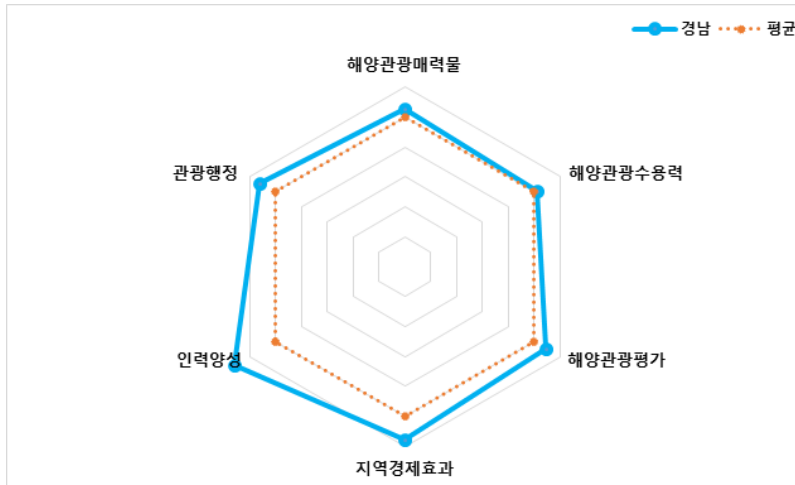
〈표 4-35〉 경상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31.38
해양관광 수요지수	50.35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9.27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11.00

자료: 저자 작성

경남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모든 부문에서 평균 이상이며, 특히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가 공급과 수요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경상남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자료: 저자 작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관광 관련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해양관광 부문 예산 역시 360억 원 규모로 전체 평균(약 131억 원)의 약 3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해양관광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남해안권 섬 관광 사업, 해양관광진흥지구 관련 사업, 해양레저기반 조성 사업 등 적극적인 관광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11) 제주도

제주 해양관광 경쟁력은 관광소비액 부문이 147.0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숙박 및 교통시설(126.98점), 관광만족도(124.69점),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114.16점)순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해양관광 안전 부문은 68.23점으로 나타나 타 부문 및 지역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민인력규모가 91.33점으로 경쟁력이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6〉 제주도 해양관광 경쟁력 표준화 점수

구분	Z 표준화 점수	T 표준화 점수
자연자원	-0.03	99.33
문화자원	0.21	104.21
숙박 및 교통시설	1.35	126.98
해양레저스포츠시설	0.36	107.17
해양관광 안전	-1.59	68.23
관광객 수	-0.10	97.91
관광만족도	1.23	124.69
관광소비액	2.35	147.05
관광소득창출	-0.08	98.48
관광기간	0.41	108.17
주민역량강화	-0.14	97.30
주민인력규모	-0.43	91.33
관광정책 인력/예산	0.71	114.16
관광정책	-0.06	98.77

자료: 저자 작성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된 제주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108.11점으로 산출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30.74점,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52.23점,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25.14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4-37〉 제주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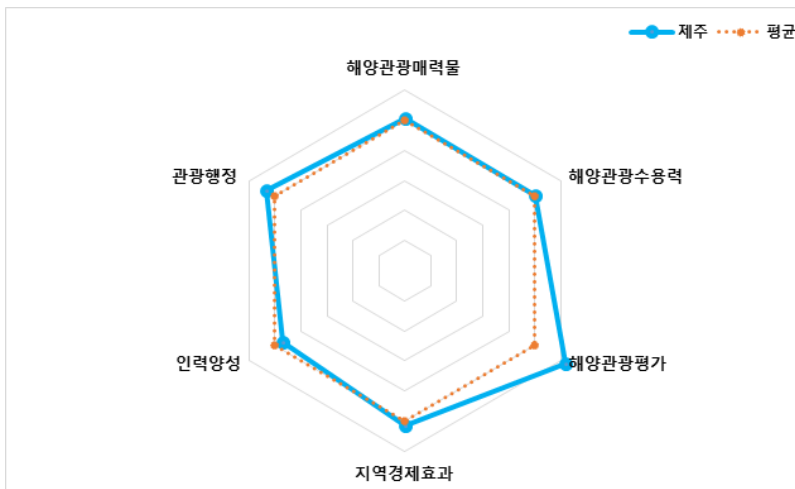
구분	지수 값
해양관광 공급지수	30.74
해양관광 수요지수	52.23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	25.14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108.11

자료: 저자 작성

제주 해양관광 경쟁력의 특징은 관광객 수, 관광만족도, 관광소비액을 포함하는 해양관광 평가가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다만 섬 지역인 제주의 지리적 여건에 비해 해양관광 공급지수와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는 평균과 유사한 정도이다.

제주는 지리적 이점으로 해양관광자원 개발이 용이하고, 섬 지역의 특수한 해양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에 제주만의 해양관광 매력물을 개발하고 해양관광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림 4-18〉 제주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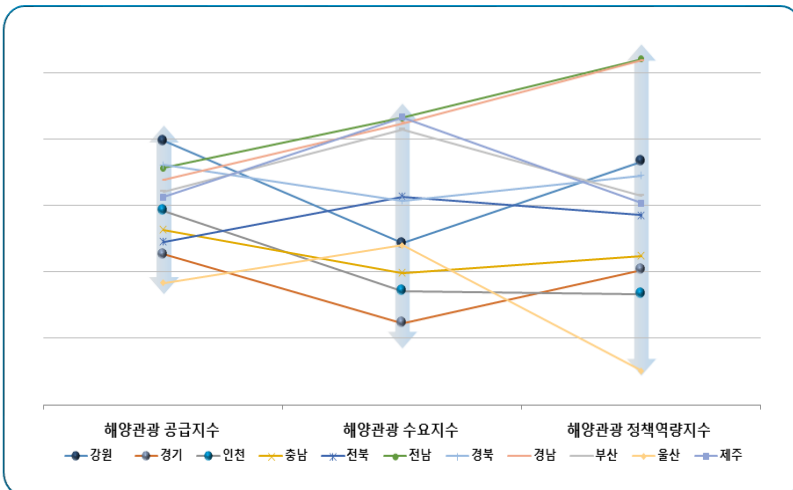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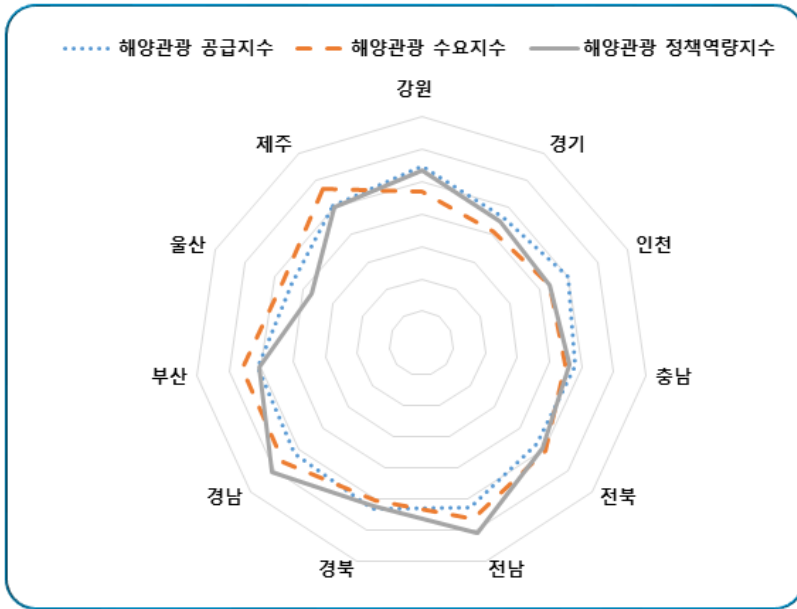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양관광 수요지수,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의 순으로 지역의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연안 시·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관광 매력물과 해양관광 수용력에 있어서는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해양관광 수요와 해양관광 정책역량에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관광 공급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해양관광 수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경남인 것으로 나타나 각 부문별 지역의 경쟁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전남과 경남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울산, 인천, 충남 지역은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9〉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분석(1)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0〉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종합 분석(2)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별 해양관광 경쟁력의 강·약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부산은 전체적으로 각 부문에 균형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해양관광 정책역량 중 인력양성 부문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인천은 해양관광 수용력이 강점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경제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여 해양관광산업 생태계 구축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은 해양관광 수요는 높은 반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상응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해양관광 수용력과 인력양성 측면이 강점인데 반해 해양관광 수요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수요를 상

승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전체적으로 높으나 계절적 편중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해양관광 사계절 육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충남은 해양관광 매력물이 강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역 내 불균형 심화로 인하여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은 해양관광 공급지수가 약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관광 매력물을 발굴 및 개발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전남의 해양관광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해양관광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 숙박 및 교통,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등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북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전반적으로 균형적이며, 그중에서도 정책역량과 관광공급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남은 해양관광 정책역량 경쟁력이 강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인 해양관광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해양관광 수요지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 개발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중심으로 연안지역의 해양관광 발전 역량과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표에 대한 측정 자료의 확보방안, 측정시기, 측정 척도 등 일련의 방법을 도출하고 연안 광역시·도 11개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시범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체계화를 통하여 지속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이를 통하여 향후 해양관광 정책 사업 발굴 및 성과 측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시범적용을 통하여 지역별 해양관광 경쟁력의 강·약점을 파악하였고, 지자체 차원의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 개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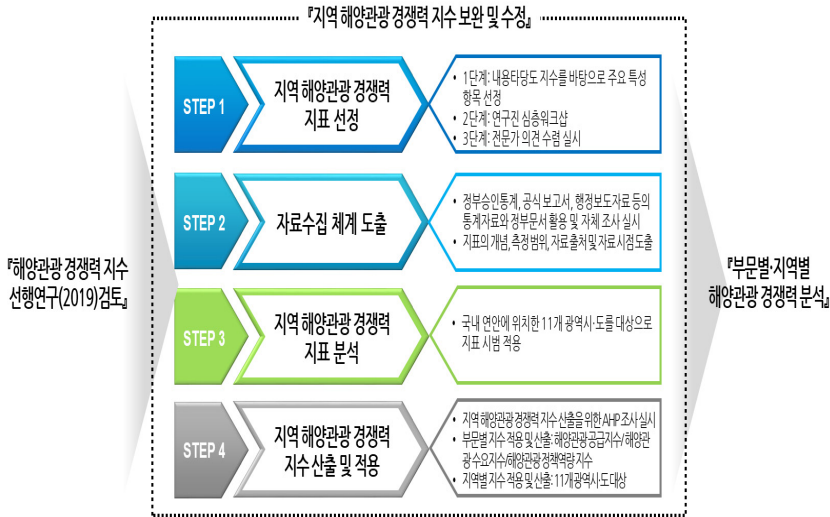
지수를 바탕으로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토, OECD 지표 점검기준 부합도 검토를 위한 연구진 심층워크숍, 지표의 표면타당성 및 내용타당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3개 대분류, 6개 중분류, 14개 소분류, 34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해양관광 공급지수, 해양관광 수요지수,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로 구분하여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해양 매력물과 해양관광 수용력을 포함하였고, 해양관광 수요지수는 해양관광 평가와 지역경제효과로 구성하였으며, 해양관광 정책역량 지수는 지역의 인력양성과 관광행정 측면으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후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자료수집 방향을 각각의 지표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지수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도출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11개 연안 광역시·도의 지표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표별 현황 분석 결과, 연안 11개 광역시·도의 세부지표별 값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화를 위하여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하여 지수별 가중치를 도출하고, 지수화를 실시하였다.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분석 결과 해양관광 공급지수는 강원, 전남, 경북 순으로 높고, 울산, 경기, 전북 등이 낮게 나타났다. 해양관광 수요지수에서는 제주, 전남, 경남, 부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인천, 충남, 울산 등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정책역량지수는 경남, 전남, 경북, 강원 순으로 높고, 울산, 인천, 경기 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본 연구는 지역별 해양관

광 경쟁력 지수를 분석하여 각 지역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5-1〉 연구 요약



자료: 저자작성

종합해서 살펴보면 해양관광 공급지수의 지역별 격차가 적으며, 수요지수와 정책역량지수 순으로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안 광역시·도의 해양관광 매력물과 수용력의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해양관광 수요와 해양관광 정책역량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지역별 산업지원 정책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절 연구의 활용·관리방안 제안과 향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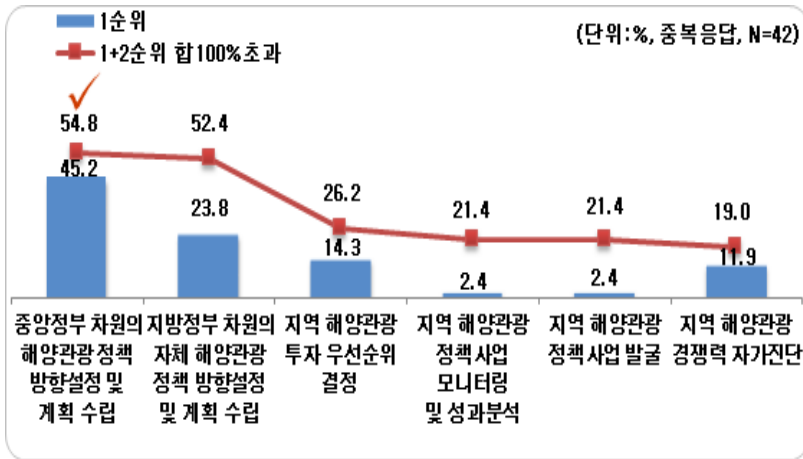
1. 연구의 활용 및 관리방안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관광산업의 발전 요인을 규명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지역 해양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에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속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수는 정책의 수립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 및 지역의 해양관광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활용방안은 앞서 가중치 산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연계하여 실시된 지수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해양관광 정책 방향설정 및 계획 수립’이라는 응답이 54.8%(1순위 기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해양관광 정책 방향설정 및 계획 수립(52.4%)’, ‘지역 해양관광 투자 우선순위 결정(26.2%)’, ‘지역 해양관광 정책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해양관광정책 중장기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연안지역의 관광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활용가치를 가장 높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분석을

통하여 지역 차원에서는 해양관광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림 5-2〉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활용



자료: 저자 작성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활용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지역의 해양관광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관광의 공급과 수요, 경쟁우위 분야를 분석하고 지역의 관광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지역 해양관광환경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서는 기초 통계자료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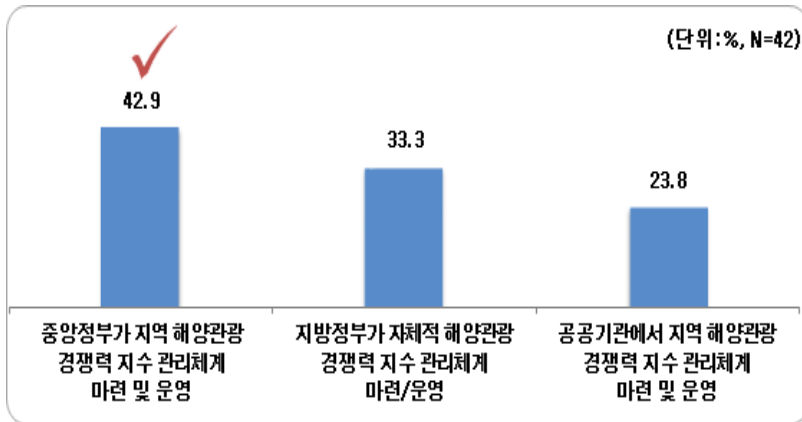
둘째,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지역의 해양관광발전 정책목표 설정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국내 해양관광정책은 관광시장의 활성화와 수요 증대를 위하여 관광정책사업의 성공사례나 해외 육성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 간 유사한 사업

모델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해양관광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관광활동 주체의 욕구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해양관광정책은 지역의 해양관광 발전 수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관광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근거로 한 정책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지역별 해양관광정책사업의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즉, 지역별 해양관광정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광시장의 변화를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통하여 측정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정책사업의 성과 측정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비교우위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지역의 해양관광환경에 적합한 관광사업을 발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활용과 연계하여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지수의 관리방안으로는 ‘중앙정부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관리체계 마련 및 운영’이라는 응답이 42.9%로, ‘지방정부가 자체적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관리체계 마련 및 운영’이라는 응답 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내 해양관광정책에 있어서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수를 주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3〉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관리



자료: 저자 작성

해양관광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양관광통계의 구축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광정책의 근거가 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도 해양관광정책 및 통계 확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관광통계자료와 해양관광 관련 유관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앙 부처 및 연안 지자체와의 협력방안도 관리체계 구축에 포함되도록 하여 기초 통계자료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 시·도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해양관광객 실태조사 등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전담 기관 선정을 통하여 지수의 수정 및 보완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 전담기관에서는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분석하여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하여 해양

관광 정책 방향설정과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관광분야의 경우 관광통계 및 지수생산과 관련된 전문 조사기관, 관리기관 및 이를 공표할 수 있는 홍보체계가 함께 구축되어 있다. 또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는 관광경쟁력을 전담하는 부서인 관광컨설팅팀을 설치하여 관광경쟁력 진단모형에 의거하여 전국 지자체 관광경쟁력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심화 컨설팅 사업은 유료이며,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한다. 이후 관광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서 수행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담기관의 주요역할은 지수의 지속적인 생산과 더불어 변화된 외부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여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수의 발굴 및 자료의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수행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연안 기초지자체 단위 분석의 제약과 객관적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몇몇 지표의 경우 자료 확보 시점

이 상이한 점이다. 현재의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지표는 연안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해양관광 수요 지수는 해양관광객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지표가 포함되어 있어 연안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표본 수 확보가 중요하다. 해양관광 정책 역량 지수에 있어서도 전담 부서, 관련 연구 등은 연안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역량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지역 관광경쟁력의 평가는 관광자원, 관광객 수 등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주관적 지표의 결합이 중요하나, 지표측정의 어려움으로 현재의 지수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과제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의 연안 기초지자체 대상 적용을 위하여 지표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연안 시·도와 기초지자체 단위를 적용할 수 있는 차별화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연안 광역시·도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 불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해양관광 경쟁력 확보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관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해양관광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관광의 안전 및 혼잡관리 등과 관련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표 중 주관적 지표인 해양관광 만족도는 KMI에서 실시하는 해양관광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지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주관적 지표에 대한 정밀한 측정체계 마련과 설문조사와 병행한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자료 확보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안 지자체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자료 확보 시점을 통일하여 지표 활용 제고방안을 마

련하고자 한다.

향후 과제로는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해양관광 플랫폼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등 다수기관이 운영하는 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우리나라 관광객 트렌드, 지역관광발전지수, 문화향유지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관광발전지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관광발전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해양관광 분야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기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연구과제로 향후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발전시켜 세계 해양관광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는 주요 해양관광 도시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관광도시의 현재 위치와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계 수준의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김혜숙,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 AHP 지수 산출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0권 제4호, 2009.

문화체육관광부, 「2017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2018.

_____,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종합지수 분석 및 문화균형지수 시범연구」, 2019.

최일선·홍장원·이정아,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한국어촌어항공단 내부 자료(어촌체험(휴양)마을 수, 지역주민 해양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수,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레저관광실태조사(자체조사), 2019.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2020.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수중레저사업장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해수욕장 이용객 수)

〈법령 자료〉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20. 1. 29, 법률 제1690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68호).

「농어촌정비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07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68호).

- 「문화재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409호).
- 「수상레저안전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
- 「어촌·어항법」(2020. 3. 24, 법률 제17107호).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33호).
- 「해양수산발전기본법」(2019. 8. 27, 법률 제16570호).

〈국외 문헌〉

- Fehring, R. J., "Methods to validate nursing diagnoses", *Heart and Lung*, 16(6), 1987.
- OECD,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2005.
- WEF,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9*, 2019.

〈인터넷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29395/fileData.do> (검색일: 2020. 8. 24.)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www.tour.go.kr (검색일: 2020. 8. 24.)
-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https://tdss.kr/pub/stat/areaTourDevQuotResult.do> (검색일: 2020. 10. 19.)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RegionPsView.do?pageNo=1_1_3_1 (검색일: 2020. 8. 24.)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검색일: 2020. 8. 2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검색일: 2020. 8. 24.)

한국관광공사, <https://kto.visitkorea.or.kr/kor/biz/consulting/stance/understand/diagUnders.kto> (검색일: 2020. 8. 24.); <https://kto.visitkorea.or.kr/kor/biz/consulting/stance.kto> (검색일: 2020. 10. 19.)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https://www.ktdb.go.kr/www/selectTrnsportTreeView.do?key=32&idx=25898> (검색일: 2020. 8. 24.)

한국농어촌민박협회, <http://한국민박협회.com/shop/> (검색일: 2020. 8. 24.)

한국호텔업협회, www.hotelskorea.or.kr (검색일: 2020. 8. 24.)

해양경찰청 연안체협활동 종합정보, <https://imsm.kcg.go.kr/CSMS/main/csiAccount/CsiAcCntSttusRB.do> (검색일: 2020. 8. 24.)

해양수산부, www.mof.go.kr (검색일: 2020. 8. 24.)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www.mof.go.kr/statPortal (검색일: 2020. 8. 24.)

〈광역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www.busan.go.kr/hrd/index (검색일: 2020. 8. 24.)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https://hrd.incheon.go.kr> (검색일: 2020. 8. 24.)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https://edu.ueti.or.kr/> (검색일: 2020. 8. 24.)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http://www.jeju.go.kr/jejuedu/index.htm> (검색일: 2020. 8. 24.)

경기도 인재개발원, edu.gg.go.kr (검색일: 2020. 8. 24.)

강원도 인재개발원, edu.provin.gangwon.kr (검색일: 2020. 8. 24.)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http://www.chungnam.go.kr/civileducationMain.do> (검색일: 2020. 8. 24.)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https://hrd.jeonbuk.go.kr> (검색일: 2020. 8. 24.)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http://loti.jeonnam.go.kr/> (검색일: 2020. 8. 24.)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http://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gboti/index.html (검색일: 2020. 8. 24.)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www.gyeongnam.go.kr/hrd (검색일: 2020. 8. 24.)

〈시도 연구원〉

부산연구원, www.bdi.re.kr (검색일: 2020. 8. 24.)

인천연구원, www.ii.re.kr (검색일: 2020. 8. 24.)

울산연구원, www.uri.re.kr (검색일: 2020. 8. 24.)

제주연구원, www.jri.re.kr (검색일: 2020. 8. 24.)

경기연구원, www.gri.re.kr (검색일: 2020. 8. 24.)

강원연구원, www.rig.re.kr (검색일: 2020. 8. 24.)

충남연구원, www.cni.re.kr (검색일: 2020. 8. 24.)

전북연구원, www.jthink.kr (검색일: 2020. 8. 24.)

광주전남연구원, www.gjeri.kr (검색일: 2020. 8. 24.)

대구경북연구원, www.dgi.re.kr (검색일: 2020. 8. 24.)

경남연구원, www.gndi.re.kr (검색일: 2020. 8. 24.)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부산광역시청, www.busan.go.kr (검색일: 2020. 8. 24.)

인천광역시청, www.incheon.go.kr (검색일: 2020. 8. 24.)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검색일: 2020. 8. 24.)

제주특별자치도청, www.jeu.go.kr (검색일: 2020. 8. 24.)

경기도청, www.gg.go.kr (검색일: 2020. 8. 24.)

강원도청, www.provin.gangwon.kr (검색일: 2020. 8. 24.)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검색일: 2020. 8. 24.)

전라북도청, www.jeonbuk.go.kr (검색일: 2020. 8. 24.)

전라남도청, www.jeonnam.go.kr (검색일: 2020. 8. 24.)

경상북도청, www.gb.go.kr (검색일: 2020. 8. 24.)

경상남도청, www.gyeongnam.go.kr (검색일: 2020. 8. 24.)

부록

〈부록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 7

조사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일선 전문연구원 (051-797-4727/ ilsunchoi@kmi.re.kr)

SQ1	이름	
SQ2	소속기관	
SQ3	연락처 / 이메일	
SQ4	전문분야	
SQ5	경력	1) 5년 이하 2) 6년~10년 3) 11년~20년 4) 20년 이상
SQ6	관광 또는 해양관광 관련된 학술연구 혹은 정책연구 참여경력	1) 5년 이하 2) 6년~10년 3) 11년~20년 4) 20년 이상

*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해양관광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의 총체적 능력으로 해양관광지의 공급, 수요, 운영, 관리, 정책 등 내·외부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

* 해양관광 경쟁력이 높은 지역이란 해양관광 매력도와 수용력 등 관광목적지로서의 관광 공급력이 크고, 관광객의 활발한 관광활동으로 관광소비가 높아 해양관광이 지역경제에 기여하여 해양관광발전을 위한 지역의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을 의미

* **지표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내용 적합성(5점 척도)은 모두 평가해주시시오.**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구성 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내용
해양 관광 공급 지수	해양 관광 매력물	자연 자원	지정 해수욕장 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해안둘레길 길이	해파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가 조성 해안누리길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168개 노선 중 주변 경관이 우수하고 해양문화와 역사, 해양산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가 선정
			자연 해안선 비중	연안지역의 자연 해안선 비중
		문화 자원	해양축제 비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하는 문화관광축제 중 축제의 공간이 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해양을 소재로 하는 것
			해양 관련 문화재 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유무형의 해양 관련 문화재로 국가지정, 시도지정, 등록 문화재 등을 포함 (해양관련: 소재가 해양이거나 공간이 해양)
			어촌체험마을 수	국가에서 지정한 어촌관광 특성화 마을
	해양 관광 수용력	숙박 및 교통 시설	관광숙박업 객실 수	해양인접/연안지역 기초지자체 내 관광숙박업의 객실 수
			어촌민박 수	농어촌정착법에 따라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업내 연안지역의 민박수
			대중교통 접근성	해양인접/연안지역 교통 접근성
		해양 레저스포츠 시설	수상레저사업장 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수상레저사업장 수
			수중레저사업장 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되는 수중레저사업장 수
			마리나 계류 선석 수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하여 설치한 마리나계류 선석 수
해양 관광 수요 지수	해양 관광 평가	관광객 수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건수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는 해양관광 관련 안전사고 건수
			주요지점 관광객 수	해양인접/연안지역 내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통한 관광객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이용객 수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연안지역 지자체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이용객 수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해수욕장 이용객 수	등록해수욕장 이용객 수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해양인접/연안지역 내 해양 관련 박물관 및 전시관 참여자 수
		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만족도 조사
			재방문 의향	관광객 재방문 의향 조사
			타인추천의사	관광객 타인추천의사 조사
		관광 소비액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해양관광객 1인당 평균1회 여행시 지출한 금액
	지역 경제 효과	관광 소득 창출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사업체 수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해양수산업관광업 사업체 수
		관광 기간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매출액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해양수산업관광업 사업체 매출액 조사
해양 관광 정책 역량 지수	인력 양성	주민역량 강화	주요지점 관광객 수 성수기 비율(계절성)	수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통한 성수기(6월-9월) 비승
			지역주민 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지역 어촌계장의 어촌관광교육 이수율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관광교육 이수 등 활용
			관광 관련 인력 교육 프로그램 수	해양 지자체의 해양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수
	관광 행정	주민인력 규모	지역 해양 관련 해설사 수	바다해설사, 갯벌생태해설사 등 지역 해설사 수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관광 부문 예산 비율	해양 지자체의 관광 부문 예산 비율
			해양관광 담당 전담 부서 유무	해양관광 전담부서 유무
	관광 정책		해양관광 관련 조례 유무	연안지역 시·도 해양관광 관련 조례 유무
			연안지역 시·도 해양관광 관련 연구 수	연안지역 시·도 연구원에서 수행한 해양관광 관련 연구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세부지표에 대한 의견	각 지표가 어느 정도 적합한지 말씀해주세요(V)				
					정확 적합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적합함
해양 관광 공급 지수	해양 관광 매체물	자연 자원	지정 해수욕장 수		1	2	3	4	5
			해안둘레길 길이		1	2	3	4	5
		문화 자원	자연 해안선 비중		1	2	3	4	5
			해양축제 비중		1	2	3	4	5
	해양 관광 수용력 지수	숙박 및 교통 시설	해양 관련 문화재 수		1	2	3	4	5
			어촌체험마을 수		1	2	3	4	5
			관광숙박업 객실 수		1	2	3	4	5
			어촌민박 수		1	2	3	4	5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	대중교통 접근성		1	2	3	4	5
			수상레저사업장 수		1	2	3	4	5
			수중레저사업장 수		1	2	3	4	5
			마리나 개류 신적 수		1	2	3	4	5
		관광 안전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건수		1	2	3	4	5
			주요지점 관광객 수		1	2	3	4	5
해양 관광 수요 지수	관광객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1	2	3	4	5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1	2	3	4	5
			해수욕장 이용객 수		1	2	3	4	5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1	2	3	4	5
	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만족도		1	2	3	4	5
			재방문 의향		1	2	3	4	5
			타인추천의사		1	2	3	4	5
	관광소비액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1	2	3	4	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세부지표에 대한 의견	각 지표가 어느 정도 적합한지 말씀해주세요(V)				
					전혀 적합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적합함
해양 관광 정책 역량 지수	지역 경제 효과	관광 소득 창출	연인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수		1	2	3	4	5
			연인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매출액		1	2	3	4	5
		관광기간	주요지점 관광객 수 상승기 비율(계절성)		1	2	3	4	5
			지역주민 관광 관련 프로그램 이수자		1	2	3	4	5
	인력 양성	주민 역량강화	관광 관련 인력 교육 프로그램 수		1	2	3	4	5
			지역 해양 관련 해설사 수		1	2	3	4	5
		관광정책 인력/예산	관광 부문 예산 비율		1	2	3	4	5
			해양관광 담당 진급 부서 유무		1	2	3	4	5
	관광 행정	관광 정책	해양관광 관련 조례 유무		1	2	3	4	5
			연인지역 시·도 연구원 수행 해양관광 관련 연구 수		1	2	3	4	5

〈부록2〉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조사

2020 -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의 목적은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의 가중치와 지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입니다.

본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 8

설문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일선 전문연구원 (051-797-4727)

조사문의 사항

	전문분야	()
SQ1	해양관광 관련된 학술연구 혹은 정책연구 참여경력	1) 5년 이하 2) 6년~10년 3) 11년~20년 4) 20년 이상
SQ2	근무기관	1) 연구기관 2) 학교 3) 기업 4) 정부 및 산하기관 5) 기타: _____

PART A.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가중치 조사

본 전문가 조사의 목적은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의 가중치'를 결정 위함입니다. 다음의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를 참고하여 각 문항별로 제시된 항목에 대해서 비교한 후 그 중요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구성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지표	내용
해양 관광 공급 지수	해양 관광 매력물	자연 자원	지정 해수욕장 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수
			해안둘레길 길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가 선정 및 조성하는 해파랑길과 해양수산부가 주변 경관이 우수하고 해양문화와 역사, 해양 산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해안 누리길 등의 지자체별 전체 길이
			자연 해안선 비중	연안지역의 전체 해안선 길이 중 자연 해안선 비중
		문화 자원	해양축제 비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시하는 문화관광축제 중 축제의 공간이 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해양을 소재로 하는 것
			해양 관련 문화재 지정 건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유무형의 해양 관련 문화재로 국가지정, 시도지정, 등록 문화재 등을 포함함(해양 관련 : 소재가 해양이거나 공간이 해양)
			어촌체험마을 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어촌관광 특성화 마을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명칭인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중 해양인접/연안 지역 지자체 내 관광숙박업의 객실 수
	해양 관광 수용력	숙박 및 교통 시설	관광숙박업 객실 수	연안 지역 지자체 내 관광숙박업의 객실 수
			어촌민박 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사업 내 연안 지역에 있는 어촌민박 수
			대중교통 접근성	연안지역 내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 접근성으로 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까지 도달하기 위한 평균 소요시간을 나타냄
		해양 레저스포츠 시설	수상레저사업장 수	연안지역 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수상레저 사업장 수
			수중레저사업장 수	연안지역 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수중레저사업장 수
			마리나선박 계류 수용 능력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하여 설치한 마리나항만 내 마리나 계류 선석 수
		해양관광 안전	해양관광 안전사고 발생건수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는 해양관광 관련 인명피해(사망/구조) 건수
해양 관광 수요 지수	해양 관광 평가	관광객 수	해양관광 주요지점 평균 관광객 수	연안지역 주요 해양관광 관련 지정 입장객 통계를 통한 평균 관광객 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연안지역 지자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참여자 수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 참여자 수
			해수욕장 이용객 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
			해양 관련 박물관/전시관 이용객 수	연안지역 해양 박물관 및 전시관 참여자 수
	관광 만족도	관광 만족도	해양관광 만족도	해양관광객의 연안지역 해양관광지 숙박, 식음료, 쇼핑, 체험 프로그램, 편의시설, 혼잡도, 치안 등의 만족도
			재방문 의향	해양관광객 재방문 의향 정도
			타인추천의사	해양관광객 타인추천의사 정도
	지역 경제	관광 소득	해양관광활동 관광소비액	해양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위한 지불한 금액
			연안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해양인접/연안지역 기초지자체 내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기준 운영 중인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평균 매출액

	효과	창출	연인지역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종사자 수	해양인접/연인지역 기초지자체 내 해양수산업특수분류체계 기준 운영 중인 해양레저관광 종사자 수
		관광 기간	해양관광 주요지점 개설성	해양관광 주요지점 입장객 통계를 통한 관광객 수의 성수기 비율
해양 관광 정책 역량 지수	인력 양성	주민역량 강화	지역주민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	지역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마을주민 및 관계자 해양관광 교육 참여자 수
			관광 관련 지자체 교육 프로그램 시간	지자체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시간
		주민인력 규모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수	국가가 지정한 바다해설사 및 갯벌생태해설사 등 해양 관련 지역 해설사
	관광 행정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해양관광 전담 부서 공무원 수	해당 지자체의 해양관광 공무원의 수
			해양관광 부문 예산	해당 지자체의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
			전체 예산 대비 해양관광 부문 예산 비율	해당 지자체의 해양관광 부문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관광 정책	해양관광 담당 전문 부서 유무	해양관광 전문부서 유무
			해양관광 관련 자치법규 수	연인지역 해양관광 관련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수
			연인지역 시·도 연구원 관광 관련 연구 수	연인지역 시·도 연구원에서 수행한 관광 관련 연구 수

AHP 평가방법

- AHP 평가방법은 두 개의 평가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평가항목이 그렇지 못한 평가항목 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교 평가하는 것을 말함
- 이러한 평가는 계층구조별로 반복되며, 응답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함
- 평가방법은 두 평가항목 간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선택하고, 그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도에 √ 표시
- 가령 평가항목 중 A가 B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A 부분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택1 하여 √를 기입

기준(척도) : ① 같음, ③ 조금 중요함, ⑤ 중요함, ⑦ 매우 중요함, ⑨ 절대적으로 중요함
②, ④, ⑥, ⑧ : 각 기준의 중간 수준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매우중요									
A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B

I. 대분류 지수 비교

Q1. '해양관광공급지수', '해양관광수요지수', '해양관광정책역량지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일	약간		중요		매우중요					
해양관광공급지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양관광수요지수
해양관광공급지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양관광정책역량지수
해양관광수요지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양관광정책역량지수

II. 중분류 지수 비교

Q2. '해양관광공급지수'의 해양관광 매력물과 해양관광 수용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일	약간 중요 중요 매우중요								
해양관광 매력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양관광 수용력

Q3. '해양관광수요지수'의 해양관광평가, 지역경제효과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해양관광 성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경제 효과								

Q4. '해양관광정책역량지수'의 인력양성, 관광행정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일	약간 중요 중요 매우중요								
인력양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광행정	

III. 소분류 지수 비교

Q5. '해양관광 매력물'의 자연자원, 문화자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비교	약간 중요 중요 매우중요 →								
자연자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화자원

Q6. '해양관광 수용력'의 숙박 및 교통시설, 해양레저스포츠시설, 해양관광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 일	약간 중요 중요 매우중요 →								
숙박 및 교통시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양레저 스포츠시설
숙박 및 교통시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양관광 안전	
해양레저 스포츠시설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양관광 안전	

Q7. '해양관광평가'의 관광객 수, 관광만족도, 관광소비액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동일	매우중요								
관광객 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광 만족도
관광객 수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광 소비액
관광 만족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광 소비액

Q8. '지역경제효과'의 관광소득창출, 관광기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									동일	→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약간			중요			매우중요		
관광소득 창출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광기간		

Q9. '인력양성'의 주민역량강화, 주민인력규모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동일	매우중요								
주민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민인력규모

Q10. '관광행정'의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관광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동일	매우중요								
관광정책 인력 및 예산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광정책

PART B.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활용 및 관리방안

Q1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중앙정부 차원의 해양관광 정책 방향설정 및 계획 수립시 활용
- ② 지방정부 차원의 자체 해양관광 정책 방향설정 및 계획 수립시 활용
- ③ 지역 해양관광 정책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시 활용
- ④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자가진단시 활용
- ⑤ 지역 해양관광 투자 우선순위 결정시 활용
- ⑥ 지역 해양관광 정책사업 발굴시 활용
- ⑦ 기타()

Q12.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 ① 중앙정부가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관리체계 마련 및 운영
- ②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관리체계 마련 및 운영
- ③ 공공기관에서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관리체계 마련 및 운영
- ④ 기타()

♪ 이상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0년

01	해양수산업의 지역 간 연관구조 분석	장정인
02	해양수산 분야 기술 대외의존도 분석연구 - 스마트항만을 중심으로 -	전형모
03	지역 해양수산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최지연
04	갯벌 거버넌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육근형
05	해양환경정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자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박수진
06	항만 대기환경 관리 표준 및 평가모형 연구	안용성
07	해양수산분야 사회문제해결형 R&D 기반 구축 연구	좌미라
08	해양 유입 하천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이윤정
09	수산물 품질·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현동
10	국제법 변화에 대응한 어선원 안전 및 권리 제고방안 연구	한덕훈
11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추진 방안 수립 연구	이상철
12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수산업 대응 방안 연구	정명화
13	수산물 수급통계 개선 방안 연구	김수현
14	IMO 온실가스 규제 대응 정책방향 연구	박한선
15	퇴직전문가 활용을 통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안영균
16	글로벌 선사들의 물류통합화 전략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방안	전형진
17	내항여객운송항로 정책 발전방안 연구	김태일
18	블록체인 기술기반 식품콜드체인 체계 구축 연구	조지성
19	항만자동화 도입 관련 노무 갈등 해소 방안 연구	김찬호
20	스마트항만과 스마트도시 연계 발전 방안 연구	이연경
21	항만의 회복탄력성 측정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김성기
22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新해사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연구(4차년도)-	박한선
23	국내 항만연계 산업의 가치사슬 및 공급사슬 연계성 강화방안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신수용

2019년

01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최지현
02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 연구(2차년도)	이현동
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박상우
04	해양수산분야 예견적 위험분석 기반구축 연구	최석우
05	재해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연안토지 매수 이행방안 연구	윤성순
06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의 평가·인증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안용성
07	해양레저관광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연구	최일선
08	주요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강화에 대응한 해양유전자원정책 개선 연구	박수진
09	하천·해양 수질의 연계·통합 관리 체계 연구	장원근
10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수산자원관리 강화 방안 연구	이정삼
11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류정곤
12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정명화
13	수산업 노동시장 구조 분석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연구	한광석
14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태일
15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 연구	전형진
16	해상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방안 연구	박한선
17	해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우위 분석 연구	윤희성
18	국내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하태영
19	동북아 공동배출규제해역 지정 필요성 및 추진방안 연구	이기열
20	수출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협력 수준 분석과 물류정책 방안 연구 - 화주~물류기업 협력을 중심으로 -	김은수
21	신선식품 수출입 증대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물류 개선 방안	신수용
22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협력방안	박한선
23	IMO 규제기반 해사산업의 글로벌 지속발전방안 연구 - 우리나라 新해사산업의 경쟁력 분석에 관한 연구 -	최나영환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0년

01	포스트 코로나 19 해양수산 분야 정책방안	박광서
02	생분해성 어구 사용 활성화 방안 연구	심성현
03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방안 연구	박영길
04	무인도서 해양주권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정지호
05	지역 해양수산 재정분권 대응방향	황재희
06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항만·물류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방안	이기열
07	양식 활어 유통 효율화 방안 연구	마창모
08	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홍장원
09	해양바이오기업의 규제 정비 방안 연구	최석문
10	비상체제 시 선원의 안전을 위한 선박-항만-항공 이동경로 구축방안	이혜진

2019년

01	일본의 수산물 수입 구조 분석과 對일본 수출 전략 연구	임경희
02	선박부착생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03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 연구	장홍석
04	전국 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어촌지역 고용통계 (2016, 2017)	한광석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0년

0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 연구	최일선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	강무홍
03	김 중기 수급전망모형 「Gim-MFoS」 구축 연구	허수진

04	중앙 북극 공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이행방안 연구	김민수
05	동해 평화관광구역 조성 방안 연구	윤인주
06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II) - 일반 수출입 컨테이너 정보교환방식 중심 -	이연경
07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우리나라 해운·조선 기업의 안정성 분석	박성화
08	인공지능기반 해상운임예측 연구	황수진
09	국제물류주산업 실태분석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연구	최나영환
10	디지털화에 따른 개별 직업의 대체 가능성 추정 연구	박희대
11	시계열 분석을 통한 해운시장 분석 및 예측 연구	고병욱
12	해양수산업자 글로벌 경제효과 분석모형(KMI-GEM) 시범 구축 연구	임병호
13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 관리운영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자연

2019년

01	양식수산물의 경영비 조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은영
02	딥러닝 기반의 건화물선 시황예측 연구	윤희성
03	해운-조선산업 관계분석 연구 - 컨테이너 신조발주량 예측 -	최건우
04	디지털 공급사슬 물류정보통합 구축전략 연구(I) - 디지털 공급사슬 생태계 정보통합지도 구축 중심 -	최상희
05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해안관리 방향	정지호
06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	이경한
07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8	EU의 수산물 소비 특성 및 수출 전략(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김지연
09	해양수산 위성계정 기초연구(I)	장정인
10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1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 연구	최지연
12	도미니카공화국 뱀장어 양식사업 타당성 조사	마창모
13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2차년도) - 어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과 신활력 사업구상 -	박상우

일반연구 2020-01

지역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체계화 연구

2020년 12월 29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장 영 태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세브스가든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02-394-0337

정가 6,000원